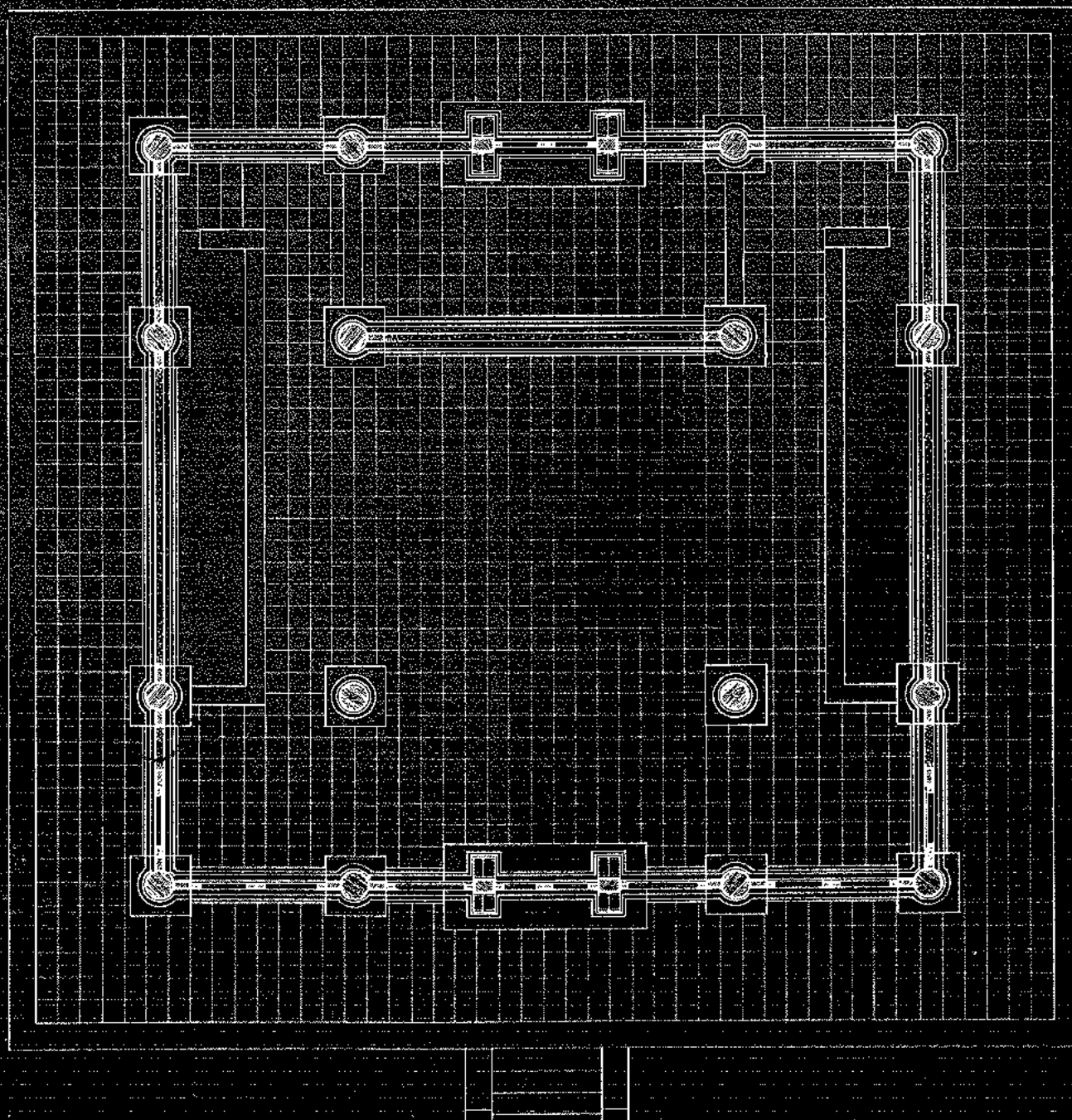


建築士

大日本建築士協会の誌

創刊号 昭和28年12月28日 発行所 日本建築士協会 東京市千代田区千代田1-1-1
印刷所 東京市千代田区千代田1-1-1 日本建築士協会印刷部

197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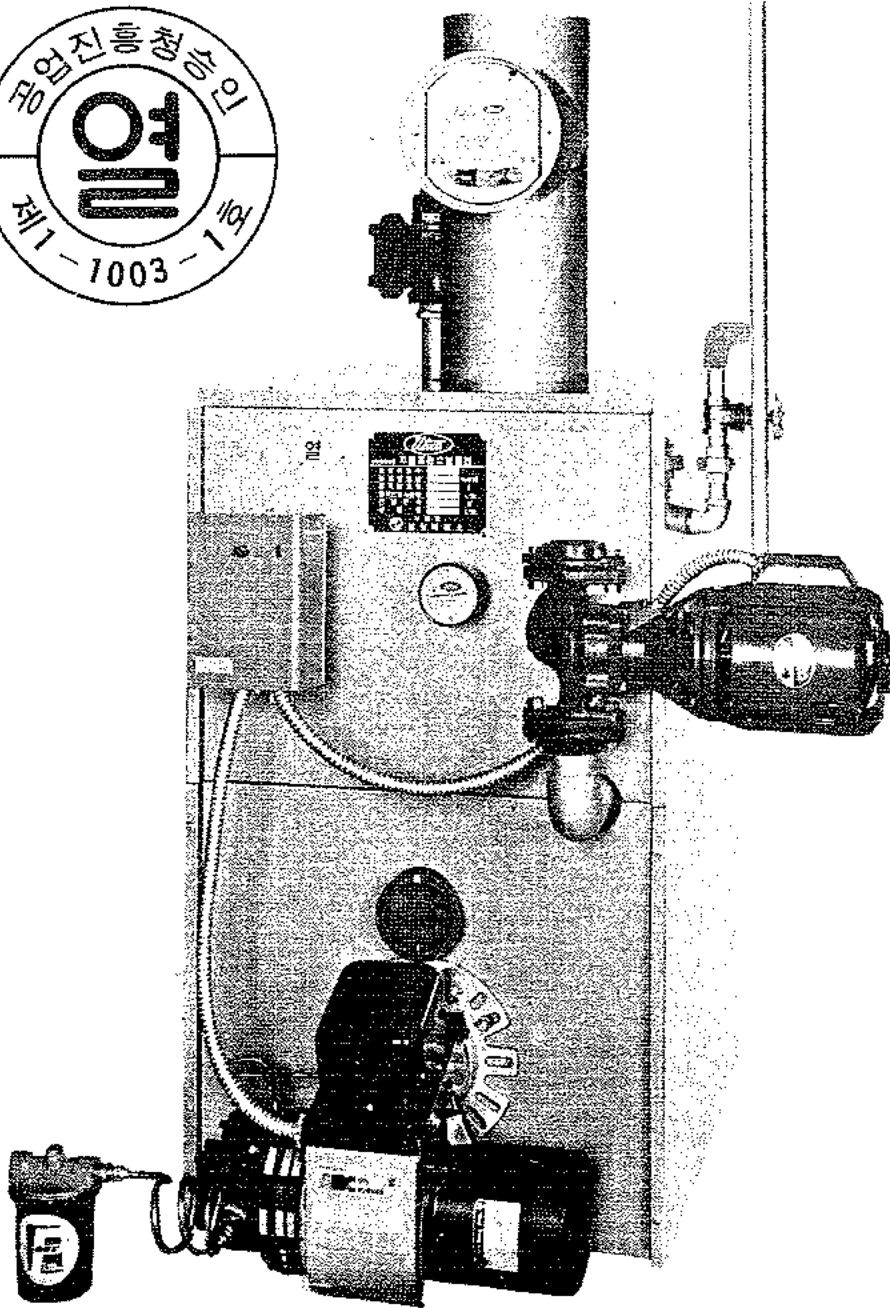
JOURNAL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통 보일러** **신제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 보 商 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1호

進洋商街 1층2동 나열 109호

TEL: 26-2807 · 26-8015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本 社：仁川特別市 中区 西小門575 / 電話：(033) 7141~45
仁 川 工 場：仁川市 東區 萬石洞2 / 電話：(031) 0111~0119
釜 山 工 場：慶南梁山郡日光面伊川里 / 電話：(052) 4066~4070

※제품안내

얇은유리, 무늬유리, 강화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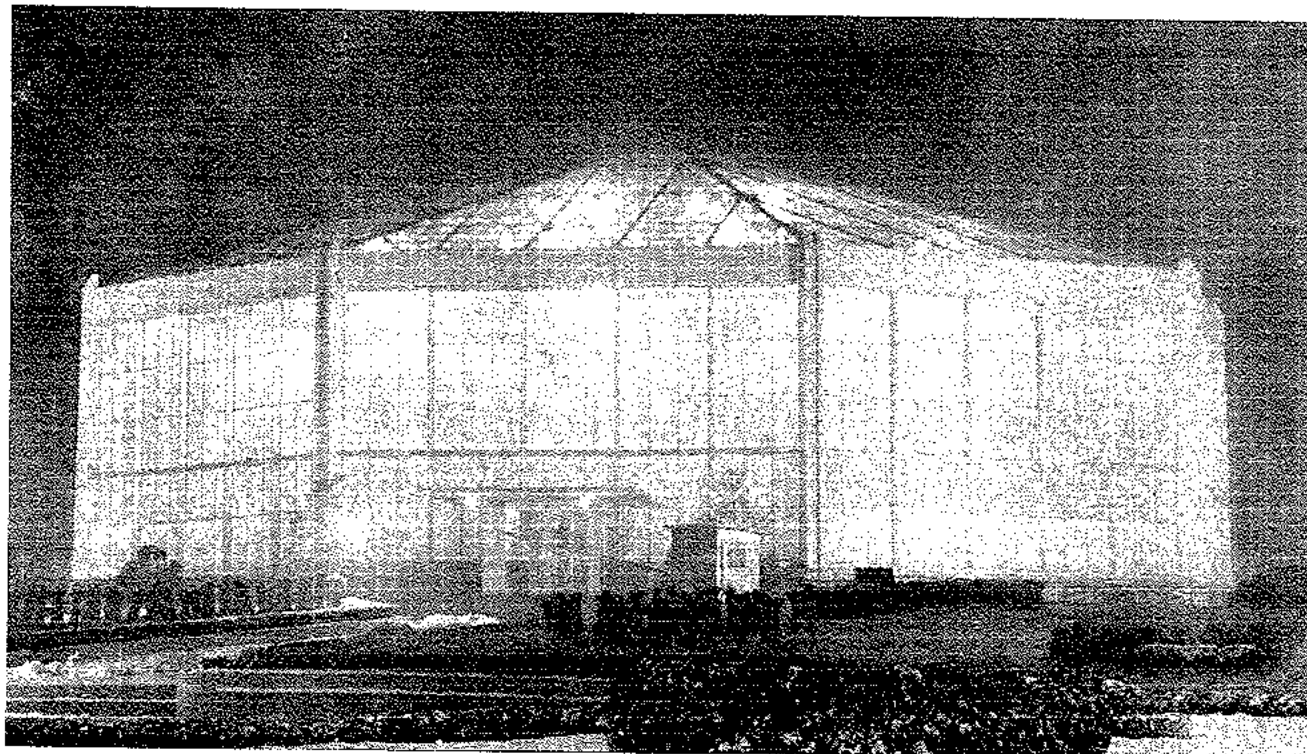
색유리, 厚板유리, 유리블록

國內建 物들 (씨리즈Ⅱ)

색 유리 出現!!

아름다운 色彩와 빛을 지닌

새로운 建築用유리 (8月中 市販予定)



建物名：南山植物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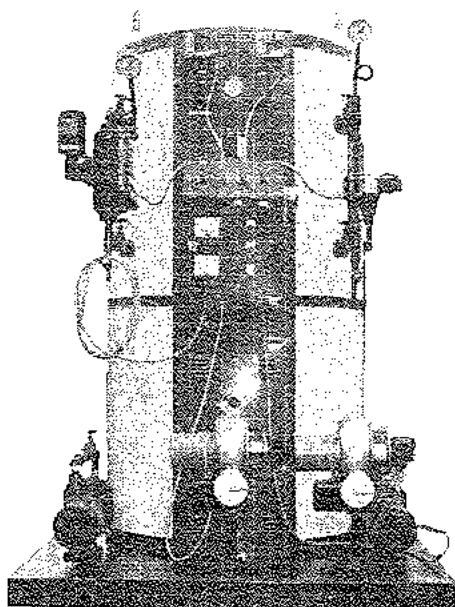
Rocket Boiler

연료비 40% 절약!

**로켓트
보일러**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으로 수출되는
ROCKET BOILER

ROCKET BOILER는

증기용전자동보일러

0.5톤, 0.2톤 소형 전자동증기보일러가 필요하
실 (압력 3.5kg/cm²) 증기공급의 증기다리기, 세
정 건조, 염색기, 세탁, 기숙사 1,000명 이상 취
사용, 화학반응기 등에 저렴한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동이므로 관리권이 편리함으
로 연료비와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박용 보일러

1,500TON 미만의 선박난방 및 온수 공급용 전자
동 보일러

건조용 보일러

건조실의 온도를 자유 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건조용 (증기, 온수) 보일러 (의류공장,
섬유공장, 식품공장, 화학공장)

공장 난방용 보일러

정평 20평 ~ 600평 까지 난방용 자동 증기, 온수
(관리비가 필요없음) 보일러

음료수용 보일러

시간당 20TON 미만의 순수한 온수 (보일러내 수
완전도급) 가 필요한 공장 등에 온수공급용 전
자 동 온수보일러

가정용 온수 보일러

가정용 난방 급탕 겸용 전자동 온수보일러

전자동 오일 버너

미국 하니웰 사, 선드 스탠드 스프 등, 부류
온 적수입하여 제작된 전자동 오일버너

연탄 보일러

온수, 난방, 취사 겸용한 20평 미만의 소형 연
탄 보일러

※ 관리 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
시면 Rocket Boiler에 間違하십시요.

※ Rocket Boiler의 모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Rocket Boiler는 영하 40℃의 북양어선 선실난방부터 국내 공
장 산업시설, 중남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의 안방까
지 우수한 성능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TYPE ITEM	품 류	로켓트기름보일러 (가정용 공장용)										로켓트 스틸보일러		로켓트연탄보일러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R-5-200	KR-6-500	KR-191	KR-192	KR-193	KR-194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30,000	150,000	170,000	200,000	320,000	410,000	120,000	320,000	3,110	6,220	9,330	12,440
난방가능면적	Heating Area	20-30평	30-50	60-80	80-100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290	480-600	3-4	6-9	12-15	16-20
관 수 용 량	ℓ	195	127.9	166.6	178	308	396	573	624	920.5	1280	—	—	35	81	105	130
연료소비량	L/HR	3-5	6-8.5	6.5-8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6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 입 시 험 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8	2	2	2	2
배관구경	mm	50	50	85	85	75	75	75	75	100	100	65	75	32	40	40	50
연통구경	mm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250	350	100	100	100	100
바 나	HP	1/8	1/8	1/8	1/8	1/4	1/4	1/4	1/4	1/2	1/2	1/4	1/2				
외형척수	φ	470	540	610	610	690	800	900	1000	1300	1400	890	1100	430	650	950	1,250
외형척수	H	1150	1150	1290	1450	1600	1750	1750	1850	2000	2,300	1750	2200	590	590	59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480	520	590	620	720	900	120	2400	700	130	203	269
로켓트 보일러이달가격	공 장 도	159,400	202,000	266,900	301,400	410,800	512,400	580,700	690,900	1,149,800	1,276,400			50,400	82,400	109,000	148,500
로켓트 바나일달가격	공 장 도	194,300	194,800	194,300	246,800	246,800	246,800	246,800	278,300	312,900	312,900						
보일러·바나 합계금	공 장 도	353,700	396,800	461,200	548,200	657,600	759,200	837,500	969,200	1,462,700	1,589,400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9358 · 26 · 1135 ~ 6 · 66-1363 · 66-2810

人造石 물갈기가 必要없게 되었습니다.

內裝・階段・外裝・歩道用으로 새로 開發한

점보타일

점보타일

大理石・人造大理石(테라조)과 一般타일類의 材質・特性・經濟性
 施工上の 長點만을 뽑아 바닥과 階段用으로 製造한大型타일 입니다.

用 途

內裝用 (빌딩・銀行・病院・슈퍼마켓・工場・玄關 等の 바닥用)
 階段用 (빌딩・아파트・대파트 等 高層建物の 階段用)
 外裝用 (門柱・外壁等 外裝用)
 歩道車道用 (一般歩道・駅構内・地下道・駐車場・풀場 等の 바닥用)

特 徵

- △ 堅固한 規格製品 입니다.
- △ 施工이 簡便하여 工期를 短縮시킵니다.
- △ 冬寒工事に 가장 適合 합니다.
- △ 表面이 完全水平이고 華麗 합니다.
- △ 工事後의 補修가 容易 합니다.
- △ 바닥능대가 必要 없습니다.
- △ 施工上 公害가 없습니다.

規 格

型別	크 기	두께	枚當重量	坪當枚數	m ² 當枚數
A 型	300×300mm	28mm	6 kg	約36枚	11.11枚
A 型	400×400mm	30mm	11kg	約20枚	6.25枚
B 型	300×300mm	30mm	6 kg	約36枚	11.11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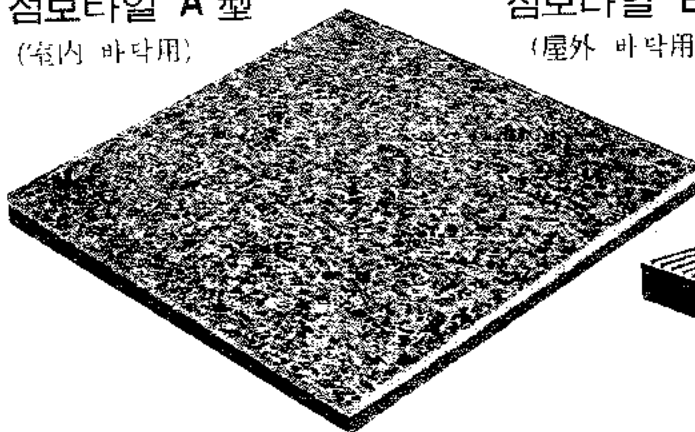
色相……需要者가 願하는 色

施 工

모루탈을 깐 위에 시멘트 溶液을 부린뒤 점보타일을 깔거나
 組立하면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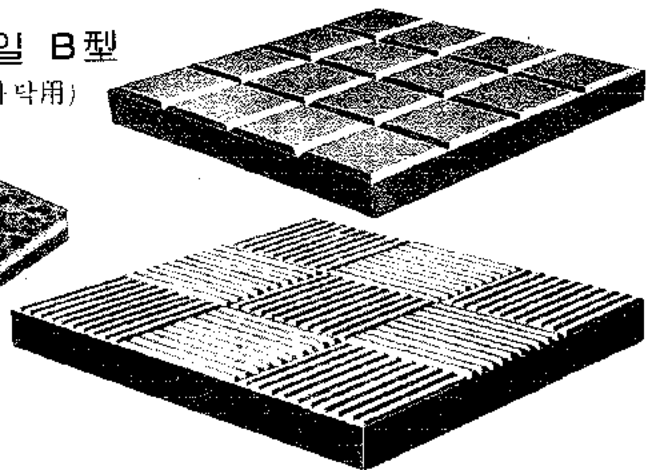
점보타일 A 型

(室內 바닥用)



점보타일 B 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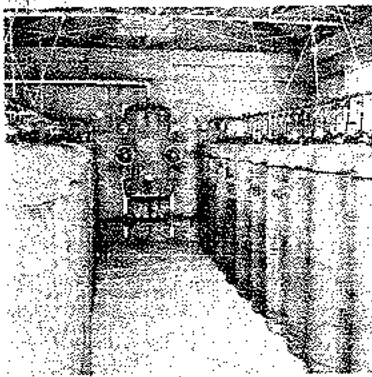
(屋外 바닥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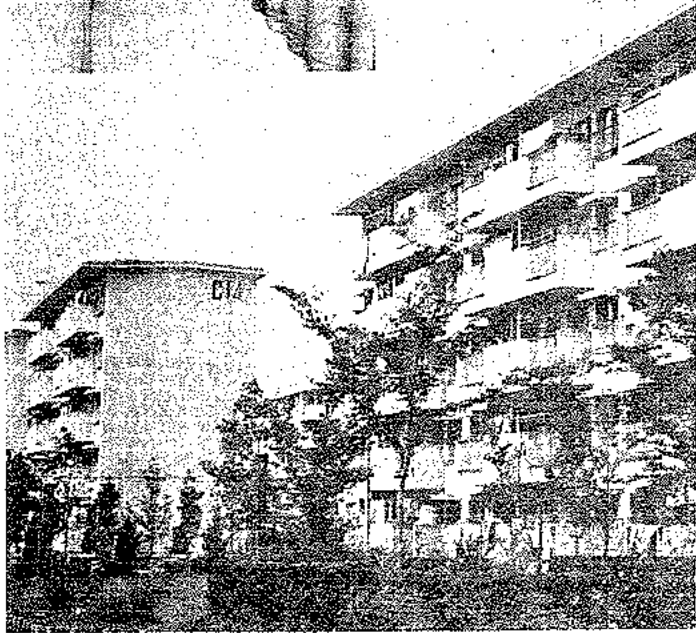
製 造 元 : 丹 尼 翁 建 材 工 業 株 式 會 社 (日本国 株式会社 北陸地所와 合作会社)

總 販 丹 尼 翁 建 材 販 売 商 社 서울特別市中区水標洞27-1
 靑少年會館606号室 電話 27-3600

國內L.P. GAS開發의 先驅者!



1. 제반 가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및
후로판, 부탄가스 납품
2. 각종 가스 기구 취급
3. L.P.G 자동차 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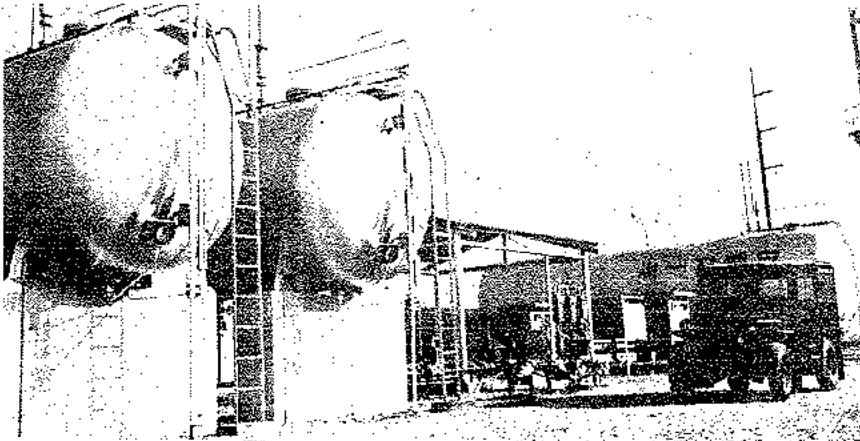


당사시공 아파트 집단공급 저장설비

※당사는 15년간의 전통을 가진 국내最古
最大의 가스제조, 설비 및 납품업체
로서 일류기술진이 상시 대기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시공한 주요 가스
사용업체 및 기관을 열거하면,

- ① KIST
- ② 국정교과서
- ③ 국립보건연구원
- ④ 청담아파트
- ⑤ 한일전기
- ⑥ 삼화제관
- ⑦ 현대양행
- ⑧ 고려병원
- ⑨ 신 양 촌
- ⑩ 자연농원 등으로



본사 탱크 시설

오늘도 건축업체의 일익을 담당코자
부단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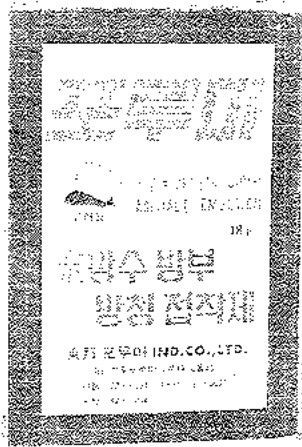
高麗 가스 工業 株式會社

(大韓石油公社 代理店)

營業所・技術部: 서울 종로 2가56-10 Tel. (25) 8176 (25) 8177

本社 및 充塲所: 서울 성동구 마장동 766-6 Tel. (53) 2588 (54) 1685 (52) 4095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 (ASPHALT·EMULSION) 시대로!



완전 방수제

동방 포루마

포루마방수 일위대가표 (m²당)

방수종별 방수가소	3회 방수공법	P.P. 양 첨부 특수공법		지 하 실 방 수
		5회공법(P.P.양 1회)	8회공법(P.P.양 2회)	
벽면, 옥실, 종화조, 콘크리트, 지하실외벽 등		옥실, 균열벽면	균열 옥실	지 하 실 (1층당)
포루마 (KR-3)	743 ⁰⁰	324 ⁰⁰ (4회)	436 ⁰⁰ (6회)	지하실 외벽은 3회 공법 적용
포루마 止水用 (KR-5)				57 ⁰⁰
P.P. 양		170 ⁰⁰	241 ⁷²	
포루마시공공임	311 ⁹¹	415 ⁰⁰	624 ⁰⁰	52 ²⁶
방수층 혼합세멘트				
바탕 정리				
공사준비비용				
보호물 탈				
소 계	554 ⁰¹	860 ²⁴	1,351 ⁷⁵	113 ⁷⁰ (1층당)
공과잡비 (%)				
합 계				
※방수층의벽은 2회도장후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여, 내벽은 2회도장후 벽지를 붙인다.		포루마(KR-3)는 유연성, 접착력, 내한성 등이 우수하여 P.P.양은 인장강도가 강하므로 포루마 3회공법은 아스팔트 8회 방수의 성능을 증가함.		※수압에 따라 흡수가 일어날 포루마 止水用은 액체방수, 분말방수등과는 달리 강도가나면서 균열과 모체분리가 없으며

1975 年分

포루마 물탱방수
포루마는 수성 아스팔트 에멀션, 케텐볼링과 혼합하여도 100% 방수가 된다.

방수실험공사
포루마의 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수하고, 완전한 내후성이 있다.

스치로폴 접착
스치로폴을 붙이고, 스키퍼를 사용하여 방수하며 스키퍼를 붙여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스키퍼를 붙여 방수할 수 있다.

포루마 (KR-3) 1회 도장시 1m²당 소요량

재료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세멘트 혼합시
포루마(KR-3)	1.21	ℓ	300 ⁰⁰	31 ⁰⁰	1kg 방도계상

포루마 止水用 (KR-5) 1층당 시공비 (1m²당)

재료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액체방수용생기문
포루마 止水用	1.012	ℓ	1,780	2 ³⁶	
인 부	0.037	인	1,030	30 ⁰⁰	

※바탕정리, 방수층 혼합용세멘트, 보호모루터는 별도 계상

포루마도장 방수공임 (1m²당 1회)

방수종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아스팔트용생기문
인 부	0.037	인	1,030	30 ⁰⁰	

※ 바탕정리, 보호모루터는 별도 계상

P.P. 양 깔기 (1m² 당 1회)

P.P. 양	수량	단위	단가	금액	중량당부 10%가산
깔기 방수공	0.037	인	1,780	65 ⁰⁰	

※ 깔기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255

부산 : 43-4558

삼원보일러

삼원기름보일러

미국 SBI 규격품

실용신안특허 제7210호
공업진흥청 형식승인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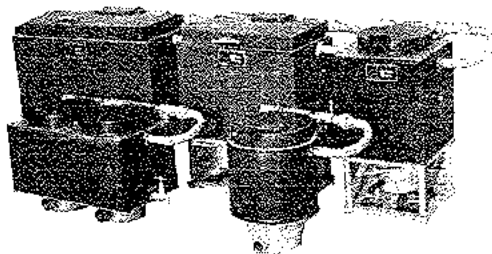
특징

※완전자동 ※횡영관특수식 3-PASS
※연료비 20% 절감 ※급탕 겸용
※보일러청소간편 ※수명 15년 보장

삼원보일러

항목	단위	S-1	S-2	S-3	S-4	S-5	S-6	S-7
발열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연료소비량	l/Hr	2.5	3.7	7	9	12.5	18.7	25
수입시험압력	Kg/cm ²	4	4	6	6	6	6	6
전열면적	m ²	2.15	2.68	3.71	5.62	7.4	11.57	16.26
연통직경	mmφ	200	200	250	250	250	300	300
배관구경	mm A	50	50	65	65	80	80	80
바나	HP	1/4	1/4	1/4	1/4	1/4	1/4	1/2
외형치수	W	cm	52	52	57	61	80	90
	H	cm	91.5	91.5	105	122	140	152
	L	cm	55	70	82	92.5	123	150
난방면적	평	30~40	40~60	60~100	100~140	140~200	200~300	300~400
삼원보일러본체가격	공당도(원)	130,000	160,000	200,000	250,000	330,000	440,000	550,000

삼원보일러 연탄용



Smile Boiler

특징 스마일보일러

※내부표면특수처리제작 ※수명 일반품의 3배
※상부 복사열 100% 흡수 ※상하부 2중가열 특수식
※탄재가 밑으로 처리됨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연탄보일러

실용신안 특허출원
1845 · 1846

용도 : 주택, 아파트
병원, 여관

명세종류		SB-1	SB-2	SB-3	SB-4	SB-5
항목		2탄용 (1열2탄)	3탄용 (1열3탄)	쌍2탄용 (2열2탄)	쌍3탄용 (2열3탄)	3열3탄용 (3열3탄)
수입시험압력	Kg/cm ²	3	3	3	3	3
사용연한	크기	22	22	22	22	22
연통	mmφ	80	80	80	90	90
배관구경	mm A	25	25	25	25	32
설치방법		부뚜막식	보일러식	부뚜막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보일러식
난방면적	평	3~5	5~6	6~10	10~14	14~20
가 격	원	35,000	50,000	60,000	95,000	130,000



주식
회사

삼원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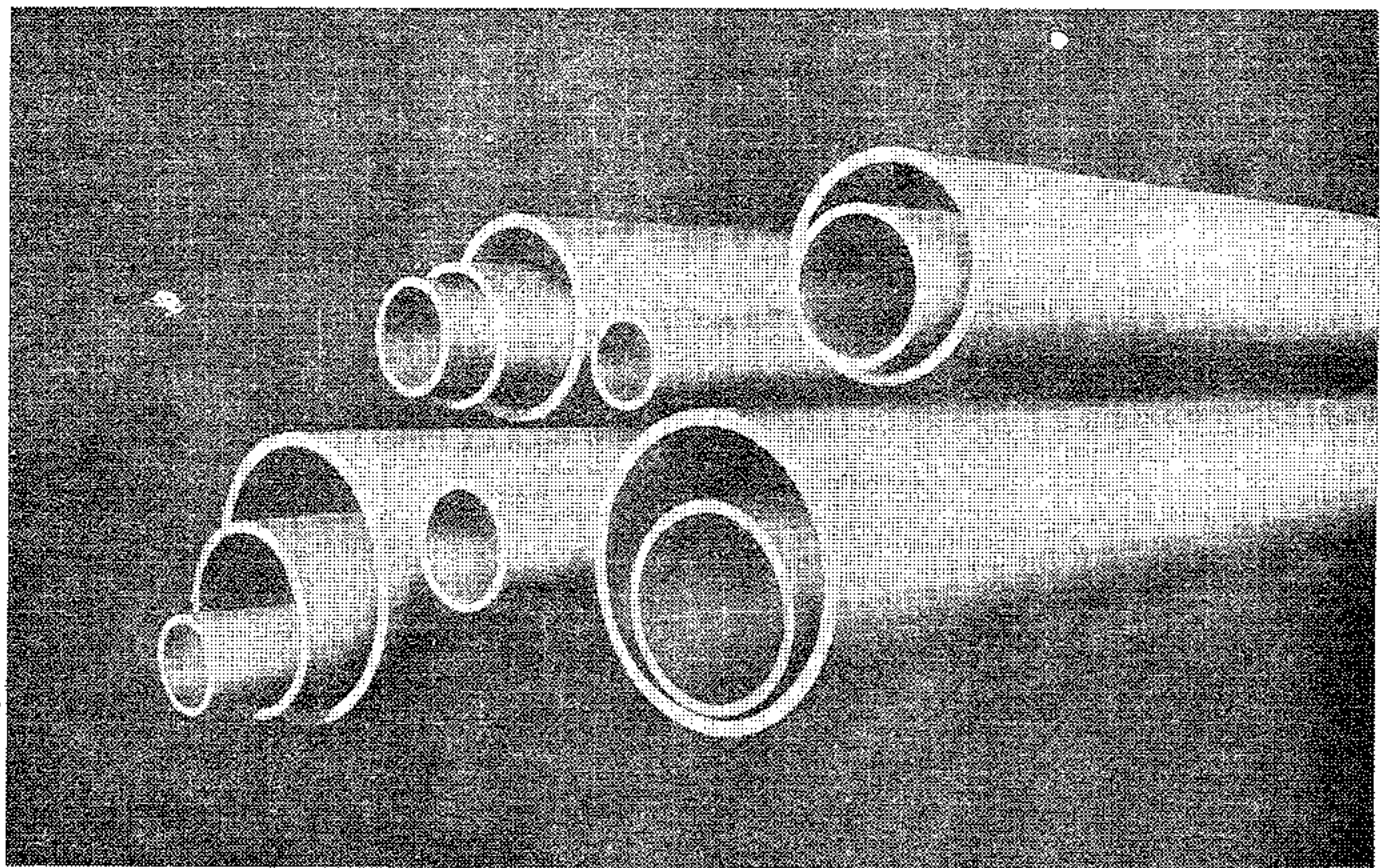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등촌동 148

TEL. 63-8872, 전시장 42-8550



시공에서 아프터서비스까지!

●반영구적수명●용이한가공배관●저렴한 가격



용도

- ☐ 간이상수도관 ☐ 상수도관 ☐ 전선배관
- ☐ 하수도관 ☐ 오배수관 ☐ 관개수로관
- ☐ 캐스도관 ☐ H.I 전선관 ☐ 공업용수관
- ☐ 농업용수관 ☐ 유공관 (Strainer Pipe)
- ☐ 온천배수관 ☐ 염전용 ☐ 화학공장용배관
- ☐ 각종이음관 및부속류 ☐ 기타 특수배관용

진양P.V.C파이프

경질 판매과 (73) 0121~9 ●●●



세계로 약진하는 기업
진양화학



月刊「建築士」 (通卷90号)

1976 8

目 次

北傀蠻行糾彈.....	(2)
〈論 文〉	
■ 最近 都市計劃의 課題와 方向.....朴 炳 柱.....	(3)
■ 防災的 見地에서 본 建築基地의 立地條件.....金 亨 杰.....	(7)
■ 未來定住環境-建築技術의 可能性.....趙 英 武.....	(13)
■ 韓國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 要因分析과 方向에 關한 研究 其③.....劉 香 山.....	(20)
〈會員作品〉	
가. 주택 유 규 성.....	(30)
나. 주택 김 영 기.....	(32)
다. 주택 강 은 홍.....	(34)
라. 주택 안 기 태.....	(36)
마. 주택 이 기 범.....	(39)
바. 터미널 홍 철 수.....	(41)
會員코너.....張 起 仁.....	(43)
建築法施行規則改正.....〈建設部〉.....	(46)
建築法質疑応答 〈第4回〉.....韓 奎 峯.....	(47)
建築法規問題解説.....韓 奎 峯.....	(51)
建築許可統計.....	(56)
〈海外作品〉	
(A + A 誌).....	(59)
(A + U 誌) 루이스 · 칸作品 ③.....	(74)
會員動靜.....	(81)
月間協會動靜.....	(86)
協會記事画報.....	(87)

編纂委員会

委員長	金 斗 燮
委 員	金 仁 錫
〃	金 眞 一
〃	辛 鉉 植
〃	俞 景 哲
〃	尹 道 根
〃	李 璟 會
〃	李 文 輔
〃	韓 錦 燮

表紙説明・復元 佛國寺觀音殿 平面圖

發行人兼 編輯人・李圭福 / 登録番号・第라-1251号

登録日字・1967年 3 月 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6年 8 月 30日 / 通卷 第90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北傀의 極惡無道한 殺人蠻行 에

1,600餘 會員들은 치를 떨며 이를 糾彈한다.

◇ 1976年 8月 18日 板門店共同警備区域內에서는 UN軍將兵을 도끼로 쳐 죽이고 개펄에 버리는 極惡無道한 殺人蠻行이 北傀兵에 의해 저질러 졌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金日成들은 끓어오르는 情懷를 참지 못하며 北傀의 殺人魔的 挑發行爲를 糾彈하고 國民 總動員로 그들을 膺懲해야 할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 北傀의 이번 蠻行은 北傀內部事情에 干渉하고도 어려운 野蠻的인 挑發行爲와 戰爭觸発로 이를 解決해 보려는 陰險한 毒計을 우리는 分明히 알고 있으며 이제는 더이상 坐視할 수 없는 事態임을 우리는 直感한다.

◇ 北傀는 天人共怒할 蠻行을 저질러 놓고도 賊反荷杖格으로 全軍에 戰鬪態勢를 命令하는 한편 虛爲宣撫으로 世界輿論을 眩惑시키고 北韓住民들을 가만해보려고 血眼이 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殺人魔黨의 이러한 陰計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確信한다.

◇ 이제 우리 1,600餘 會員들은 韓美兩國 政府에 갈애는 참 銃에는 銃으로 金日成魔黨을 掃平하 膺懲하고 이번 蠻行에 대한 徹底한 報復을 促求하면서 建設立國의 役軍으로 心血을 傾注하고 있는 우리 1,600餘 建築士들은 一旦 有事時에는 第一 먼저 滅共救國隊列의 先頭에 설 것을 滿天下에 闡明하는 바이다.

1976年 8月 20日

大韓建築士協會 會員一同

最近 都市計劃의 課題와 方向

朴 炳 柱 (弘益大教授・都市計劃)

머 리 말

지금 세계는 급격한 대도시화에 당황하고 있다. 세계의 인구는 今世紀末에는 現在의 2배가 될 것으로 予想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는 現存하는 都市에 平均적으로 增加하지는 않을 것이며, 比較的小數의 大都市에 集中하게 되는 傾向이라면 問題는 더욱 深刻해진다.

세계의 主要都市를 從來의 方式으로 放置해 두면 巨大化해 질 것이 틀림 없기 때문이고 大都市의 人口抑制策이 이러한 뜻에서 重大한 課題로 登場하고 있다.

都市에 大幅의 人口增加가 일어나면 既存主要 交通網을 再編成 하는等, 既存都市構造의 秩序에 變革을 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新都市를 쉽게 開發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를 例로서 들어보자, 今世紀 末까지 여기 25年 間에 大都市에 새로이 增加할 傾向의 人口를 約 600萬人으로 보고, 20萬人 規模의 新都市를 建設한다면 30의 新都市가 必要하게 된다. 이런 新都市를 建設하는 國家的財源은 可能한가,

低所得階層이 包含된 社會的 所得의 均衡이 잡힌 都市는 어떻게 計劃될 것인가, 이들 新都市에 自立經濟가 可能하도록 工業을 쉽게 誘致할 수 있을 것인가, 未來에 対処해야 할 方向은 무엇인가, 이와같이 오늘날의 都市는 매우 複雜한 難問題를 많이 안고 있고 이에 對應할 都市政策, 都市計劃이 追求되고 있다.

本稿는 以下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都市는 어떠한 都市問題를 안고 있으며 그들 都市의 生活構造의 掌握과 그에 對應한 都市計劃은 어떤 方向을 指向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을 考察하고자 한다.

1. 急速한 技術革新과 새로운 都市問題

最近의 急速한 都市化의 速度는 科學技術의 놀라운 發展의 tempo와 對比될 수 있다.

먼저 交通手段과 速度의 發展을 예로들면, 古代에서 18世紀까지 人力 또는 蓄力의 速度는 19세기에 와서 蒸氣機關車 20세기에 와서 蒸氣機關車, 自動車, 그리고 푸로벨라 飛行機가 利用 되었다. 1世紀도 못되어 그 速度는 時速 數10km에서 100km를 넘었다. 그리고 第二次大戰에서 今일에 이르는 불과 4분의 1世紀 동안에 제트機는 時速 1,000km余라는 音速을 넘어, 人工衛星과 宇宙 로켓은 音速의 10倍 以上の 速度를 내는 飛躍的인 發展을 보였다.

그밖에 原子力, 電子工業, 石油化學을 背景으로 하는 놀라운 技術革新에 따른 生産의 向上에 관하여 여기서 일일이 例를 들 必要가 없겠다.

이와같이 科學技術이 發展하여, 物資를 大量으로 生産하면, 그만큼 人間生活은 豊富해 질 것이고, 幸福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一般的인 思考方式이었다.

技術革新의 精華를 集中的으로 吸收하여, 또 情報의 中心이 되어, 그 發展을 促進시킨 것이 現代都市라면, 現代都市에 사는 住民은 보다 幸福한 生活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科學技術을 만들고 現代産業의 中心을 이루는 一例로서 自動車는 분명히 人間生活에 있어 便利한 道具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過去的 都市는 鐵道라는 線的으로 限定된 것에서 오늘날의 都市는 道路를 通한 面的인 것으로 周辺까지 擴大되었다. 그런데 이 自動車가 지나치게 生産되고 利用된 나머지

지 大都市의 道路는 마침내 自動車의 洪水를 이루었고, 朝夕의 رفت時에는 自動車自身이 自動車의 走行을 妨害하기에 이르렀고, 이들 自動車는 市民의 自由로운 步行에 큰 支障을 줄 뿐만 아니라, 달리는 凶器가 되어 傷害事故를 惹起시키고 있고, 排氣 排氣는 大氣를 汚染시키고 있으며, 騒音, 振動과 함께 都市公害의 큰 要因이 되고 있다. 불과 20年 남짓 사이에 보급된 航空機는, 멀리 떨어진 都市와 都市를 短時間으로 連結하는 交通方便으로 世界의 사람들이 便利하게 利用하고 있지만, 着地가 되는 각국의 都市의 空港은 騒音과 危險問題로 苦痛의 標의 되어 있다.

石油化学에 의한 魔術의 産物이라는 「플라스틱」 廢棄物은 오늘날 清掃處理에 있어 惡魔처럼 무서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이와 같은 科學技術에 의한 生産力의 놀라운 發展은 結果적으로 都市에 있어서의 市民生活에 困難을 招來한것 같은 無意識的인 思考는 是正되어야 한다. 여기서 再認識 되어야 할 것은, 技術의 發展, 生産의 發展을 社會的, 政策的으로 올바르게 誘導하지 못한 결과 오늘날 같은 수많은 都市問題를 提起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2. 都市計劃의 役割

서울의 自動車保有台數는 1962年 11월에 7,479台 1975年 3月 81,774台로 불과 13年間 無感 11倍가 되었다. 그代價로 그동안 路面電車を 撤去하였고 街路를 拡張하면서 自動車의 走行에 便宜를 도모해왔지만 급기야는 رفت時에는 自動車의 過多로 말미암아 交通의 마비를 招來하였다.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街路整備를 해야 하고 이러한 惡循環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할 処地에 있다.

自動車を 가진 사람의 立場에서는 信號는 없는 것이 좋겠고 사람은 적고 車道는 될 수 있는한 넓은 것을 願할 것이며, 自動車が 없는 사람의 立場은 自動車 事故의 危險, 排氣排氣, 騒音, 降雨時의 速力을 내는 自動車의 汚穢물에서 오는 신경질 등등, 都市에 있어서 自動車を 보는 눈은 兩者 사이에 이처럼 矛盾된 생각을 갖는다.

한 사람의 人間을 두고 생각하면 便利하고 多幸스러운 일이, 都市라는 單位로 크게 拡大시켜보면 생각지 않았던 副次害毒을 發生시킨다는데 問題가 있다.

高層빌딩의 建設, 아파트의 建設, 商街의 建設 등등 수많은 建築物을 個적으로나 局部的으로 볼 때와 都市라는 單位로서 볼 때와는 그 評價基準이 判異해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都市建設計劃의 綜合性和 制禦(kontrol)하는 手段의 必要性이 얼마나 重大한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都市와 建築의 關聯에 있어 「建築은 人間生活의 容器이고, 이들 建築의 巨大한 集合體로서 都市가 形成되고 있어 곧 都市는 建築이다」고 單純히 直結시켜 解釋하는 경우를 본다. 이 概念은 各個 建物이 數 많이 모이면 都市가 成立된다는 것으로 받아드릴 危險이 있다.

都市建設에는 公共部分과 私的部分이 있다. 私的部分은 各自의 最大效率을 올리도록 行動하기 마련이다. 「現代都市는 한마디로 矛盾과 相克속에서 存在한다」 그것은 企業과 市民, 市民과 市民, 한個人 그 自体도, 價值의 對立 矛盾을 包含하고 있다. 自己는 自家用車를 타고 싶고 남이 타는 乘用車는 보기 싫고, 自己 自己는 風致가 좋은 곳에 마음대로 짓고 싶고 남의 自己의 建築에 對해서는 非難을 한다. 土地는 高價하게 팔고 싶고, 他人의 山林은 綠地 그대로 남기기를 願한다.

都市計劃은 그 都市에 生活하는 모든 市民이 보다 快適하고 安全하고 能率있는 活動이 保障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都市속의 土地는 無制限 無限定한 利用이란 생각될 수 없어야 한다. 自己가 짓고자 하는 建物이 이웃에게 弊害를 끼치지 않는 限界는 어느 程度인가를 각 市民에게 알려줄 必要가 있는 것으로 都市計劃法, 建築法등 都市建設의 關係法은 바로 이런 規制의 確立을 爲한 것이다.

都市計劃의 役割은 市民生活環境의 保全과 向上에 있다. 여태까지의 都市計劃 課題는 주로 街路·公園·上下水道와 같은 公共施設에 있었고 남겨지는 個人의 힘으로 建築法에 따라 지어나가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建築法은 例를 들면 地의 最少限度 建築率 및 容積率의 最大限度 등을 規制하고 있으니, 剛地는 大部分이 零細해지고, 建築密度는 높아지는 低級의 都市化가 進行되기 마련이다. 未來를 向한 住宅環境의 質의 向上을 期하면서 現在에 사는 知恵를 살리기 위해서는 都市計劃法 乃至 建築法の 施行規則이 都市에 따라 그리고 그 内部의 地區에 따라 더욱 仔細하고 明確한 것이 確立되어야 하고, 都市計劃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都市設計(Urban design)가 이루어져야 한다.

3. 當面하는 歐美의 都市政策

大都市問題에 대한 人口集中抑制策·機能分散策은 第2次 大戰中の 런던에서 始作된다. 国土防衛上, 中樞機能의 「런던」에만 集中된 것을 막기 위해 産業의 地方分散을 꾀했고 「런던」을 「그린벨트」로 둘러싸므로써 周邊에 新都市를 建設하여, 거기에 工場과 人口를 分散시키는 政策이 취해져 相當한 進行을 보였다. 戰後 英國은 經濟發展의 速度가 그렇게 높지 않은 탓도 있어 當初計劃된 成果를 誇示할 程度는 아니지만, 그러나 土地에의 規制 新都市 建設의 規範등 一貫된 計劃手法는 다른 많은 나라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뉴욕」은 經濟의 中心地이고, 政治의 中心은 「워싱턴」이며, 有名한 大學은 美國 各地에 分散되어 있다. 「런던」은 經濟와 政治의 中心都市이지만, 有名한 大學은 런던에서 떨어져 있다. 「파리」는 政治·經濟 그리고 有名한 大學이 하나의 都市에 集中되어 있다. (東京·서울

도 이와 같다) 半徑 60km의 파리 首都圈에 프랑스 全國 人口의 2割, 自動車·航空機의 6割, 機械·製菓産業의 5割이 集中하고, 自由業과 高級幹部職의 4割, 技師의 5割, 研究者의 7割을 안고 있다. 프랑스 政府는 1960年以來 國土開發政策에 따라 「파리」 内部의 企業의 分散, 事務所·事業所의 新增設規制, 都心部에 있어서의 이들에 對한 賦課金制度를 취하고 있다. 「파리」의 行政은 中央直轄의 色彩가 아직도 強하기는 하지만, 審議機關·諮問機關을 잘 活用하여 「파리」가 世界에 誇示하는 文化資産을 어떻게 하면 그 都心部에서 保全하면서 現代都市에 알맞는 새로운 諸機能을 갖게 할수 있을 것인가, 낡은 機能과 새로운 機能의 調和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파리」가 자랑하는 文化遺産과 그 周辺에 새로이 세워지고 있는 建物, 그리고 高速을 要하는 道路, 鐵道의 開發을 위한 조심성있는 計劃執行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

美國의 大都市에서는 戰後 都市中心部에 있어서의 住宅의 老朽過密化, 그 곳에 貧困者의 流入·集中에 따른 「스램」의 形成, 社會問題의 集中的 發生으로 이들 地域의 不動産價格의 低落이란 現象이 일어났다. 이에 對處하여 連邦政府의 補助金으로 民間不動産資本을 動員하여 大規模의 都市再開發을 꾀쳐 왔다. 이 政策은 큰 成果를 올렸지만, 最近에는 또 다른 問題를 誘發시켰다. 즉 모처럼 改造하여 更新된 住宅의 家賃이 高價하여 從前에 居住한 低所得者가 거기에 入住할 수 없어, 다른 「스램」으로 移動하여 거기에서 새로이 擴大시키고 있는 問題, 設令 都市再開發後의 整然한 아파트에 入住한다 하더라도 從來의 커뮤니티는 分解되어 마스한 人間關係가 없어져 孤獨感을 느끼는 點 등의 問題가 提起되고 있다.

世界의 主要都市는 共通의 効果的인 交通對策을 위해 많은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都市交通對策이라 하면 곧 버스·自動車·汽車 등 交通手段만을 생각하는데 交通計劃의 根本問題는 交通需要의 制御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로마」는 歷史가 오랜 都市이면서, 斬新한 交通政策을 다루고 있다. 自家用 乘用車의 利用者를 吸收하여 그만큼 自動車 走行量을 줄여보려고, 버스와 路面電車의 無料化 實驗을 試圖했지만 成果가 좋지 못하였다 한다. 1973년부터 都心部の 3km 四方을 緊急車·버스·택시·그 地區住民用車·醫師·身體障害車·清掃車들을 除外한 모든 車의 進入을 禁止시켰고, 그대신 100台的 버스를 增車하였다 한다.

런던 郊外의 田園都市内部의 道路에는 自動車의 進入을 禁止하거나, 時速 5마일 以下로 하여 市民의 安全과 騒音對策을 세우고 있다. 「런던」에서는 都心部에 駐

車場을 設할 수 있는대로 만들지 않도록 新設의 認定을 制限하고 있다. 「뉴욕」市에서도 路上駐車를 嚴하게 制限하고 있다.

自動車를 한사람만 타고 走行한다는 것은 1人이 넓은 面積의 公共用地를 占拠하는 것이 되므로, 「샌프란시스코」 郊外의 有料道路에는 料金を 乘車員 數와 逆比例시키는 案을 써서 可能한限 같은 方向의 通勤者를 한車에 많이 태우도록 獎勵하려 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많은 貨物自動車가 積載容量의 10~20% 程度를 싣고 走行하고 있으므로, 物資流動基地의 整理統合과 配送시스템의 再編成을 하기로 했다. 또 高層建築으로 混雜을 이루는 街路 등에 步行者 專用道路를 設置하고 있다.

歐美大都市 共通의 苦悶은 버스·地下鉄財政의 赤字인데 一部 都市에서는 自動車 專用道路의 料金徵收金中에서 이의 赤字를 메꾸는 方案을 採択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最近 어느 地區에서도 버스를 쉽게 利用할 수 있다. 停車場에서 기다리는 利用客이 다음에 오는 버스가 몇分 뒤 에 오는가를 알리는 時間長과 그버스가 몇分 뒤 어느 地點을 간다는 停車場 地點別 時間이 分明하게 記錄되어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自家用 乘用車가 웬만한 低所得層도 쉽게 購得할 수 있는 程度로 普及되고 있다. 때문에 最近까지 鐵道·버스등 大衆交通手段은 뒤져가고 自動車道路는 拡充·路에 있었다. 이런 過程에서 事務所와 工場의 分散이 併行되어, 都市内部에 居住하는 사람의 通勤距離가 멀어지는 例가 많아졌다.

職場과 住居의 場이 잘 連結되지 않는限 交通의 混雜과 時間의 浪費, 心身의 疲勞, 經濟的 損失은 免할 길이 없다. 이런 뜻에서 交通問題는 住宅問題와 直結되고 都市計劃에 있어서의 土地利用計劃은 交通計劃과 結府시켜 서로 互補互補가면서 相互計劃이 樹立되어야 함을 再認識하게 한다.

맺는 말

都市計劃은 都市의 施設과 이를 콘트롤하기 위한 것으로, 市民生活의 安全과 그 活動 및 快適性이 維持되어 來日에의 希望을 위해 創造的인 삶을 營爲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重要課題로 되어 있다. 都市計劃은 단순한 비전의 提示가 아니고 이런 崇高한 理念을 實踐하기 위한 課題가 提示되어야 한다.

都市計劃은 都市建設을 위한 物理的施設計劃 外에도 動物·植物까지를 包含한 環境系로서의 都市形成이 이룩되도록 해야 하고 窮極的으로 市民生活環境의 保全과 向上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

都市는 機能以上으로 人間の이어야 한다는 平凡한 常識을 잊지 않는 限 人間에 있어서의 機能을 超越한 自然意識과 精神的 豊요함에의 憧憬이라든가, 아름다움의 追究도 都市計剛에서 重要視 아니할 수 없다.

世界の 主要都市가 当面한 都市計剛・都市政策의 一端을 위에서 살펴 보면서 다시금 強하게 느껴지는 것은 歐美의 都市와 우리나라의 都市政策 사이에는 經濟性・市民意識의 傳統 등에서 差異가 크게 달라 比較할 수 없다 하더라도, 都市의 未來에 對曄하면서 現在의 市民生活을 把握하는 基本的인 都市觀에는 東西와 先後가 있을 수 없다는 点이다.

우리나라도 60年代의 工業化 過程과 高度의 經濟成長으로 都市化가 急激히 進行된 現象속에서 各都市의 整備問題가 물로즈업 되고 있는 만큼, 都市計剛 및 都市

政策에 等閑해 질수는 없었고, 当面 都市問題 解決을 위한 그 나름대로의 努力을 傾注해 온 것은 事實이며, 우리의 処地에 알맞는 都市内部의 施設物의 建設은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進行되고 있고, 또 이런 建設은 날이 갈수록 그 規模가 拡大되어 갈것이지만, 여기서 다지고 넘어가야 할 일은 現在까지 施行한 都市施設이 차질을 일으키지 않았든가, 非計剛的이고, 客觀妥當性이 欠如된 計剛과 執行이 招來한 錯誤는 얼마나 많았든가, 後顧의 念慮가 없는 自信을 가지기 위해서는 計剛自体가 充分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는 일이다.

高度의 知惠를 모은 科學 文化 藝術의 象徵으로서의 都市建設을 위해, 制限된 現在의 財政으로서도 當面對策에 크게 이바지 할수 있는 創意가 發輝되어야 한다는 데 都市計剛關係者의 使命은 더욱 큰 것이다.

公 告

會員任들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録코자 널리 그 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특히 地方 特色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너에도 마련되 있음을 알립니다. 會員諸位

防災的 見地에서 본 建築地의 立地條件

金 亨 杰 (서울工大教授)

§ 1. 머리말

一般的으로 防災라고 하면, 火災의 경우를 除外하면 天然災害를 對象으로 하는 것으로 解釋할 것이나 建築地의 災害中에는, 埋立, 盛土地盤의 沈下, 或은 造成한 地의 築台崩壞等과 같이 오히려 人爲的인 原因에 依한 災害가 많다.

自然狀態로 構成되고 形成되어 今의 狀態에 이르면 地盤이나 地形에 對하여 생각해 보면, 때로는 地殼의 隆起와 같이 逆方向의 變動도 있을 것이나, 大勢로서는, 堆積年代가 오래지 않고 柔軟한 地盤은 長久한 年代를 거쳐서 마침내 堅固한 安定된 地盤으로 移行된다. 即 形成年代가 오래지 않은 가파른 地形은 드디어 完滿한 地形으로 鞏固없이 不安定 狀態로부터 安定된 狀態로 移行 되어온 것일 것이다.

달 表面에 새겨진 鮮明한 발자취를 적은 寫眞을 볼수있게 되어 우선 놀랄 것은 달 表面을 덮은 흙의 부드러움과 작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生々한 地形에 對해서였다. 地球와 달의 各各의 表面의 흙과 地形狀態 사이에, 分명한 區別을 붙인 空氣와 물 作用에 對하여 새삼스럽게 놀랐던 것이다.

地球表面에서는, 雨雪 또는 河川流水, 海岸의 風浪 或은 바람等, 물과 空氣의 作用, 또 地域에 따라서는 地震 作用도 加하여, 鞏固없이 剝削作用과 平滑化 作用이 營爲 되고 있다.

岩石의 硬固한 地形이 岩石의 風化作用과 비, 또는 融雪의 流水에 依한 剝削作用에 依하여, 地質年代의 極히 長久한 規模로 漸漸 平坦한 地形으로 移行하는 것은 安定化의 過程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豪雨라든가 大地震 때에 發生하는 山 사태 또는 急激한 地盤沈下 等, 여러가지 樣

相의 現象은 이 緩漫한 移行作用의 過程이 一時的으로 또는 段階的으로 促進된 結果 생긴 것으로 解釋이 된다.

人工的인 地盤이나 地形의 造成은, 自然의 理致를 거슬러서 人爲的으로 變行을 強要하고 있을 것이므로, 慎重한 技術的 檢討에 바탕을 둔 對策, 特히 물에 對한 處置가 배 풀어져 있지 않는限 必지않아 災害를 招來하게 될것은 當然하다.

§ 2. 防災와 立地條件

宅地의 立地條件에 關係되는 防災問題로서 災害 或은 障害의 原因과 그 現象中 우리 國土와 關聯된 것들을 列擧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큰비 및 長期間에 걸친 비
- ② 큰눈
- ③ 센 바람
- ④ 산사태 및 빗탈崩壞
- ⑤ 河川氾濫
- ⑥ 浸水
- ⑦ 地盤沈下
- ⑧ 凍害

上記 項目中에서 산사태, 빗탈崩壞는 地表面의 傾斜度는 어떻든간에, 地表가 重力作用에 依하여 一般으로는 큰비나 長期間 오는비가 땅속에 浸透하게 되므로써 그 水圧 作用과 흙속의 間隔水圧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흙의 剪斷抵抗을 低下시키는 作用, 即 물에 依한 이 두 作用 때문에 發生하는 것이다.

또한 흙의 剪斷力은 庫倫式에 依하여 다음式으로 주어진다.

$$S = P \tan \phi + C = (P - v) \tan \phi + C$$

S : 흙의 剪斷強度

ϕ : 흙의 內部摩擦角

C : 흙의 粘着力

P : 土粒子 사이에 作用하는 有効壓力

P : 剪斷面に 對한 全垂直應力

v : 間隔水壓

強風に 依한 家屋의 災害는 台風이 지나가는 地域에 있어서 立地條件으로 問題가 되지만, 台風 以外에 突風の 被害를 받기 쉬운 것은 季節風이 불어 오는 方向에 面한 高地帶 附近 일 것이다. 이 밖에 急한 山골짜기도 바람을 強하게 받는 다고 한다. 이와 같은 地形인 場所에서는 家屋의 構造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담장 或은 樹木에 依한 遮蔽等의 對策이 바람직 하다. 이밖에 바람의 被害로서는, 地域의이고 地形의이긴 하지만 모래가 쌓인 地方에서는 砂丘의 問題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該當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凍害는 本來 寒冷地에서 地形等에 따라 日照가 나쁜 곳 또 排水가 잘 되지 않고, 흙의 毛管作用이 센 粘土質의 地盤에서 생기기 쉽고, 地盤이 凍結되므로서 基礎가 떠 오르게 될 程度의 被害가 있다. 이것에 對하여는 基礎底面을 凍結深度보다 깊이 놓는다는가 또는 基礎直下의 흙을 모래로 置換하는 등의 処置를 取하면 된다. 또 한가지 人爲的인 原因으로서, 鑛山에서 내다 버리는 廢物 以外的 廢棄物이라든가, 工場에서 處置한 石炭燼 또 우리 家庭에서 많이 쓰이는 石炭재의 堆積이 豪雨로 무너지서 그 泥流로 말미암은 被害도 있을 것인데, 最近 九孔炭使用이 많아져 가는데 比例하여 이 石炭재의 堆積의 경우 特別히 注意를 要할 것이다.

上記의 例는 全部 宅地의 立地條件으로서 考慮해야 될 問題인데, 其中에서 人爲的인 原因에 依한 것을 除外하고는 그것을 抑制한다는가 或은 防災對策을 세운다는가 하는 것은 어렵고, 적어도 個個의 宅地의 問題는 아니고 地域의으로 對策을 樹立할 것이 바람직 하다. 다음에 重要한 것 몇 가지에 對하여 記述코자 한다.

§ 3. 地盤沈下

軟弱地盤에 建物이 놓일 때에 土粒子 사이에 包含되어 있는 물이 壓縮應力의 增加에 따라, 間隔體積을 縮小시키므로서 일어나는 柔軟한 粘土質地盤의 所謂 圧密沈下가 問題가 되겠고, 또한 地方이 都市化가 進行되고 工場建設도 增加되어 將次 地下水의 揚水가 盛行되게 되면, 人工的인 強制圧密에 依한 地盤沈下가 促進될 것이 予想되므로 注意를 要하게 된다. 이와 같은 現象은 이미 隣國 日本의 大阪, 橫濱 等 大都市에서 共通的으로 認定되는 것

이며, 過大沈下라는 点에서도 基礎地盤으로서 問題가 되고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 많이 試圖되고 있는 臨海工業團地造成에 있어서 低地帶의 地盤沈下가 問題될 뿐만 아니라, 農地 特別히 논을 埋立하여 垆地造成을 한다는가 또는 丘陵地 開發에 있어서 垆地造成을 할 때에도 地盤沈下 障害가 일어날 것이므로 적절한 對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低地軟弱地盤地帶에 있어서는 事前에 充分한 調査를 하여 對策을 세우도록 注意를 기울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埋立地, 特別히 丘陵의 골짜기의 埋立에서는 큰 埋立荷重에 依하여 沈下가 急速히 促進되며, 더우기 原地盤의 地表가 草木纖維等 多量의 有機物을 包含하는 間隔體積이 큰 피드地盤으로 덮여 있을 때가 많을 것이므로 그만큼 沈下도 急速히 進行될 것이다. 또한 旧地表面의 傾斜 때문에 埋土層의 무게라든가 軟弱層의 무게도 다른 것이므로 沈下量이 不均等해서 建物에 不同沈下를 이르는 등 도리어 被害가 크게 나타나기가 쉽다.

이와 같은 새로운 埋土地盤을 垆地로 選定 하고자 할 때에는 詳細한 地盤調査를 行하므로서 縮密히 狀態를 把握하여, 沈下의 狀況觀察을 行하는 등의 措置가 바람직 하다.

§ 4. 산사태, 비탈崩塌, 築台崩壞

天然災害中에서 큰 禍를 차지 하는것 中의 하나로 豪雨 때의 산사태 또는 築台崩壞로 因한 것을 들수 있다. 當局의 適切한 措置에 依하여 最近에 많이 補強이 되어 그 危險度가 減少는 되어가고 있는줄 아나 아직도 危險한 狀態로 存在하는 家屋이 많을 것으로 推定 되므로, 加一層의 監視 밑에 事前의 崩壞防止 對策이 要請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危險宅地를 現狀態대로 修理 補強, 또는 安全한 狀態로 整備하기 爲해서는 隣接地와의 境界問題 或은 各戶마다 補強한다는것 보다는 더 廣範圍하게 對策을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問題가 있고 또 地域에 따라서는 古跡 保存, 景勝地 保存을 爲한 法的 措置와 宅地 災害 防止의 措置가 相互 矛盾 對立 된다는 問題가 惹起될 때도 있다.

危險築台나 擁壁의 改善에 關하여 當局으로부터 勸告 또는 命令이 내려워져도, 經濟的 理由로 實施 不能이되는 一般的인 問題가 있고 또 住民自身들의 危險性에 對한 認識缺如와 같은 것도 이러한 危險物 改善을 妨害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산사태, 築台崩壞에 依한 被害는 그 工事中の 災害와 더불어 第3者에게 또는 멀리까지 미치는데도 問題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危險한 垆地造成이나 擁壁構造에 關한 建築法 其他 諸法令에 違反하는 造成工事의 着工과 危險區域 안에서의 居住를 徹底的으로 監視 取締하므로써,

危險의 增加를 防止해야 할것이다.

산사태나 築台, 擁壁의 崩壞는 降雨 또는 解氷으로 말미암은 물 때문에 助長되는 以外에 비탈 위에 있는 宅地의 排水管의 漏水가 그 原因이 되는 수도 있다. 따라서 排水等 물의 處理를 完全히 해두는 것이 対策上 第一要點이 된다 하겠다.

人工的으로 盛土하여 만든 築台는 自然의 山을 깎아서 만든 築台 또는 自然狀態대로의 築台와 比較하여 볼때, 그 盛土築台가 構造的으로 튼튼한 擁壁으로 保護되고, 다음 그림 1에 나타낸 것처럼 그 擁壁의 排水孔 및 뒤채움의 排水, 그리고 表面排水가 잘 되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훨씬 危險性이 더크고 災害發生의 例도 많다.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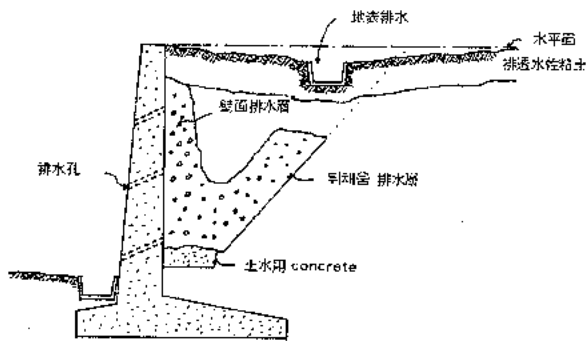


그림 1 擁壁과 뒤채움排水

나 오랜 時日 그 狀態를 保持해서 一応 安心이 된다고 생각되었던 自然築台가 흙의 風化 또는 背後 地表面에 생긴 龜裂로부터 浸透된 물의 作用으로 崩壞되었다는 例도 많으니, 何時에 그런 事態가 發生할지 方心 不許이다.

築台 위에 무거운 構造物을 建築할 때에는, 基礎荷重에 의한 地中応力이 築台安定에 미치는 影響과 施工上의 問題까지 包含시켜 其他 여러 가지 影響에 對하여 檢討할 必要가 있다.

築台崩壞와 建物被害에 關하여 發生可能性이 있는 경우를 例示하면 다음 그림 2와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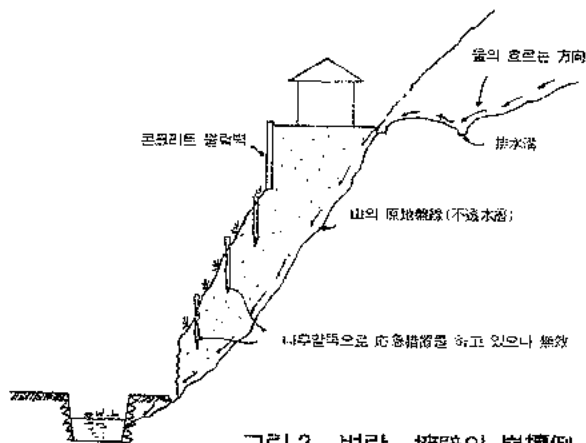


그림 2. 벼랑, 擁壁의 崩壞例

그림 2는 盛土위에 세워진 住宅인데 排水溝가 不備하기 때문에 위로 부터 내려 오는 물이 山の 原地盤線의 不透水層과 盛土 사이에 흘러 들어가게 되어 盛土部分이 무너지게 되는 例를 나타낸 것이다.

또 其原因의 主要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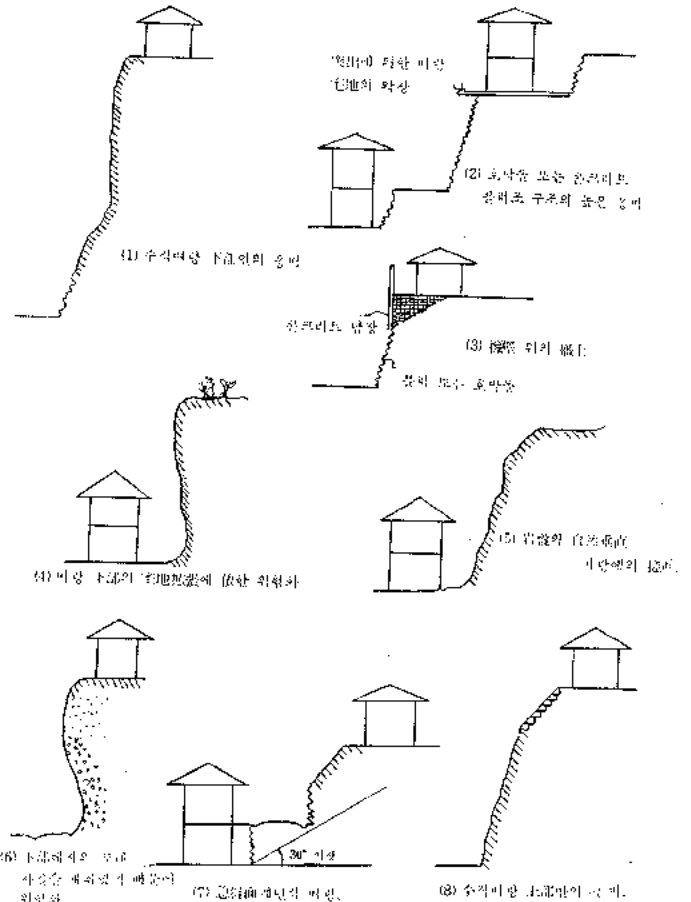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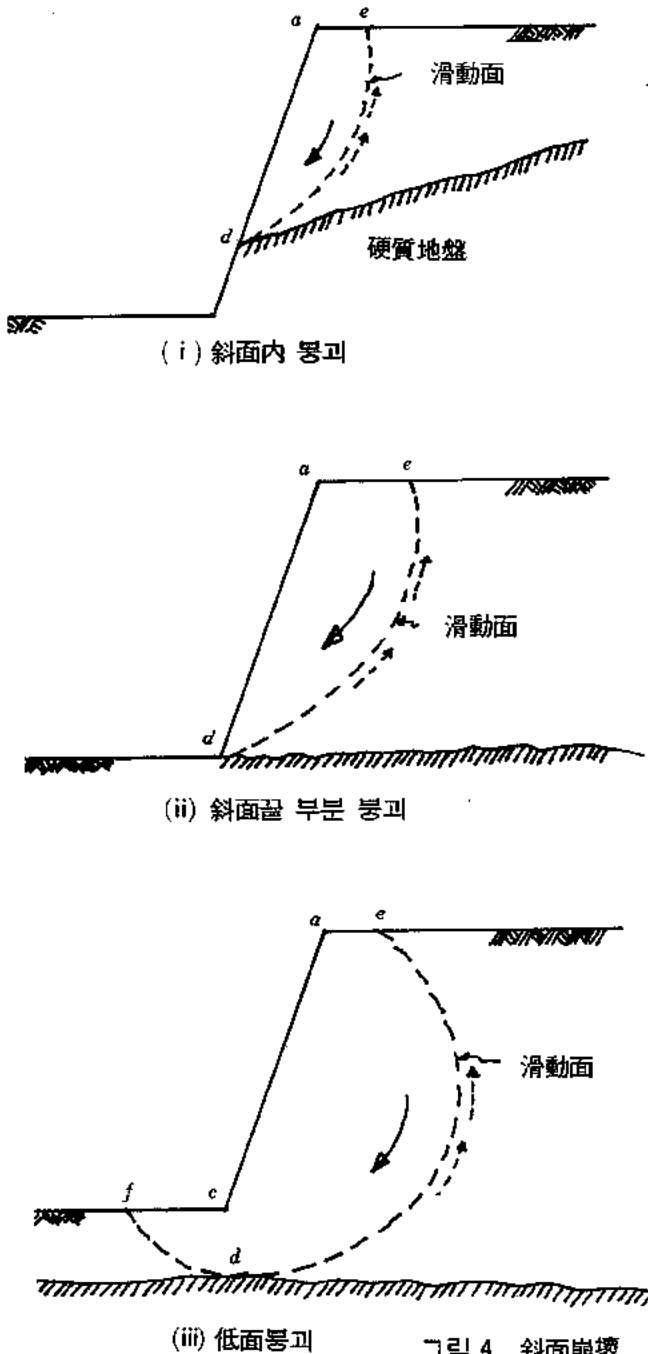
그림 3 벼랑, 옹벽의 붕괴에 模式圖

- ① 擁壁의 構造的 不備
- ② 擁壁의 排水上의 不備
- ③ 擁壁의 뒤채움 및 造成地 地表面의 排水不備
- ④ 擁壁 위의 過大 積載荷重
- ⑤ 盛土의 不備, 盛土의 다지기 不足 및 表面處理의 不備
- ⑥ 旧地表面과 盛土와의 密着에 對한 処置의 不完全 (旧地表面의 草木의 撤去 및 段지우기 不徹底)
- ⑦ 自然으로 생긴 벼랑面의 下部切取 및 樹木除去
- ⑧ 自然 벼랑에의 接近
- ⑨ 全体的으로 急斜面에 많은 段을지워 造成한 埜地
- ⑩ 其他, 石炭殼 等의 山積放置

§ 5. 破壞面과 斜面安定의 基本

地表面에 高低差가 있고 그 境界가 鉛直面에 가까운 벼랑이나 或은 急斜面으로 境界되어 있는 土地, 또는 全体가 急斜面인 土地에 建物을 세울때, 或은 擁壁을 設置할 때에는 法的인 規制에 따라야 될 것은 當然한 것이지만 實地 調査한 바에 따르면 前項에 指摘한 缺陷이라든가 危險이 到處에 나타난다. (그림 3 参照). 이것은 또 每年 같은 狀態의 被害가 反復하여 發生하고 있다는 事實로서도 證明이 된다.

本項에서는 벼랑 等의 崩壞, 또는 그 限界에 對하여, 斜面安定의 理論을 適用하여 그 要點을 記述하기로 한다.



斜面 崩壞의 基本的 樣相을 大別하면 그림 4와 같다. 그 어느 境遇에 있어서도 破壞面(滑動面)에 따라 위의 흙이 미끄러져 내린다. 그 以外에 後述하는 바와 같이 地層面 其他面을 滑動面으로 하여 그 위의 흙이 흘러져 내려오는 現象의 崩壞가 있다. (그림 5.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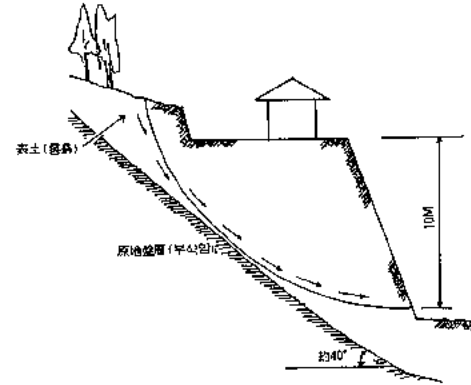


그림 5. 不透水層의 影響으로 滑動을 이 일으킨 表層

崩壞面이 發生하는 位置는 斜面의 形狀, 地層의 狀態 및 土質, 地下水 또는 地中에의 물의 浸透狀態에 따라, 미끄러져 내려려는 힘과 흙의 剪斷 抵抗力과의 關係로 決定될 것이나, 工學的으로 檢討할 때에는 可能한限 詳細한 調査를 行하여, 上記 地形과 地盤 狀態를 把握한 後, 몇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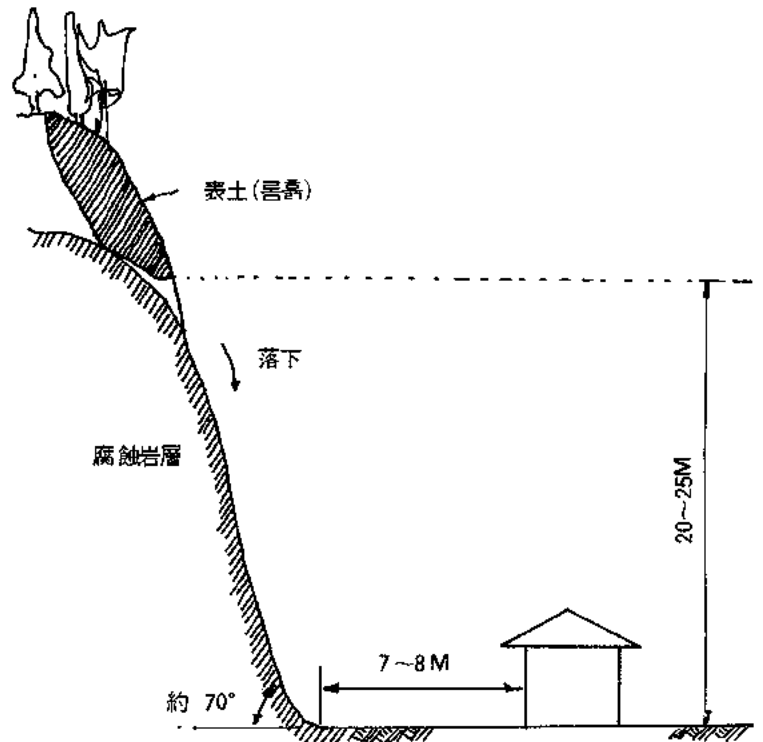


그림 6. 高所에서의 畝層 末端部의 崩落

의 滑動面을 想定하고, 다음에 要点을 說明하는 方法에 따라 數値的 檢討을 하여, 가장 安全率이 작게 되는 滑動面의 位置를 發見하여, 그때의 安全率 F 가 적어도 1.5以上을 確保하는가 아닌가를 檢討한다.

崩壞는 물의 浸透壓과 間隔水壓의 增大에 依하여 發生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地中에 浸透한 물이 흐르는 모양即 흙의 透水性을 考慮하여 例를 들면 그림 5에 表示한것처럼 上部가 比較的 透水性이 높은 砂質흙이고 下部에 粘土 또는 岩盤 같은 不透水質의 層이 있을 때에는 그 境界에 따라서 滑動面이 發生하기가 쉽다.

그림 5는 그의 한 實例를 나타낸 것이다. 即 岩과 같이 固結된 硬한 粘土의 벼랑面으로서 보기에는 安定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 위를 덮고 있는 磊層(Roam)은 風化하여 粘着力이 低下되어 있는데다가 元來 이 흙은 火山灰가 推積된 흙이어서 間隔이 많고 風化되면 透水가 比較的 容易하고 膨脹性도 있었다. 그런데 豪雨로 地中에 浸透한 물이 下部固結 粘土層의 境界面에 고이어서 磊層의 間隔水壓을 增大시켜 剪斷抵抗을 弱화 시킴과 同時に 地下水의 流勢도 加重하여 磊層이 마끄러져 내려오게 된 例이다.

宅地를 造成 하므로써 磊層을 水平面으로 整地한다든가 또는 樹木, 雜草를 除去 하였기 때문에 地中에 물을 浸透시키기 쉬운 狀態 即 危險 狀態로 誘導할 때도 있다. 여기서 注意할 것은 崩壞事故 現場으로 부터 어지간히 떨어진 먼 位置에서의 宅地造成工事が 아래 方向의 自然 斜面的 崩壞 또는 山砂汰라는 大規模의 崩壞를 招致 하였다는 例도 있다.

盛土인 境遇에는 旧斜面 特別 旧斜面 위에 자라있던 雜草等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盛土를 하였을 경우에는, 雜草의 纖維가 물의 通路가 되든가 또는 그 腐蝕物로 미끄러지기 쉽게 된다. 盛土를 하기에 앞서, 그림 7에 表示한 것처럼 段지어 파기로 工事を 實施하는 것은 旧斜面과의 境界를 滑動하기 쉬운 平面으로 하지 않게 하기 爲한 것으로서 草木을 除去하는 것도 같은 效果가 있다. (그림 7 參照) 그림 2 (b)는 盛土의 나쁜 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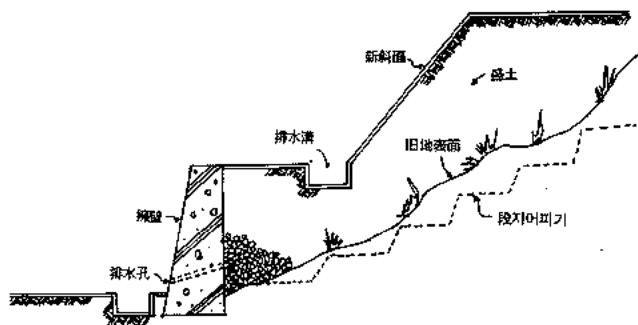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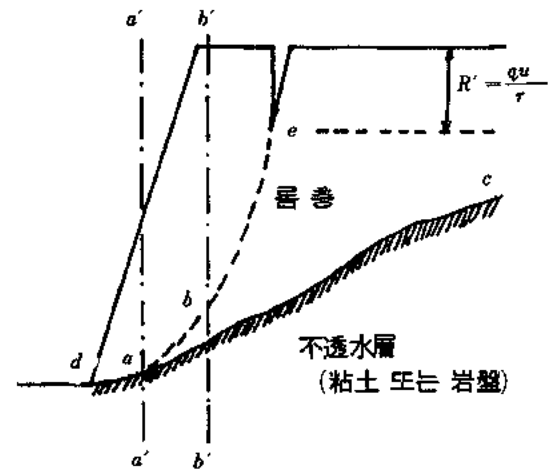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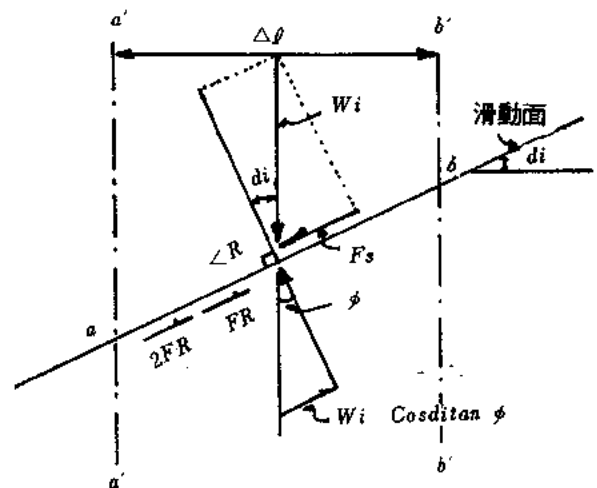


그림 7. 旧斜面的 段지어파기

벼랑의 崩壞는 그림 8에 보인 것처럼 全面的 崩壞에 앞서서 벼랑 頂部에 생긴 引張龜裂에 雨水가 浸入하여 이 龜裂面으로 부터 始作되는 破壞面에 따라서 崩壞될 경우가 많다.



(a) 全体圖



(b) 一部詳細

그림 8. 斜面安定의 基本

粘性土인 경우에는 흙의 一軸壓縮強度 g_n 에 따라서 自立할 수 있는 높이 h_c 가 있을 것이나, 그 위 折半部分에는 理論的으로도 龜裂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長期間 동안 自立한다는 것에 대해서 過信한다는 것은 避해야 할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h'_c 를 自立 높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h_c = \frac{2q_n}{r} \quad h'_c = \frac{1}{2}h_c$$

h_c : 自立할 수 있는 높이 (m)

q_n : 흙의 一軸壓縮強度 (t/m^2)

r : 흙의 濕潤狀態의 單位 體積重量 (t/m^3)

§ 6. 斜面安定 検討の要点

그림 8에 나타난 것처럼 斜面의 安定에 대하여 (a)의 破壞面 a-b 部分을 (b)에 擴大하여 表示 하였다. 斜面을 a'-a', b'-b' 와 같은 面으로 区劃하고, 各区劃마다 (b)에 表示한 面에서의 미끄러트리는 힘과 剪斷力과의 平衡을 생각 하자.

w_i : 各区間の 흙 및 地表面에 荷重이 있을 경우에는 地 表荷重도 包含한다. (t/m)

F_s : 미끄러 트리는 힘, $F_s = w_i \sin \alpha_i$ (t/m)

F_r : 흙의 剪斷力, $F_r = \bar{w}_i \cos \alpha_i \cdot \tan \phi$ (t/m)

F_c : 흙의 剪斷力, $F_c = c \cdot \Delta l$ (t/m)

α_i : 破壞面과 水平面과의 角

ϕ : 흙의 内部 摩擦角

C: 흙의 粘着力 (t/m²)

여기서

$$\text{安全率} = \frac{\bar{w}_i \cos \alpha_i \cdot \tan \phi + C \Delta l}{w_i \sin \alpha_i}$$

各区間마다 $F > 1$, 또는 破壞面이 한 平面일 경우에는, 破壞面 全長에 대하여 F가 1보다 크면 斜面은 一応 安定하다.

破壞面이 曲面으로 될 경우에는 破壞面 全長에 대하여 圓弧 以外에 모멘트의 平衡을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曲面이 圓弧가 되면 各区間마다의 α_i 에 대하여 F_s 와 F_r , F_c 를 求하여, 破壞面 全長에 대하여 圓弧를 檢討하면, 모멘트의 平衡도 同時에 檢討한 것이 되어서 計算은 容易하다.

破壞面 上部에 물이 있을 경우에는 흙의 剪斷力은 間隔 水圧의 増加와 더불어 減少된다. 近似的으로는 各区間마다 地下水의 水頭 h_w 를 推定하고, 各区間에 包含되어 있는 물의 무게 U_i 를 求하여, $F_s = (w_i - U_i) \sin \alpha_i$ 로 하면 된다. 또 미끄러트리는 힘 F_s 에는 물의 流下에 依한 影響도 들어간다고 생각되나 一応 圓弧를 그대로 쓰기로 하고 安全率 F에 1.5 以上の 餘裕를 갖게 하고 싶은 것이다.

다음 表 2에 上記의 例題를 表示 한다. 破壞面은 圓弧로 假定 하였다. 地下水의 作用이 없을 경우에는 安定되어 있는 斜面(表 2-(1)에 그 計算을 나타냈다) 이 물을 包含하여 安全率 $F < 1$ 로 되어 (表 2-(2)에 그 計算을 나타냈다) 崩壞가 일어난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다. (그림 9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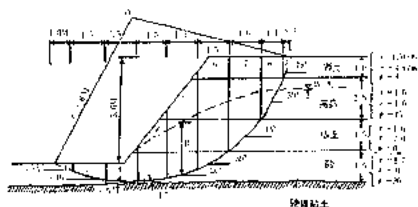


그림 9. 計算例

表 2-(1) 水位를 考慮하지 않은 斜面의 安定計算

区分 No.	面積 m ²	平均 r t/m ²	w t/m	d 度	sin α	cos α	w sin α	w cos α	tan φ	w cos α × tan φ	Δl C × Δl
1	0.25	1.7	0.43	-25	-0.423	0.906	-0.182	0.390	0.577	0.255	
2	1.05	1.7	1.78	-16	-0.276	0.961	-0.491	1.710	"	0.966	
3	1.73	1.7	2.94	-5	-0.087	0.996	-0.255	2.928	"	1.689	
4	3.88	1.65	6.40	4	0.070	0.997	0.448	6.380	"	3.681	
5	6.07	1.6	9.71	20	0.342	0.940	3.340	9.127	"	5.266	
6	7.20	1.6	11.52	30	0.500	0.866	5.760	9.976	"	5.756	
7	6.20	1.6	9.66	43	0.682	0.731	6.588	7.061	-	-	2.28
8	2.20	1.55	3.41	59	0.857	0.515	2.922	1.756	0.268	0.471	2.23
9	0.15	1.5	0.23	78	0.940	0.342	0.216	0.076	-	-	

$$\Sigma Md = 18,346r$$

$$\Sigma Mr = (18,075 + 6.99)r$$

$$\text{安全率 } F_s = \frac{\Sigma Mr}{\Sigma Md}$$

$$= \frac{\Sigma Mr}{\Sigma Md}$$

$$= \frac{25,065r}{18,346r}$$

$$= 1.36 > 1.2$$

表 2-(2) 水位를 考慮한 斜面의 安定計算

구분 No.	面積 m ²	平均 r t/m ²	w t/m	h _w 間隔水頭 t/m	U _i 間隔水重 t/m	α 度	sin α	cos α	w sin α	w cos α	tan φ	w cos α × tan φ	U _i sin α	U _i cos α	Δl C × Δl
1	0.25	1.7	0.43	0.3	0.30	-25	-0.423	0.906	-0.182	0.390	0.577	0.255	-0.052		
2	1.05	1.7	1.78	0.8	1.20	-16	-0.276	0.961	-0.491	1.710	"	0.255	-0.255		
3	1.73	1.7	2.94	1.0	1.50	-5	-0.087	0.996	-0.255	2.928	"	0.825	-0.255		
4	3.88	1.65	6.40	2.2	3.30	4	0.070	0.997	0.448	6.380	"	1.780	0.448		
5	6.07	1.6	9.71	2.7	4.05	20	0.342	0.940	3.340	9.127	"	2.980	1.228		
6	7.20	1.6	11.52	3.8	4.20	30	0.500	0.866	5.760	9.976	"	3.330	2.400		
7	6.20	1.6	9.66	2.0	3.20	43	0.682	0.731	6.588	7.061	-	-	2.28	4.76	
8	2.20	1.55	3.41	0.6	0.65	59	0.857	0.515	2.922	1.756	0.268	0.294	2.23	2.23	
9	0.15	1.5	0.23	-	-	78	0.940	0.342	0.216	0.076	-	-	-	-	

$$\Sigma Md = 18,346r \text{ (t} \cdot \text{m/m)}$$

$$\Sigma Mr = (9,506 + 6.99) \times r \text{ (t} \cdot \text{m/m)}$$

$$\text{安全率 } F_s = \frac{\Sigma Mr}{\Sigma Md}$$

$$= \frac{16,496r}{18,346r}$$

$$= 0.9 < 1.2 \quad \text{N. G}$$

但 U: 間隔水頭

参考文献

1. 岸田英明, 小山邦勇「降雨條件が崩壊に及ぼす影響」第3回土質工学研究発表会講演集, 昭和46年6月.
2. 小山邦勇「崩壊に関する研究」昭和42年度日本大学理工学部卒業論文.
3. 日本文務省災害科学総合研究班「災害科学の研究成果とその問題点」昭和43年7月.

未來定住環境－建築技術의可能性(1회)

趙英武 (定住芸房, 建築家)

머릿말

1 Expo' 70- Osaka의 「韓國 2,000年 國土計劃像」

인간환경계획연구소를 차리자마자 김수근 소장이 난데 없이 난더러 한국전시관의 전시제작을 맡겼을 때, 특히 미래전시관의 전시내용 때문에, 나는 쓰라린 곤혹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내 연구 및 제작기간이 고작 2.5개월밖에 되지 않았었다. 그때부터 人間學과 未來學에 대한 연구작업이 착수되었다. 우선 여러 분야의 이름 있는 학자들과 이에 대한 자문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우리 제작팀은 과거, 현재, 미래 등 세분과팀으로 구성되었지만, 한탕어리가 되어 국내 학자들과 미래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단시일동안 실로 너무나 많은것들을 총합하는 「용광로」같은 경험을 견디어 내어야했다. 그런 분위기속에서 나는 학자들과의 자문토의의 추진, 과거(김원석), 현재(오기수), 그리고 미래(윤승중, 유철) 세분과팀의 작업잔도를 독려 하느라고 이리저리 감피조차 못잡고 있었다.

그때 미래건축에 대한 나 자신의 지식수준이란 고작 C. I. A. M 이후의 G. E. A. M (가동건축연구그룹)과 G. I. A. P. (국제예전건축그룹)의 단편적인 자료들, Michel Ragon의 저서 「Où vivrons-nous demain? (우리는 내일 어디에서 살 것인가? 1963년 R. Laffont사 간행), New-York 근대미술관의 「建築未來像」전시회의 자료들, 또 Herman Kahn의 저서 「2,000年」 일역판, K. E. Baulding의 저서 「20세기에의 전환」 일역판, 프랑스 1985년 그룹의 「1985년-변화하는 인간 천화하는 사회」……등을 알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다. 영국의 Archigram 그룹이 간행하는 「Archigram」지가 도서관에서 비건축 도서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Metabolism 그룹이 1961년 Tokyo에서 열린 세계디자인회의때, 보고서를 내고 출판 저시간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 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고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나침내 1969년 12월 인간환경계획연구소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2박3일의 「한국 2,000년상」 세미나까지 주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내가 시간을 독촉하여, 윤승중·유철이 환경연구 1기그룹(이범재, 홍순본, 오백길, 민현식, 이광호, 최대환 등)의 도움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 「韓國 2,000年 國土計劃像」이었다. 그때 우리는 「인간 환경선언」을 기초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말았으나, 1972년 UN인간환경 회의가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고 또 1976년 UN정주환경 회의가 「정주환경선언」을 채택 하였다는 일련의 동향은 나로 하여금 1970년초의 곤혹을 되씹게 하는 한편 그 선언과 헌장이, 비록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기준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난산을 거쳐 태어난 20세기의 규범적지침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최근 나는 다시 한번 미래문제 때문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2,000년 미래정주환경」특집연재를 기획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김수근 씨의 지명으로, 정구종기자가 나를 찾아와서 연재기획 자료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나는 일간신문이 미래정주환경을 다루게 된 시대감각의 변화에 우선 놀랐고 또 한국건축가들이 지금 현재 정구종 기사가 집필하고 있는 것만큼의 자료들과 지식들을 정리하고 있으며, 더 앞서 있는가 하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나는 1972년 「空間」지에 G. I. A. P의 Yona Friedmann, Walter Jonas, Paul Maymont 등의 논문들을 번역 연재한 적이 있고 또 Michel Ragon의 저서들인 「Les visionnaires de l'architecture (건축의 未來予測家들)」, 「Les cités de l'avenir (장래의 도시들)」, 「La cité de l'an 2,000 (2,000年都市)」, 등 予見建築에 관한 도서들을 독파하였고, Guy Rottier의 논문 「Recherches architecturales (건축연구)」와 Robert Laffont 출판사의 世界建設全集 중 4권을 읽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 잘 되었구나 하

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20회 연재기획을 위하여 미래정주환경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21世紀 都市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길잡이는 누구보다도 나에게서 프랑스의 평론가 Michel Ragon을 들 수가 있다. Michel Ragon은, 비록 건축가도 도시계획가도 아니지만, 1968년 현재 43세의 나이로 현재와 미래의 건축들에 대한 연구저서들을 간행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몇 번이나 세계여행을 하였다. 1968년 현재 그는 프랑스미술평론가협회 회장으로 있었다.

그가 쓴 건축 및 도시계획 저서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Le livre de l'architecture moderne (근대 건축서—R. Laffont 간행, 1958년);

Ou vivrons-nous demain? (우리는 내일 어디에서 살 것인가?—R. Laffond 간행, 1963년);

L'urbanisme et la Cité (도시계획과 都市—Hachette 간행, 1963년);

Les Visionnaires de l'architecture (R. Laffont 간행, 1965년);

Paris demain (내일의 파리—Hachette 간행, 1966년);

Les cités de l'avenir (장래의 都市들—Pianète-Denoël 간행, 1966년);

La cité de l'an 2000 (Casterman 간행, 1968년)

1956년 C. I. A. M 이 해산된 다음부터 미래도시를 준비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957년 Yona Friedmann이 프랑스의 Aujame, Paul Maymont, 독일의 Frei Otto, Schulz - Fielitz, Werner Ruhnau, Gunther Gunschel, 헝가리의 D. G. Emmerich, 폴란드의 Jerry Soltan, 네덜란드의 Jan Trapman, 스웨덴의 Frigerger, 일본의 Otaka, 룩셈부르크의 Camille Frieden 등과 함께 G. E. A. M. 을 Paris에서 결성 하였다.

1960년 일본의 건축가들인 Kurokawa, Kikudake, Otaka, Maki, 그리고 도시계획가인 Asada 등이 Tokyo에서 Metabolism (신진대사) 그룹을 결성하였다. Metabolism 그룹은 1961년 그들의 계획안들에 대한 저서를 간행하였다;

1965년 영국의 젊은 여덟 건축가들인 Warren Chalk, Dennis Crampton, Peter Cook, David Greene, Michael Webb, Ron Herron, Peter Tayler, 그리고 Ben Fether 등이 London에서 Archigram (원건축) 그룹을 결성하였다. Archigram을 간행한다;

1965년 Yona Friedman, Paul Maymont, George Patricx, Walter Jonas, Nicolas Schoffer, 그리고 Michel Ragon 등이 영국의 Auther Quarmby, 멕시코의 Mathias Goeritz, 이태리의 Maniredi Nicoletti, 스위스의 Jonas, Dahinden, Hausermann, 프랑스의 Jean-Claude Bernard, Biro와 Fernier Chaneac, Stephane du chateau, Deryng, Guy Rottier, Edouard Utudjian, James Guitet, Vasarely, Szekely, Lucien Hervé 등과

함께 Paris에서 G. I. A. P. 을 결성하였다. 1966~ 1967년 Paris 장식미술박물관에서 토론회 제회를 개최하였다. 미국, 아르헨틴, 우르과이, 영국 스칸디나비아계국, 부룬셀, 뤼엔 등의 대학들에서 G. I. A. P. 회원들이 계획안들을 소개하는 많은 모임을 열었다.

여기 소개하는 것들은 단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여 간추려진 데 지나지 않다는 것을 주의하기 바라며, 이 밖에도 많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나는 1970년 이후의 자료들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1960년대의 것들을 참고할 수 밖에 없다.

[3] 미래건축의 창조자들

현재까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래건축의 창조자들은 다음과 같다: Robert Le Ricolais는 189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교 교수이며, 空中立体架構 構造의 발명자이다;

Richard Buckminster Fuller는 1895년 미국에서 태어났고, 몬트리올 万博 미국관으로 그 실례를 보여준 測地線 構造의 발명자이다;

Yona Friedmann은 1923년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에 이어 프랑스의 국적을 얻었고, 1958년 이후부터 혁명적인 空中 및 可動都市를 계획 하였다.

Paul Maymont은 1926년 파리에서 태어났고, 1962년 이후부터 円錐狀 都市들, 海上都市들, 그리고 地下都市들 등 많은 도시계획안들을 발표하였다;

Chanéac은 1931년 태어나 프랑스 Aix-les-Bains에서 살고 있으며, 工業化住居와 프라스틱 재료로 만든 基本住居 등에 관한 학설을 발표하였다;

Archigram 그룹은 영국의 젊은 여덟 건축가들의 予見 그룹이며, 「Archigram」誌를 간행하고 있으며, 「Plug in City」空中都市案들을 발표 하였다;

Nicolas Schoffer는 1912년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1936년부터 Paris에 이주한 조각가이기도 하며, 人工頭腦都市案을 발표 하였다;

Walter Jonas는 1910년에 태어나, 1936년부터 Zurich에 정착 하였으며, 円錐狀都市와 内向都市의 계획안들을 발표 하였다;

Frei Otto는 1925년 독일에서 태어났고, 몬트리올 万博의 西独전시관에서 그 아름다운 실례를 보여준 張力 지붕의 전문가이다;

Edouard Utudjian은 1907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1933년 이후부터 오늘날 실현하기 시작한 地下都市計劃案들을 발표 하였다;

Métabolism 그룹은 일본의 K. Tangé의 협력 건축가들이었던 Kurogawa, Kikutaké, Otaka 등의 予見 그룹이다;

G. I. A. P. 은 1965년 Paris에서 Friedmann, Jonas, Maymont, Patrick, Michel Ragon, Schoffer, 그리고 Schein 등이 결성한 세계적인 予見 그룹이다.

한국에서는 1969년 인간환경계획 연구소의 젊은 건축가들의 「한국 2,000년 국토계획상」의 발표가 아마 유일한 미래의 건축 및 도시를 다룬 설계일 것이며, 그때의 연구보고서 「Expo'70 韓國館 未來展示室 展示計劃研究報告書」 속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1976년 현재 한국에는予見 그룹이 존재하지 않고있다.

4] 두 新都市들의 運命

서울이 18세기에 이미 세계대도시들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알렉산더大王의 영광시대의 도시인구 70 만인을 넘어서는 도시를 群化할 수 있는 물리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덧 오늘날의 도시들은 비만증에 걸린 과물들처럼 커져 버렸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과물들은 그 옛날 덩치가 너무 크고 자연을 마구 짓밟아 버리던 공룡들과 같이 영원히 사라져 버려야 할 운명일지도 모른다. 이쯤 논리가 비약하고보면 도대체 근대건축은 무엇을 해왔던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루고져 하는 주제는 20세기 전반기에 생겨난 근대건축을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날의 가장 개혁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21세기의 정주 환경은 어떻게 되어가리라고 추구하고 있는나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아보려는 것이다. 건축과 도시 계획의 미래정주 환경은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인간에게 미래가 있다면, 정주환경에도 마땅히 미래가 있을 것이요, 정주환경의 미래는 인간의 미래에 달려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세계의 가장 큰 결함은 정주예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의 문제가 생겨난 것이다.

21세기초에 존재할 건축물들의 50%는 현재 존재하지 않고있다. 그러니까 21세기초의 인류의 50%는 현재부터 건설하게 될 건축물들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또 그 나머지 50%는 20세기 현재의 남은 건축물들속에서 살게 된다. 새로 지어야 할 50%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건설 하여야 할 것인가? 또 그때까지 남게될 50%도 불량지구화 되어 재정비의 연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하여튼 오늘날 21세기를 위한 가장 개혁적인 것을 만들고 있는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우선 수천의 20세기 근대건축의 산물들을 가지고 건설한 두 新都市들, 즉 인도의 Chandigarh와 브라질의 Brasilia의 실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건축가 Le Corbusier는 인도의 네루 수상으로부터 인도의 지역적 특수 문제에 대하여 「빛나는 都市」 이론을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 받았었다. 또 1957년 Le Corbusier의 제자들인 브라질의 두 건축가들인 Lucio Costa와 Oscar Niemeyer는 크비체크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브라질의 首都를 건설하여 달라고 위임받았었다. 이 두 新都市들은 곧 건설 되었었다.

그러나 1968년 Michel Ragon은 「Chandigarh와 Brasilia도 이제 기념적도시들이 되어버렸다」고 논하였다. 그러니까 21세기 도시들은 좀더 영구적인 개혁으로써, 세계건축

의 可變性을 가능케 하는 융통성을 가진 구조의 도움으로써, 그러한 기념적도시 건설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아마 21세기 사람들은 현재 Venice를 관광여행하듯이 Brasilia를 관광여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과거에 만든 기념건물들이 남아있을 터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아마 단곳에서 생활을 누리게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5] 새로운 프라스티크建築材料들

Chandigarh와 Brasilia는 콘크리트로 건설되었다. 19세기 후반기의 주재료였던 강철과 같이, 철근콘크리트는 20세기 전반기의 주재료였다. 그러나 건축의 장래는 틀림없이 과거 주재료들과 다른 재료들, 무엇보다도 프라스티크 재료들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 새로운 프라스티크 재료는 우리시대의 건축형식 언어속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도구들속에 한꺼번에 깊이 침투되어 있다. 나무, 돌, 강철, 아연, 세라믹, 섬유등이 점점 프라스티크와 대체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프라스티크를 주재료로 삼아 만든 住宅原型들이 이미 20년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1956년 프랑스의 Ionel Schein, Coulon, Mcgnant 등이 Paris가구공예 전시관에 소개한 최초의 프라스티크 주택 원형인 「나선형주택」으로부터, 프라스티크 주택의 두번째 원형인 미국의 R. W. Hamilton와 M. E. Goody의 「미래주택」, 영국의 Quarmby가 별집모양의 마을을 형성시킬수 있게 만든 「프라스티크주택」, 그리고 미국의 Pascal Hausseman과 Sunford Hohausser가 계란모양으로 만든 프라스티크 주택인 「계란형주택」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들도 각양각색이다.

6] 建築構造革命

장차 어떻게 건축이 변화할지 모르지만, 20세기에서의 建築革命이란 새로운 재료들과 새로운 기술로 말미암아 이룩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나무, 돌, 강철에 이어 철근콘크리트의 발명이 있었는데 철근콘크리트의 발명이 아주 새로운 건축미학을 탄생시켰다.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말안장」모양처럼 만든 기하학적 형태는 1951년 부터 시작하여 건축으로 하여금 뜻 밖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만들었다.

오래전부터 구조가들과 건축가들이 대형지붕 문제에 대한 경제적이고 세련된 해결책을 찾으려고 열심히 추구하고 있던바, 1945년 미국에 이주하여 40세 때 항공 사고로 죽은 폴란드 태생의 건축가 Matthew Nowicki가 실제로逆曲率의 얇은 Suspension 구조 지붕의 기술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기하학적 형태에 힘입어 Matthew Nowicki는 1953년 미국 노스카롤라이나의 Raleigh에 다가 압축력에는 철근콘크리트, 인장력에는 고성능 강철을 이용한 가축전시관을 완성하였다. 이 가축 전시관은 건축에 있어서 참다운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마침내 건축가들은 절대적이던 立体구조 형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때부터 Suspension 구조들은 새로운 模型들이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그리스 시대의 홍예구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리스시

대의 Acropolis 산전으로 부터 Le Corbusier의 住居單位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무거운 하중을 땅속깊은 기초들에 뿌리박던 重量建築은 서성적인 輕量建築한테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미국의 건축가 Eero Saarinen, 멕시코의 건축가 Félix Candela, 일본의 Kenzo Tangé등이 이 새로운 Suspension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 걸작품들을 창조 하였다.

Félix Candela는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Brasilia의 Cuernavaca 성당을 완성하였다.

Eero Saarinen은 「20세기의 베르사이유 宮殿」이라고 일컫는 Detroit 주의 「General Moter」연구소에서 Mies van der Rohe로부터 계승한 상자 모양의 입체미학의 극치를 보여주었지만, 그가 죽기 몇년전에 입체미학을 완전히 바꾸었고 또 1956년 Yale 대학교의 빙구경기관에서 빙구선수과 짐승의 굶은 잔등이를 연상시키는 Suspension 구조 형태를 표현하였고, 그리고 1962년 날아다니는 새 모양과 같은 형태를 New York의 Kennedy 공항의 T. W. A 항공센터에서 완성하였다. 이 T. W. A 항공센터는 20세기 건축의 주도적 걸작품들 중의 하나이며 또 어떤 새로운 건축을 시사하는 걸작품들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건축적 모험은 일본의 Kenzo Tangé에까지 미쳤다. Kenzo Tangé는, 이미 강철과 유리로 만든 Hiroshima 평화관과 Tokyo 시청사 등에서 직각건축으로 시작한 두어 작품들 때문에 유명했지만, 1964년 천막 지붕처럼 鋼索들에 지지된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 지붕을 가진 Tokyo 실내체육관을 완성 하였다.

새로운 건축기술은 張力膜(Voilles prétendus)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너무나 새로움을 강조하는 형상이었다. 만약 최초의 주택이 인간 최초의 보금자리였던 숲(Gothique)뿐 아니라 동굴 등과 비슷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을 참작하면, 오늘날에는 주택은 거대한 날개들 가진 새의 역동적인 형태로 접근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張力膜을 참다운 使徒라고 부르는 프랑스의 구조가이던 건축가인 René Sarger는 「張力膜구조와 이에 따른 모든 방법체제들이 건축사상 처음으로 모든 건축들을 전복해 버릴 수 있는 근본적 혁명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인간활동이 선사시대로부터 迷路의 길잡이 실과 같이 지붕하중을 가볍게 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고 하지만, 지붕하중은 20세기 초까지도 여태껏 동일지붕 면적들에 대한 風圧보다도 ($100\text{ kg}/1\text{ m}^2$) 여전히 웃돌고 있었다. 이렇게 구조물들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무거운 편이다. 어쨌든간에 지붕하중을 감소 시키려는 건축사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조하였던 것이다.

張力膜 超輕量技術 때문에 처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건립된 구조물들이 더 이상 기초들에 많은 하중들을 전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기초들에 결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초래한 형식적 혁명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고 논하였다.

현재 또 다른 완벽한 도약은 20여년전부터 다른 구조체와 또 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덮어버릴 수 있는 測地線 돔구조(Dôme géodésique)이다. 미국의 구조가인 Buckminster Fuller는 모스크바 萬博의 미국전시관과 같은 3方向格子 立体架構 몸과 1967년 몬트리올 萬博의 미국전시관의 測地線 돔 구조를 만들었다. 미국이 F. L. Wright의 업적을 후에야 회복시켰듯이, B. Fuller의 1~2 차 대전간의 건축들이 그 당시 빛을 보지못하다가 10여년전부터 갑자기 그 업적이 인정 되었다.

測地線 돔이란 四面體를 구성하는 3方向 立体格子의 기하학적 기본형태(bétraédre)에 근거한 작은 조립 부재들을 조립하여 만드는 半球型 지붕이다. 망상조직(résille) 자체가 강철, 프라스틱, 그리고 板紙등으로 제작된 구성부재들을 지지하게 된다. 이 測地線 돔은 이상적인 긴급주택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경량성 때문에 헬리콥터로 운반할 수가 있다. 또한 돔은 넓은 지상면적을 반투명 또는 투명하게 덮을 수 있고, 또 무지하게 거대한 일종의 종모양으로 한 도시를 한통속으로 덮어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살아가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지역들 속에서 돔을 덮어 도시전체를 인공기후로 조절할 수 있게도 만든다. 사람들은 아직 그런 인공기후 환경속에서 살아 본적이 없지만, B. Fuller가 루이아지나의 Boston Rouge에 만든 Union Tank Car & Co 회사의 거대한 測地線 돔의 직경은 무려 117m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혁명적인 것은 건축사상 최초로 1970년 오사카 萬博에 만들어진 미국전시관의 氣張 돔(air-dome) 구조와 Fuji 전시관의 空氣膜 구조를 들 수 있다.

미국의 데이비스, 차페이에프, 가이스등이 설계한 氣張 돔의 지붕하중은 $0.68\text{ kg}/3\text{ m}^2$ 밖에 안되는 초경량이다. René Sarger가, 지붕하중이 동일면적의 지붕에 대한 風壓과 맞먹는 $100\text{ kg}/1\text{ m}^2$ 로 감소할 때, 構造革命이 시작한다고 논한 적이 있는데 비하여, 이미 1970년 미국 전시관의 氣張 돔의 지붕하중은 $0.23\text{ kg}/1\text{ m}^2$ 로까지 감소하고 말았다. 이 氣張 돔 지붕의 기하학적 형상은 거대한 타원형이고, 그 규모는 가로 140.9m, 세로 35m, 높이 60m로서 전시면적은 $30,000\text{ m}^2$ 이 있다. 이 규모는 1967년 몬트리올 萬博 미국전시관(B. Fuller)의 프라스틱 돔의 전시면적보다 거의 2배나 넓어진 것이다. 鋼索 지붕의 氣張 돔은 輪狀 콘크리트 支持構造體에 결속시킨 고성능 강철케이블로 구성된 장방형의 격자가구 속에 걸 수 있는 반투명의 화이버·그라스판을 깔았다. 이 氣張 돔의 張力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4대의 공기 압축기들이 가동되었다. 낮에는 자연조명, 밤에는 내부 인공조명을 하게되었으며, 인공조명으로 여러가지 原色들의 레이저 光線이 사용되고 있다.

ㄱ 21세기를 위한 予見建築

21세기의 정주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발표되어 알고 있는 予見建築(l'architecture prospective)의 설계도들과 모형들을 가지고 21세기 도시가 건설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우리는 21세기의 미래도시들을 묘사해 볼 도리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로 科學小說처럼 이를 묘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묘사하려고 하는 모든 건축형태들,

모든 도시정비들, 모든 교통수단들 등은 지금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어느 경우에는 21 세기란 미래는 이미 개시되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아주 소규모거나 또는 사람이 잘 가려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이다.

1955년 부뤼셀萬博에 누구나 그 미래의 발단을 알아채려 했는지도 모른다. 프랑스 전시관과 미국전시관……등 많은 전시관 건축들이 텐트구조(Structure tendue)란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 졌었다.

미래도시의 구상은 어느덧 張力膜구조가 포기되고, 교통이 온통 공중에 매달려 있었던 Lausanne의 스위스 국가 박람회의 텐트구조에서도 퇴어났었다.

그리고 1967년 몬트레올萬博에, Frei Otto가 만든 거대한 텐트구조와 B. Fuller가 만든 반투명의 거대한 測地線 돔구조, 그리고 1970년 오사카 萬博에, Davis등이 만든 氣張돔구조 등은, 과거에 생겨났던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형태들을 논하지 않고서는, 현대건축의 어떤 소의 되었던 자들을 논하지 않고서는, 펜실바니아 대학교의 구조학교수인 B. Fuller 또는 프랑스 태생의 Robert Le Ricolais 같은 미래건축의 시조들을 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일의 건축을 강조하고 있다. Robert Le Ricolais가 空中立体架構 구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흔히 볼 수 있는 空中都市계획안 들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21세기는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온다. 지금부터 40년전인 1937년 빠리萬博 때, 프랑스의 30세의 젊은 구조가였던 Edouard Utudjian은 「地下都市計劃」전시관을, Le Corbusier는 「새로운 시대 (Les temps nouveau)」전시관을 만들었었다. 이런 강력한 사상들, 즉 Edouard Utudjian의 「地下都市計劃」과 Le Corbusier의 「빛나는 都市」등은 오늘날 실현되기 시작 하였었다. 우리는 이런 실례들과 개척적 연구사례들(1927년에 시작한 B. Fuller의 「돔」연구와 1922년에 시작한 R. Le Ricolais의 「空中立体架構」연구 같이 만인의 주목을 끌지 못하였었던 기타 계획안들)을 가지고 20세기 4/4분기 건축에 발생할 것들을 予見하게 된다. 전기한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세계 수많은곳에서 Le Corbusier, Walter Gropius, Mies van der Rohe 등이 새로운 건축시대의 시작보다도 오히려 과거의 건축시대의 종말을 표현하였을 뿐이라고 인식하게 된 젊은 건축가들이 人間の 群化들과 時間, 可能性, 可變性, 空間性등 새로운 개념들과 부합하는 都市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제안들이야말로 하여금 우리로 21세기의 정주환경상들을 予見할 수 있게하는 것들이다.

1章 中枢都市들—空中都市들

[8] 20세기 도시들의 幻影들인 博物館都市들

21세기에는 두 사람중의 한 사람은 20세기 후반기부터 건설하게 될 새로운 주거에서 살게 될 것이다. 2,000년부터는 프랑스사람들중의 50%는 197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새로운 주거에서 살게 된다. 프랑스 사람들이 받아드리는 것은 역시 미국사람들, 대부분의 유럽사람들, 일본사람들, 그리고 장기간 고도로 공업화한 나라들의 모

든 사람들에게도 받아드려지는 주거가 될 것이다. 과거부터 저개발 된 나라들과 항상 개발도상중의 나라들에서는 새로운 도시들의 인구가 아직도 선진 국가들보다 더 높아진다.

지구는 비행기시대가 3世代에 접어들면서 기막히게 좁아졌다. 푸로페라 비행기 다음에 제트비행기가 나오고, 마침내 초음속비행기는 빠리에서 뉴욕까지 3시간이면 갈 수 있다. 유럽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주말여행을 떠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아니라 돈문제 만이 남게된다. 700인의 승객들을 나를 수 있는 저대한 여객기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태양주 등 다소 인기있는 관광여행을 즐길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유럽의 박물관도시들(ville-musées)을 방문하는 것도 또한 매우 가치가 높다. 그런 박물관도시들은 많다. 20세기 과정의 발전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면서, 박물관 도시들은 웅성되어버렸다. 그실례들은 venice, prague, kyoto 등 관광객들을 즐겁게 하면서 세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던 도시들이 과거에도 이미 많았었다. 인구폭발로 말미암은 건축적 변화때문에 이 박물관도시들도 확장되었다. 구도시들은 더 이상 무한히 커질 도리가 없게되었다. 특히 구도시들을 파괴하지않고 자동차 교통들에 적응하는 구도시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다. 18~19세기 구도시들에 자동차 도로들을 설계한 다음에 실제로 교통을 촉진시키는 이 자동차 도로들이 도시를 充血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자동차도로들이 구도시들 내부를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한 때로부터 시작하여, 자가용차 사용자들은 새로운 充血이 생겨난 그런 지점에 증가하게 되었다. 자동차들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수많은 부분들을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동차의 주차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자동차 도로들을 설계하여야 했다. 자꾸만 기존부분들을 철거하다 보니까 어느덧 기존도시들의 幻影들(fantômes) 밖에 안남게 되었다.

[9] Marc Plumet와 Michel Bedu의

長城狀都市 (Atelopole)

아주 즐겁고 기분좋은 21세기말의 박물관 도시들이 될 수 있는 과거의 많은 도시들이 자동차들 때문에 이렇게 점점 자취를 감추고 유린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 때에는 과거의 도시들의 파괴를 피하기 위하여, 아주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하려고 의도하게 되었다. 이 新都市들은새로운 交通軸들에 따라서 건설된다. 이 기간交通軸에 따라 만든 것으로써 Marc Plumet와 Michel Bedu가 「長城狀都市 (l'Atelopole)」이라고 명명한 것은 가장 대담한 線狀都市였다. 長城狀都市란 넓이30m에 높이 400m에 까지 거주하는 일종의 중국의 萬里長城과 같은 것으로서, 점진적으로 연장되고, 그 점진적 연장으로 말미암아 어쩔수 없이 성장한다. 長城狀都市가 프랑스 Orléan 지방에 건설된다면, 長城狀都市는 양쪽 단부마다 50m씩 하루 100m씩 점진하게 된다. 콘크리트 기능공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또 이 거대한 帶狀의 한쪽 단부가 동북 지방의 Strasbourg와 연결하게 될 무렵이면 북부지방의 Loire 地方을 따라 전개하는 다른 쪽의 단부는 영블해

협으로 닿게 된다. 60km의 長城狀都市는 60만인을 수용거주시킬 수 있다. 20년간 자동차 때문에 철거당한 구도시들의 인구중의 25%를 長城狀都市에 거주시킬 수 있다.

長城狀都市는 기하적 곡선들을 따라가며, 교각들 위로 강들을 건너고, 골짜기들을 건너 가지만, 숲을 횡단하게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地下下部構造는 고속 지하철과 보통지하철, 중량고속도로와 수로등을 포함하게 된다. 이 長城狀都市의 전체 길이로 고속이동들을 예상하기는 이처럼 쉬워진 다. 長城狀建築體의 양면으로부터 몇km의 자연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원 에 대한 全景의 전망을 가능케 한다. 단지 운동경기장 들과 수영장들만이 長城狀都市의 양면에 건설된다. 소음을 막기위하여, 대규모 공업은 건물체 아래 지하에 은폐되고 또 고속도로와 수로들과 직접 연결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업, 점포들, 업무사무소들 등은 동일한 건물체 안에 포함되고, Le Corbusier 가 마르세이유의 住居單位 아파트에서 계획한 것과 같이, 그 동일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점포들의 혜택을 받게 된다.

10 A. Biro 와 J. J. Fernier의 X 狀都市 (La ville en X)

프랑스의 두 건축가들인 A. Biro 와 J. J. Fernier 가 구성한 「X 狀都市 (la ville en X)」의 계획사례와 같은 또 다른 형상의 도시들이 있다.

X 狀都市란 연속적인 내력구조가 X 字型이기 때문에 불려진 용어이다. 長城狀都市와 같이, 한 X 狀都市도 Brest 에서 Viadivostok 까지 중단하지 않고 연장시킬 수가 있다. X 狀建築體의 교차점에서는 배관장치들과 에너지 공급망들과 더불어 교차교통 조직망에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X 狀都市의 中心地區는 空中에 떠있는 도시 (La Ville suspendue)의 血液器官과 같은 교통체계가 되어버린다. 交通體系의 上層, 즉 X 字型으로 두 기둥이 잘라져 나가는 上部에는 상사 덕분에 최대로 日照의 혜택을 받는 X 狀都市의 段層狀住宅들이 자리잡게 된다. 발코니와 회랑들을 가진 이 주택들은, 자동차가 상가들이 자리 잡은 아랫층을 통과하기 때문에 도보자 전용인 상가로 돌출하게 된다.

X 字型 아랫쪽에서 잘라지는 두 기둥들에는 업무사무실, 차고들, 각종 창고들등에 사용하는 장소들이 만들어진다.

제일 아랫쪽에는 건축체의 기초 부분을 제외한 90%나 자유로워진 자연지면이 농사나 여가들에 사용된다.

광대한 지면상에 屈曲해나간 이 線狀都市들에는,과거에는 무한한 교외상태의 지면상에서 보여 주던 인구 밀도를 도시구조자체속에 수용 증가시킬 수 있는 中樞都市 들을 첨가하게 된다. 행정적 태만과 구획정리자들의 투기의 산물인 교외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선상도시들은 건축체 양쪽이 광대한 비건축 용지가 전개하기 때문에 교외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계획의 주요 논리들의 하나가 미래에는 기존도시들의 장애 요인인 이동 시간을 줄일 목적으로 최소한의크기의 공간속에 인간활동들을 수용하려는 것인만큼, 새로운 中樞都市들은 더 이상 교외를 안남기게 된다.

하나의 기념적 구조체들과 같이, 신도시들은 하나의 長台石과 같은 기념적 건축체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해골과 같은 소주택들을 주위에 群化하는 것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11 Miastro 그룹의 未來都市 (La ville de l'avenir)

1967年 J. Karczewski, M. Lefebvre, W. Zandfos 등 Miastro 그룹은 氣送動路回路들을 가진 「未來都市」를 발표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교통체계가 도시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3인용 動室로 이동하게되는 氣送動路回路網들은 개인주택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거내력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고층화한 토지이용은 주민들의 사회적접촉들을 촉진시키게되고 또 주민들의 필요들을 위한 광대한 草木地區들을 확보할 수 있게한다. 이 미래도시에서 채택한 원칙은 거대한 형태들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또 자연풍경속에 건축용적들을 집중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미래도시 연구는 각종 지형들에 따라 굴곡되어 있는 管狀體로써 다른 많은 予見의계획안들보다도 도시 건축의 종전방법들과 보다 이색적이지만, 이 연구도 다른 예견건축들과 같이 해결하여야 할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

13 交通手段들

먼저 말한 거대한 건축체 때문에, 더 이상 개인 주택들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한정된 공간들 위에 도시를 집적 하려는 현대의 바벨탑들인 이 中樞都市들은 광대한 국토면적들을 해방시키게 된다. 이로 말미암아 보존된 동물들과 또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초목들을 번식시킬 수 있는 광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영토의 보존을 고려하여, 또 餘暇都市들과 그 환경을 고려하여, 전원상의 개인주택들을 정착케하는 길고 긴 도시구간들을 물리칠 수 없는 도시들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장차 국토를 충분히 남겨 두어야한다. 그런데 장차 1주일중의 4일간 밖에 일하지 않게될 노동시간문제는 노동자들로하여금 노동장소와 멀어진 주거지구에의 정착을 촉진시킬 것이다. 터널속, 공중을 달리는 기차와 모노레일, 遠隔誘導車등 초고속 대량교통 수단들이 생겨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1985년 이후부터는 단거리 이륙비행기들이 도시들간을 단시간내에 신속히 연결시켜주고 또 비행기 소음들이 감소하는 만큼, 도심지구 한가운데에 비행기 착륙장들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1985년 이후부터는 고주파 케이블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들을 파헤치게 되고, 급유소들을 헐어 버리고 그 자리에 변전소들을 건설하게 될지도 모른다. 자동차들을 움직이게 하는 高周波電流의 개발 때문이다.

과거에는 모든 것들이 비슷비슷한 미래도시들은 단조로움을 강요하고 또 똑같은 건축체를 어디에서나 보게 된다고 개탄할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되었었다.

Michel Ragon은 그것은「기발한 잘못이다!」고 논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태리·독일 그리고 프랑스의 르네상스시대의 어느 한 도시도 아무래도 비슷하지 않았고, 북불의 노르만디 지방 또는 남불의 랑독스 지방에 있는 19세기의 어느 한 도시도 서로 비슷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21세기의 어느 도시도 서로 다른 도시들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 건설하는 도시들의 숫자만큼 많은 형

태들의 組合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들이 완전히 서로 달라질 수 없겠지만, 長城狀都市, X狀都市, 內向都市 (l'intrapolis), 피라밋狀都市, 空中都市, 人工頭腦都市 (la ville sybernétique) 등간에는 1960년대에 Tokyo, New York, London, 그리고 Paris 등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보다도 다양한 형태들의 組合들이 무한히 많아질 것이다 (2회계속 1976. 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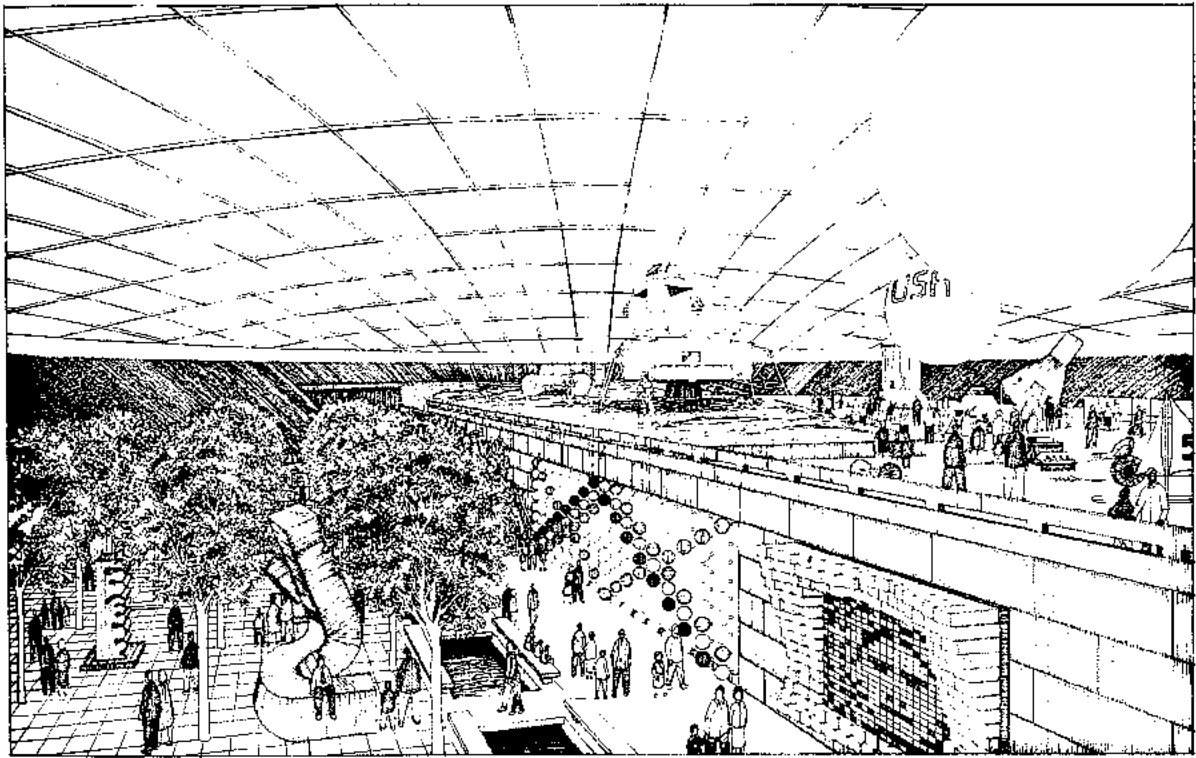


그림 1. EXPO' 70 OSAKA 万博 美国展示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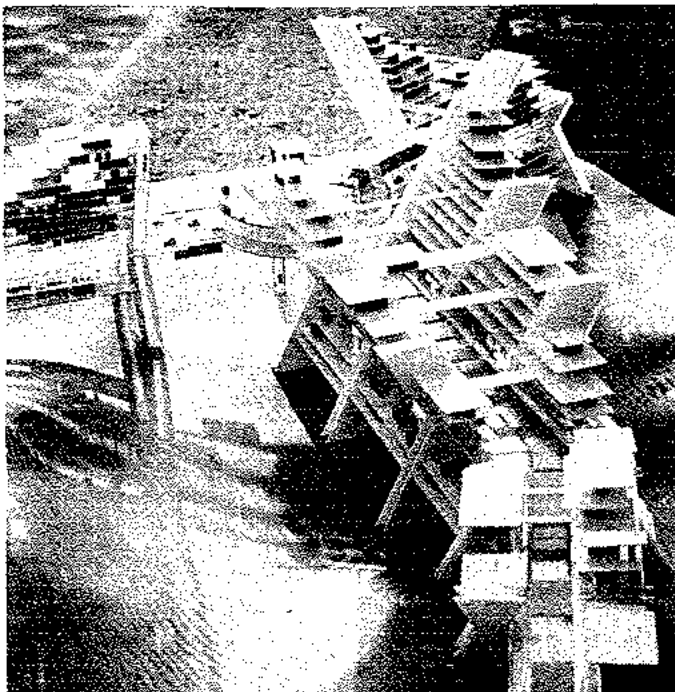


그림 2 X狀 都市의 中心地区·交差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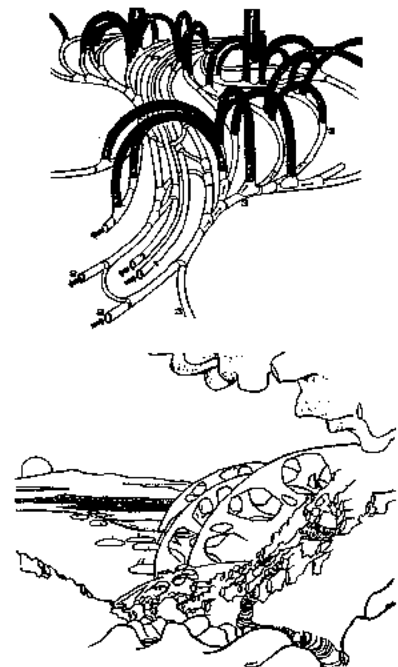


그림 3 管狀 未來都市

『韓國學校建築을 阻害하는 洋式建築의 그要因分析과 方向에 関한 研究』

—韓國學校建築의 史的整理를 통한 近代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韓國學校建築의 哲學的 背景 2

劉 香 山 (誠信女師大副教授)

近世以後의 哲學的 背景

1) 教育思想面에서

學校建物을 近世以前과 近世以後로 나누어 생각할때, 前者는 東洋中心의 儒佛建築樣式을 가졌고, 後者는 前者에다 더(加)하여 西歐中心의 天主教 및 基督教 思想을 가진 建築樣式을 가졌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두 時代를 区分한것 중에, 여기서는 後者에 對하여 論해 보기로 한다.

後者를 論함에 앞서 먼저 說明을 할것은 “教育思想과 (建築)樣式의 關係”이다. “樣式”이란 種類가 아니고 “理念”이다.

이 理念은 文化形成의 主体인 民族이 處한 社會에서 얻어진 모든 것을 上臺로 形成된 “藝術的 視”의 表現이다. 그러므로 이를 찾는 精神姿勢가 곧 民族形成에 基本이 되는 教育思想인 것이다. 따라서 教育思想은 곧 建築樣式化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思想이 變化하면 곧 建築樣式도 變하는 것은 當然한 樣式變化의 法則性인 것이다.

이에 전주에서 韓國의 學校建築은 들춰로 들린다 하더라도 (學校)建築의 母體인 住宅建築 조차도 이와같은 “思想” 곧 “樣式化”할 수 있는 建物을 建築하기 어려운 實情이다.

따라서 韓國學校建築은 (教育)思想이 곧 (學校)建築樣式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無秩序하고 多樣해 보인다.

더욱이 大部分의 學者들이 認定하듯이 後世에 이를 수록 더욱 심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影響을 받은 文化系統은 中國과 關聯해서 그 政治的 紐帶關係를 달리할 때 마다 各各 다른 要素들이 加味되었으며, 政治時期를 달리할 때 마다 信仰이나 宗教 또는 主導의 思想이 심하게 變遷을 거쳐왔으며 많은 戰亂을 通하여 原狀은 歪曲 變質 되었기 때문에 더욱 思想과 樣式은 全然 無關한 것으로 보여져 왔을 뿐이다.

그리고 둘째로 “樣式”에 關한 說明 다음에 說明을 해야 할 것은 東西洋의 建築樣式의 比較이다.

東洋의 儒佛建築 樣式 및 韓屋 樣式은 階層의(hierachy), 閉鎖的, 内外區分的, 家族中心의, 個人中心의, 靜的, 貴族的, 非能率的, 非機能的, 自然中心의인데 反하여, 西洋의 天主教 및 新教中心思想의 建築樣式은 平等的, 開放的, 集團中心의, 國家中心의, 人文中心의이다.

韓國은 그 規模에 있어서 지나치게 裝大하지 않고, 重壓感을 주지않고 大部分 人間의 尺度로 헤아릴 수 있는 크기와 內容을 가지고 있는 것이 普通이고, 外觀이 아담하고 親近感이 가고 또한 位置의 選擇에서부터 自然을 尊重하며, 地勢에 잘 適應 調和하도록 많은 配慮를 하게되고, 自然의 勢를 제압하고 自然과 對抗 競爭하는 方向으로 建築이 試圖된 例는 없다. 韓國建築은 特히 風水地理說을 重要視하며, 現世의 建築인 陽宅을 定할때나, 死後의 墳墓인 幽宅을 마련할때는 風水說의 理致에 順應하였다.

그러므로 어느 면에서 보면 時代와 環境 및 風習等 여러가지 要素가 綜合되어 本能的으로 表現되는 것으로서 作為가 없고 人爲的 理智와 技巧가 크게 作用한 것이 아니어서 어느 면에서는 어수룩한 면도 있었으나 순박한 면이 매우 많았다. 特히 家屋같은 境遇의 平面計劃은 物理的인 機能보다는 家庭生活의 傳統的 概念, 祖上, 이웃사람, 그밖의 家族構成員에 對한 社會的인 活動概念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이는 “儒教思想으로 因한 内外의 生活空間이 区分된 까닭이다.”

韓國의 自然的 條件이 크게 볼때는 “좁은 한 國土內에서 比較的 同一한 環境에서 자라났다고 보여지나 좀더 세밀히 그 內容을 보면 그 立地的 條件에 따라서 天差萬別이다. 그리고 國土面積에 比해서 地勢의 變化가 심하며,

国土條件이 多樣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各異한 表現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韓國思想의 主流과 同一한 樣式의 主流을 볼 수 있다.

단, 여기서 注意할 일은 “自然的 條件이 過去로 올라 갈수록 強하게 作用하고 있다”는 事實은 反對로 人文的 條件(社會的 條件)이 現代로 내려올수록 強하게 樣式에 作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過去의 韓屋 및 佛敎建築 樣式은 現代에 와서 人文的 條件에 強하게 影響을 받아 그 影響을 받은 만큼 樣式에 變化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變化에 比例해서 韓國學校建築樣式도 이러한 過程을 밟으므로해서 韓國敎育思想(弘益人間思想)과 一致할 수 있다고 본다.

近世以後 韓國 땅에 西歐思想和 宗教가 導入된 以後 學校建築은 無條件 西歐建築 樣式에 빠져버렸고 지금도 그것을 敎育思想和 樣式의 關係를 모르기 때문에 東洋 韓國 敎育思想이라는 나무를 西歐建築樣式이라는 화분에다 심다보니 어울릴수 없는 異質 또는 變質의인 敎育思想和 樣式을 낳게 하였다.

事實은 韓國에서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아나라도 “建築에 關한 傳統論 내지 傳統意識이 싹트기 始作한 것은 解放되기 20년이 지난 1965년경 부터이다.”

그러면 왜 이토록 現代에 와서 認識하게 됐는가 하는 데 새로운 重要的 理由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우리의 傳統建築과 西歐建築이 根本적으로 異質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重要的 理由는 韓國建築의 獨創性이나 價值를 認定치 않으며 韓國建築의 傳統要素를 찾는것을 無意味한 것으로 접어놓고, 意識적으로 外面하는 態度 때문에 깊은 研究를 여기에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態度는 韓國建築의 本質을 깊이 理解하지 못하고 다만 皮상적으로 보아 넘겨 中國建築의 矮小化라든가 變造한 程度밖에 생각않는 無關心 속에서 韓國建築은(특히 學校建築은) 방임되어 왔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敎育思想面에서 갖는 韓國과 西歐의 樣式은 出發點 自体에서부터 反對方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自然環境보다 人文的環境의 큰 影響으로 兩者의 思想面에서 共通點을 많이 發見하고 相互 융화하고 있다. 이것은 國際性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이건 國際性을 띤 배경 根底에는 반드시 그나라의 特殊性이 깔려 있다. 이러한 點을 감안해 볼 때 韓國은 特殊한 樣式이 없기때문에 弘益人間思想을 키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敎育思想을 키우기 위하여 學校建築樣式은 韓國 家屋의 特殊性을 살려야 한다.

2) 建築文化面에서

以上으로 韓國의 樣式에 阻害를 주는 西歐樣式은 어떠

한 建築文化의 配景을 歷史적으로 가져왔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建物의 原形은 住居에서 始作된다. 原始時代의 住居는 自然的 條件에 強한 影響을 받았으니 自然을 하나의 生命체로도 보고, 무서운 적의 대상으로도 보며, 동시에 自然을 하나의 믿음, 즉 신의 對象으로도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自然에 對한 이와 같은 思想은 곧 住居形態(樣式)로 나타났으니 一例를 들면, 神의 住居(House of God)라든가, 古代 希臘 羅馬時代의 神殿, 또는 高壇의 概念으로 自然神을 모시는 높은 山, 丘陵, 山頂(High place)等도, 메소포타미아의 Ziggurats, Maya의 Pyramid等도 다 이러한 思想에서 나온 樣式이다.

그리고 墳墓式 神殿으로 聖者의 死體위에 神殿을 만드는 것이다. 즉 世界各地의 王, 英雄의 死體위에 높은 土塚를 쌓아 추모하는등, 이것은 東洋에서 볼 수 있는 佛敎의 塔婆(Stupas)와 같다.

또는 會堂의 形式(Meeting Place)도 禮拜者들이 모여 禮拜하는 場所인 宗教建築의 “Synagogue”가 이러한 神의 思想을 담은 樣式이다.

初期의 基督敎人들은 羅馬의 “Basilica”를 利用하여 發展시킨 教會建築을 形成하였으며, 後에도 물론 混合建築樣式을 취하였던 것이다.

(1) 古典時代의 建築文化

希臘의 宗教는 民族의 團決에 가장 큰 役割을 하였다. 希臘人은 未來의 生活이 있음을 믿고 영혼의 地下生活을 위하여 供物을 올렸으며, 近親者의 保護와 祝福을 받았다. 또 希臘人은 現在의 生活의 支持者로서 神을 섬겼으며, 神을 人間으로 解釋하여 神은 人間보다 偉大한 能力을 갖고 있으나 人間과 같이 道德과 血族關係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都市國家의 守護神으로 崇拜하였다.

“에에게 建築”에서 보면, 이 時代는 幾何學的 文樣, 自然形態모방, 海草, 魚貝等이었고, 希臘建築(Hellenic Architecture)은 宗教建築으로 人間과 神을 同格으로 생각하여 神의 住居를 建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神의 住居의 樣式의 特徵은 特有한 柱列을 使用하였다는 것이다.

그 種類는 希臘 柱範 오더(order)樣式으로 “도릭 오더(Doric Order), “이오닉 오더”(Ionic Order), “코린시안 오더”(Corinthian Order)로 나뉘어진다. “도릭 오더”는 柱身(Shaft)과 柱頭(Capital)로 二分되었고, 礎盤이 없고 가장 웅장하며, “이오닉 오더”는 礎盤(Base)과 柱身(Shaft), 柱頭(Capital)로 三分되었다. “코린시안 오더”는 礎盤, 柱身에는 큰 變化가 없다.

柱頭 장식은 特有한 意匠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Gymnasia”이다.

이는 最初에는 青年들의 體育訓練場으로서 平面은 큰

正方形的 内庭을 싸고 列柱席 “Hall” 등이 配置되었고, 浴室이 있어서 訓練後의 浴室使用이 可能했다.

後期 希臘建築(Hellenistic Architecture)은 알렉산더大王 死後부터 羅馬帝國의 支配前까지로, 이 建築의 樣式은 希臘의 “오더”를 中心한 樣式에 量的인 東洋建築을 加하여 外觀, 内容 등이 모두 特記할 만 하다. 그리고 希臘人들이 屋外生活를 많이 즐겼기 때문에 柱廊 軒窗이 많이 發達하였다.

羅馬는 大公共建物を 建築하였으니, 즉 극장, 도로, 수도공사, 神殿, 공공浴場, 圖書館, 재관소, 記念物(凱旋門) 등등이다.

이들 建築樣式은 羅馬오더였었다.

羅馬建築은 希臘의 美的 統一과 에트루스카의 構造의 知識의 두 要素를 結合하여 建築史上 훌륭한 建築樣式을 가졌었다.

(2) 中世時代의 建築文化

中世時代 初期의 基督教은 雜多한 宗教로서 아우그스트스 治世에 發生한 宗教이다.

中世에 들어서서 西洋建築史上 가장 重要한 歷史的 事實로는 이 基督教에 依해 建立한 樣式을 말할 수 있다.

初期 基督教가 國教로 認定된 後부터 羅馬建築은 이를 基礎로 發展하였으며, 希臘과 羅馬의 장식面에 傳統을 망각하고 室内장식은 色彩的 效果로 獨創的인 美를 나타내고 過去의 장식面의 傳統과 全然 絶緣하여 中世建築을 위한 自由로운 發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이때는 宗教의 基本 樣式으로 모자이크使用이었다. 모자이크를 使用하여 床面, 壁面, 天井, 聖者, 使徒들의 圖像 등에 장식했고 聖書에서 보는 유쾌한 포도, 감람나무, 양, 비둘기, 물고기, 또 基督教 상징인 I. XP, α, ω 등 組合文字 까지 장식文樣되었었다.

비잔틴 建築에서 보면 돔, 아취, 보울드 등의 建築形態이고 사라센 建築에서 보면 宗教建築인 “Mosque”의 建築에 있었으므로 그 建築을 理解하려면 이슬람教의 性格을 아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이슬람교는 靈魂救濟의 宗教로서 既存의 아라비아 地方의 信仰을 綜合 순화한 것으로 그 바탕은 유대교, 기독교 및 이방종교의 要素를 기이하게 混合하여 만든 것으로 보다 명확하고, 生活에 直결된 唯一神觀과 個人 및 會衆의 예배에 對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羅馬, 初期 基督教, 비잔틴 페르샤 등의 建築樣式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독자성은 약하다.

로마네스크 建築은 繪畵, 彫刻, 純粹美術보다는 建築 特히 教會堂 建築이 왕성하였고, 樣式上의 不徹底는 수직선을 強調하여 하늘을 지향하는 宗教的 内容을 표상하는 고딕 건축양식의 出現을 보았다. 特히 이 당시에는 都市建築이 發展하였다.

로마네스크樣式에 뒤이어 13世紀에 發生한 Gothic建築은 주로 尖頭形 아취(Pointed Arch)를 出入口, 窓, 기타 모든 開上部에 使用하였다. 지붕은 높게 수직적, 昂揚을 意味하는 尖塔, Pinnacle, Steeple, Spire 등을 教會建築에 使用하였었다.

Gothic樣式은 自然을 사랑하였고, 따라서 自然의 形態, 自然曲線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였다. 장식은 喜悅과 安全과 “Integration”을 뜻하는 새로운 形式으로 表現되었었다.

(3) 近世時代의 建築文化

近世時代의 建築은 루네쌍쓰建築으로 말하게 된다. 루네쌍쓰라면 15世紀 이탈리아에서 發生하여 佛蘭西, 独逸, 英國 등 西獨 各地에서 傳播된 中世紀 思想에 反抗하는 新風 思想이다.

中世文化는 基督教의 神本主義的인 思想에 입각한 新世界와 새 樂園을 建設하려는 精神에서 發展되었고, 루네쌍쓰는 人本主義的 思想에 입각하여 宗教로부터 人間을 解放시켜, 人間의 이며, 自由精神이 넘치는 새 世界를 憧憬하여 발전시킨 時代이다. 따라서 希臘 羅馬 社會의 精神을 再生시킨 것이다.

고딕建築은 그 外觀에 수직선을 意匠의 主要素로 하여 仰高的인 宗教的 内容을 表現하였으나, 루네쌍쓰는 그와 正反對로 水平線을 意匠의 主要素로 하여 人間의 社會觀과 그橫的인 紐帶를 상징하며 그 휴머니티의 内容을 表現하고 있다.

둘째로 고딕에서는 各 個國의 形態의 美的 統制에 힘을 썼으나 루네쌍쓰 建築은 그全體的인 平面計劃 및 그 外觀의 構成에 있어서의 그 比率 美的, 均齊(symmetry) 등을 重視하였다.

세째로 고딕은 架構의 美에 宗教的 熱情을 充溢시켜 表現했으나, 루네쌍쓰는 힘의 均衡에 依한 靜的 美的 表現 安定感을 가지고 있다.

바로코 建築은 루네쌍쓰建築의 轉化이다. 루네쌍쓰는 理智的인 것인데 反하여 바로크는 熱情的인 것이며, 前者가 対象에 法則을 求함에 反하여 後者는 対象을 視察하는 사람의 主觀에 法則을 求하였다.

다음에 “Rococo”建築 樣式이 뒤를 이은다. Rococo는 Baroco의 轉化로서 前者가 個人의 “私”를 위주로 한 樣式으로 個人生活, 密通, 祕密, 個人의 經驗 등이 人生의 主要한 目標가 되었으므로 그 個人이 占有하는 空間内部는 實質적으로 아담하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反하여 後者는 人間의 空的生活을 위주로 發展된 樣式으로 壯大하고 虛飾的인 것이다.

(4) 古典, 浪漫, 折衷主義 時代의 建築文化

이 時代는 로코코, 바로코 등의 자유로운 技巧한 手法이 18世紀 中엽에 들어가서 퇴폐적이 되어서 古典 부흥이 모색되게 되었던 것이다.

浪漫主義는 古典主義의 客觀的인 理智主義에 對하여

主觀的인 情緒主義가 中心的이며, 따라서 그들의 取材는 民族의 史話, 傳說이며 이것들이 가진 情緒的 매력에 예술의 中心生命으로 생각했고, 浪漫主義는 中世에 있었다.

折衷은 過去의 世界에 展開된 모든 樣式의 청산인 동시에 미래 양식에 대한 模索을 하던 때이다.

IV. 韓國 學校建物の 建築學의 水準과 그 特徵

韓國이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一般建物 特히 韓國 땅에 세워진 外交關係의 商業的 政治的, 宗教的 其他 等 等に 關係되는 建物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그러한 西歐 樣式 즉 天主教와 新教의 고딕建物 또는 루네상스 및 折衷, 樣式 等を 取한 建築樣式을 갖고 있다.

1. 培材學堂

培材學堂은 學堂設立 다음 해인 1886年 8월에 工事を 着工하여 같은해 11月 1일에 竣工하였다. 이 建物은 벽돌 單層의 約 100坪되는 建物로 서울에서는 가장 初期의 벽돌建物로 믿어진다.

이 建築의 監督은 語學教師로 있었다는 宋憲成氏가 담당하고, 工事は 道 評수로 沈宜錫(後에 內務衙門 技師)氏가 맡았으며, 그림에 金德甫라는 木手가 있었다고 한다. 洋屋建築의 經驗이 없었던 이들을 아펜셀라氏가 直接 指揮 監督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建物은 方形平面에 현관部分만 모오치로 된 單純한 것이지만 形態의 調和되고 있지 않은대로 現관部와 各窓의 아아치, 처마의 난간, 壁體의 礎石(Quion)等에 石材를 써서 單調로움을 면하고 있다. 洋屋建築을 目見치 않은 사람들에게 依한 것인만큼 어려운 工事임에 틀림없었으나, 3個月 미만에 끝마치었다고 하니 速한 工期였다고 본다. 이 建物은 現在 大講堂을 짓기 위해서 1932년에 破毀되었다고 한다.

2. 現 凱托릭 醫大

現 凱托릭 醫大는 처음에 學校建物로 出沒되지는 않았다. 이는 “聖堂”으로 出沒되었던 것이다. 원래 明洞聖堂터는 吏曹判書 等の 벼슬을 지내다가 1874년에 죽은 尹定鉉의 집이 있던 곳으로, 1883年 以前에 김·가밀로라는 韓人 名의로 불랑主敎가 매수하였던 것이다. 1892年 韓佛修好條約이 締結되자 곧 산봉우리를 깎아 垜地를 造成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리하여 1894年 봄에 聖堂 建築工事を 着工하였는데, 當時 朝鮮에는 洋屋築造의 經驗者가 없었으므로 中國에서 벽돌工과 미장이, 木手를 데려와서 일을 하였으나 그들의 技術도 新통한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工事は 원래 저장한 工事인데다가 이들을 指導하면서 不充分한 施設로 일을 進行해야 했었고, 겨울에는 工事を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위에 1894年 淸日戰爭으로 因하여 中國人 職工이 還國하는 關係로 약 1年間 工事が 중단 狀態에 있게 되어 1896년에야 비로소

壁體工事が 대체로 完了하게 되었다. 内部工事까지 마치고 聖堂이 完成되어 聖程式을 올린것은 1898年 5月 29日 이었다. 着工한지 6年만에 이 亂工事が 完工을 본 것이다. 앞에서 말한것 처럼 벽돌은 自作自給이었으며, 그 모양은 20여種에 달하였을뿐 아니라 붉은벽돌과 회색벽돌의 二種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現今의 實際建物에서 觀察하건데, 窓를 部分과 内部 簇柱(Clustered Pier)의 角部, 建物의 隅部 等は 各樣으로 고안된 異形벽돌로 장식되어 있고, 一般壁體와 樓臺(Turret)=隅小塔等 要所는 붉은 벽돌과 회색 벽돌과를 区分 使用하고 있는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精巧하게 다듬어져 있는 것이다.

고딕樣式이란 本來 石造에 依하여 그 精巧함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 當時의 事情으로는 石造로서는 도저히 不可能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리 石造로 計劃하였던 内部의 기둥 마저도 벽돌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規模를 살펴자, 建物 總 길이 69m餘, 幅28m, 本堂 總 23m, 塔高 45m이다. 平面型은 라틴 十字型, 三廊式이고 樣式은 물론 고딕式이다. 面積은 454坪 主出入口(Narthex)部分에서 부터 그 天井 構造가 그로인·보울트(Groin Vault)式으로 되어있고 모든 窓은 硯軸 아아치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車輪窓(Wheel Window), 또는 장미창(Rose Window)으로 트레서리(Tracery)에 代身하고 있다. 内部도 네이브 部分과 아일 部分의 各 Bay 는 고딕의 精髓인 리브·보울트(Rif Vault)로 構成되고, 各窓은 스페인드·그라스로 장식되어 고딕적 空間을 빛어 내고 있다. 事實 이 聖堂의 内部는 外部보다 더 고딕적이다. 그것은 石材 아닌 벽돌로 지을 수 밖에 없었다는 構造上의 제약에서 오는 外觀의 比較的 빈약함 代身에 그것을 殼으로 하는 内部는 하나의 空間으로서 完壁할 수 있는 理由도 있었다.

실지 内部의 壁과 天井에는 벽돌면에 硯칠하고, 기둥과 리브만 素地대로 남겨 놓았음은 고딕적 手法이 아닐지는 모르나 고딕적 空間의 分朋氣를 살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이다. 한편 外觀을 더 빈약하게 하는것은 지붕에 이은 黑色 합석과 本堂 높이보다 比例的으로 낮아보이는 鐘塔이라고 생각한다.

3. 明洞 聖바오로 修女院과 保育院

明洞 聖 바오로 修女院과 保育院은 1880년부터 始作하여 1885년에 곤당골(美洞-現 乙支路)과 鍾路 동골(東谷-現 貫鉄洞)의 韓屋에서 교아와 양노사업에 전심하던 불랑(白) 신부는 그 事業의 發展을 위하여 修女들에게 맡길 것을 決心하여, 1887年 佛蘭西 샤르브르의 聖 바오로 修女院에 修女의 파견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88年 7월에 2名の 佛人 修女와 越南사이공에 있던 2名の 中國人 修女가 入國하였고 이를 계기로 지원한 韓國人 修女들과 함께 교아 구제사업을 맡게되어 같은 9월에는 곧

당골에 있던 고아 145명과 기타 30명의 고아를 鍾峴에 옮겨 本格的인 고아원을 始作했다. 그들은 韓屋에 收容하는 한편 1888년 부터 木造 單層과 二層의 建物을 着工하여 1889년 8월 5일에 竣工하였고 약 10년 後인 1897년 8월 부터는 修女院 및 保育院 建物을 벽돌 二層으로 着工하여 1900년 9월 8일에 준공하였다. 前者는 木造인 만큼 單純한 建物이었겠으나, 200명 가까운 고아를 收容하므로 작은 規模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後者の 修女院은 全坪 330坪으로 二層의 큰 規模의 建物로서 H型 平面이며 조오지안·스타일의 온건한 建物이다.

4. 貞洞教会와 梨花學堂

“洋屋의 教会堂을 着工한 것은 1895년으로서 同 9월 9일에 定礎式을 올렸다. 4년 동안의 工期를 거쳐 1898년에 竣工하고 同年 12월 26일에 獻堂式을 올렸다고 한다. 当初 坪數는 115坪이며 1926년 여름에 増築하여 現在 175坪인데 現存하는 (現 貞洞 34番地) 教会堂은 当初의 사진과 비교하면, 그 外觀은 큰 變動이 없다고 한다. 그것은 벽돌 단층으로 원래 平面上 聖壇部分에서 翼部를 내었던 것인데 増築時에 그 部分을 壁에 맞추어 側面으로 増築한 까닭이다.

즉 길이에 變動이 없는 것이다. 單純한 고딕 樣式을 取하고 있다. 이것이 韓國 新敎建築으로는 最初의 것이다.

宣敎師 스크랜튼 夫人이 貞洞教会를 세우면서 同時에 着工한 것이 梨花學堂이다. 梨花學堂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洋屋 校舍는 1896년에 着工하여 1900년에 준공을 본 “Main Hall”이다. 이는 二層 벽돌의 단순화한 고딕의 온건한 建物로서 口字型 平面에 下層과 二層 一部는 아이케이드로 뚫은 外에 別般 장식은 없고, 楣式窓과 窓쪽 아치의 窓을 섞어서 쓰고 있으며, 물매 急한 窗檣 지붕 등은 貞洞教会의 手法과 類似한데가 있다. 그러나 이 建物은 1950년 6. 25 事變때 파괴되었다.

V. 韓國 學校建築을 阻害하는 要因

1. 韓國 敎育思想의 構築을 阻害하는 西歐建築 樣式

우리가 原始時代로 부터 敎育思想을 分析해 볼때, 이것은 대단히 自然發生的인 價值觀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즉, 그 特定 어느 나라의 固有한 自然的 環境과 社会的 (人文的) 環境에 依하여 그 國民의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생각 理念 必要性, 目的 等等이 한데 모여서 形成된 價值觀이 곧 敎育思想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西洋 이나 韓國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西洋의 敎育思想은 무엇이며 韓國의 敎育思想은 무엇인가?

이들은 同一한 思想을 가졌을까? 아니면 同一한 思想을 가져도 좋은가?

위와같은 質問가운데서 여기서 論할 수 있는 것은 다만 「韓國 敎育思想이 韓國 敎育史를 通하여 構築되어오지 못했다는 事實을 상기할 때, 그 原因을 여러가지로 分析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西洋建築 樣式에서 그 原因을 찾아 보려는 것」 그것일 것이다.

앞에서 敎育思想은 國民들의 “價值觀의 形成”이라고 했다. 그리고 一般的으로 建築樣式에서 말할 때 建築 樣式은 그 國民의, 그 民族의 생각을, 理念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敎育思想”—“價值觀 形成” 國民의 생각 등 — 學校建築 樣式으로 表示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敎育思想은 곧 學校建築 樣式이 되는 것이다.

韓國 敎育思想은 分明히 우리 民族의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온 「弘益人間 思想」이요, 部分的이나 「3. 1 精神思想」 「光州學生思想」 등도 일컬을 수가 있다.

「弘益人間 思想」은 利他主義思想으로 좀 더 具體的으로 表現하면 儒敎思想이나 佛敎思想과도 共通되는 點이 몇 보 있다.

예를들면 「弘益人間 思想」에서 보면 自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에게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요, 사람을 아끼는 人文主義 思想이며, 온갖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世界主義 理念을 가진 思想이고 政治나 經濟 등 社會環境의 條件보다 먼저 人間을 생각하고 幸福을 회구하며, 시기나, 질투가 없고 파괴가 없는 人間 福利요, 平等을 주장하고 존엄성을 주장하는 思想이다. 特히 이러한 思想은 花郎道 思想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護國精神下에 모인 愛國運動團體이며 一種의 護國敎育運動團體인 花郎道는 남의 위에 있는 사람은 겸손하여 남의 아래에 앉을 것이고, 富豪로 사는 사람은 입을 때 겸소할 것이며, 勢力이 있는 者는 그 위엄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으니 「3. 1精神」 또한 이와 같다.

이러한 思想은 儒敎思想인 「삼강오륜」이나 佛敎思想인 「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通하는 思想이다.

어떻게 보면 東洋圈의 共通思想이라고 본다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와같은 人間關係를 通한 道理는 우선 個人—家庭—地域社會—國家—國際로 벌어가는 修練敎育思想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西洋敎育思想은 (다음 章에서 具體的으로 論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西洋建築 樣式을 說明할 수 있는 特徵만 說明하기로 한다) 原始時代부터 要略한다면 自然 (神)中心思想—絶對 神中心思想(基督敎)—人文中心 (人間本位) 思想—自然科學中心思想—社會生活 中心思想等으로 變遷되어 오면서 敎育思想을 장식해 왔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西洋의 教育思想은 東洋보다 価値觀이 광범위하고 教育 目的이 분파적이다.

따라서 東西洋의 思想은 根本적으로 出發點이 다를 수 있으며 동시에 이렇게 다른 思想을 나타내고 있는 建築樣式 또한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하여 西歐에서 부터 그들의 思想을 받아들였고 同時에 그들의 建築樣式을 받아들여서 지금에 이르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弘益人間 思想」을 變遷되는 社會實情에 相當한 形態로 構築 하기도 前에 西歐思想에 물두해 버리고 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기 까지 여러가지 方法으로 스며들기는 하겠으나 特別히 建築樣式을 通해서 위와 같은 경우가 빨리 생겼다고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인간은 物質的 環境에 가장 빨리 影響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思想 구축은 교사하고 서양건축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서구 사상화는 우리의 사상을 구축할 수 있는 잠정적인 가능성 마저도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說明하기로 한다.

우리의 弘益人間 思想을 구축할 수 있는 建築 樣式은 實際로 「弘益人間 思想化」해야 한다. 즉 「利他主義化」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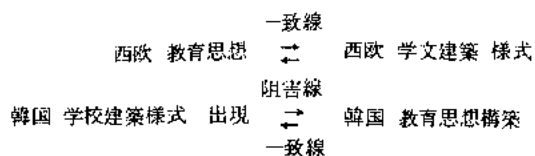
이러한 思想이 담긴 建築 樣式을 筆者는 「逆系線的인 建築樣式」이라고 붙여본다. 「逆系線的인 建築樣式」이란 命令線(系線, 또는 階層線)을 따라 내려오면서 量的으로 나 質적으로 크고, 好條件을 形成하는 樣式이다. 그러니까 校長이나 先生은 學生들의 房보다 작고 施設·設備가 單順하고, 學生들의 房은 先生의 房보다 크고 施設·設備가 具體적으로 建築되는 경우이고, 후배와 선배 사이도 선생과 학생 사이와 마찬가지로 말한다.

그러나 西歐建築 樣式은 이와는 反對이다. 따라서 西歐建築 樣式은 韓國 教育思想 構築을 阻害하고 있다.

2. 韓國 學校建築의 出現을 阻害하는 西歐 教育思想

앞에서 西歐建築 樣式이 韓國 教育思想의 構築을 阻害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그말을 계속 연결하면 韓國 教育思想의 構築에 阻害가 오니까, 그 結果 韓國 學校 建築의 出現까지도 阻害받으므로, 結局 阻害의 主要因(Original Factor)은 西歐 教育思想인 것이다(表參照).

〈表〉 西歐와 韓國의 學校建築 樣式과 教育思想과의 關係



그러면 여기서는 西歐 教育思想을 좀더 具體적으로 說明하기로 한다.

1). 古代 西歐 教育思想

原始時代에 原始人은 自然과 動物 그리고 神에 對하여 絶對的이었고, 이에 準해서 그들의 家庭生活의 哲學이 形成 되었으며, 特別히 家庭을 中心한 子女의 教育도 이러한 絶對的인 對象을 섬김으로서 生活의 위협을 예방조차 하는 巫敎가 그들의 지배적인 教育思想이었다.

이와같은 것은 韓國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古代 希臘·羅馬時代를 보면 하나의 都市國家를 形成하여 他國家와의 交易, 및 戰爭 등으로 國方을 지키기 위하여 國力을 튼튼히 할 수 있는 教育을 目的으로 教育의 軍國主義思想도 있었고, 또는 Athens와 같이 自然에 위협이 적은 都市國家는 民族的·民主的·自然的인 教育思想을 갖기도 했다.

어찌했든 古代는 陶冶理想으로 自然主義, 現實主義, 人文主義, 教育思想이 그 特徵이었다.

2). 中世 西歐 教育思想

그러나 中世에 와서는 宗教思想이 곧 教育思想 이었다. 이때는 基督教을 中心하여 來世主義의 教育思想을 지녔다.

이와같은 思想을 土臺로한 中世의 教育은 古代人들이 要求했던 人間의 調和있는 人格의 陶冶를 理想으로한 教育과는 判異한 것이었고, 禁慾主義의 이요, 體育를 輕視하고 忍耐와 辛苦를 中心으로 한 忍苦精神을 重視하였다. 그리고 古代 教育 思想은 神中心 主義였으니, 自然을 中心으로 하여 兒童의 人格調和의 發展을 가진 思想으로 多方面으로 兒童의 興味를 傾注하며 하였다. 이에 反하여 中世의 教育은 오로지 兒童의 心意의 發達은 神을 中心으로 하여 그의 思考를 一方的으로 志向시켰다. 神을 尊敬하고 神을 믿고 神에 服從하는 것에 全力을 集中 하였다. 神을 中心으로한 敎敎主義 敎授方法이 자리를 차지하였다. 敎授는 엄격히 감독되고, 基督教과 關係없는 學問은 유해한 것으로 排斥되고 自由研究는 認定되지 않았고, 神과 敎會와 寺院에 忠實한 것만이 容納되었다.

또한 古代 希臘의 教育思想은 人文主義를 土臺로한 理性的 陶冶를 重視하며 理智를 所重히 여기었던 一種의 主知主義이었다. 中世의 教育思想은 神에 對한 絶對的인 服從을 土臺로한 主情主義이다. 兒童의 宗教的 情緒의 陶冶가 中世教育의 뚜렷한 目標이었다.

家庭教育도 學校教育도 社會教育도 神에 對한 敬虔한 心情을 涵養시키는 使命이 있었다.

이는 希臘·羅馬의 古典文化에 依하여 自由教育의 思想이다. 이러한 自由教育의 思想은 中世教育的인 形成과 不自然에서 離脫된 豐富한 內容을 가지게 되어 希臘·羅馬教育의 內容을 復活시켰다.

中世에서 武士教育의 內容을 제외 하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體育이 새로이 중시되었다. 강건한 신체와 전전한 정신의 조화있는 발달이 요청 되었다.

일상 생활과 현실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思想은 希臘 教育思想家인 Socrates, Plato, Aristotle 등이 주장했고, 羅馬時代에 와서는 Cicero, Quintilian 등과 같은 學者들이 계승하였다. 이 思想은 超自然的 超現實的, 禁慾的인 것을 重視하는 基督教內 教育思想에 背馳된다. 또한 이 思想은 物質的 이익만을 바라보며, 經濟的, 이해타산만을 생각하는 生活에 구속된 극단의 實利主義와도 反對된다.

이리하여 中世의 超現世主義, 來世主義의 陶冶 思想은 古代와 對立되어 전혀 새로운 人生觀 내지 世界觀을 만들고 中世의 特殊한 教育思想을 形成하였다.

3). 文芸復興期の 西歐 教育思想

그 후 文芸復興期에는 그 教育思想이 人文主義(Humanism) 혹은 人道主義라고 본다. 즉 人間的이라 함은 사람을 사람답게 教育하고자 하는 教育思想을 다시 주는 道義教育이 요청되며 자연의 美와 人間의 美를 認證하려는 文芸運動은 예술, 정서 등의 교육, 문학감상을 부흥시켰다. 이러한 調和있는 多方面的 教養이 人間이 가져야 할 美德이며, 人文主義者가 力說한 것과 같이 덕의 학습과 教養은 人間이 가지는 고유한 것으로 自由教育思想을 설명할 수 있다.

4). 宗教改革 時代의 西歐教育思想

自然의 自覺을 原動力으로 한 文芸復興의 大精神은 漸次로 人間의 知識의 비판적 精神을 길러왔고, 이는 宗教의 腐敗와 墮落을 攻擊하는 날카로운 眼鏡으로서 마침내 宗教改革을 일으키게 되었다. 즉 로마교회의 주장을 最高 唯一한 真理로 삼던 基督教의 腐敗性을 改革하고 참된 信仰이란 僧侶라든가 教會의 贖罪符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하느님 사이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믿음에 있다는 것을 強調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인 聖書의 尊嚴性을 부르짖게 된 것이다. 이를 要略하면 사람은 信仰에 依해서만 하느님 나라에서 生存할 수 있다. 聖書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이며 直接 사람에게 神의 路程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굳은 信念에 立脚하여 良心의 自由와 理性의 權威를 高唱하여 羅馬教會의 敎權을 輕視한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自由와 理性의 權位를 強調하는데서 自我의 自覺運動인 文芸復興의 精神이 赫赫하게 나타나 있다.

5). 實學主義·自然科學 時代의 西歐 教育 思想

그後 17世紀의 구라와는 科學의 意義와 實際性의 價値를 認定하게 되었고 이를 軍事와 醫藥에 應用하게 되었다.

教育도 自然科學과 손잡고, 宗教的, 政治的 自由와는 새로운 理論을 받아 드리게 되었다.

哲學 科學 現代語의 發展으로 教育은 實學主義의 경향으로 지향하게 되었다.

Bacon, Locke, Descartes 같은 哲學者, 科學者가 나타나서 科學의 重要性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學校는 낙관주의적 태도로 教育, 社會自体와 밀접한 關係를 맺게 되었든 學校는 產業教育·職業教育을 지지 하였다. 이때까지 學校는 말과 概念을 다루어 왔으나, 實物教材와 연장을 소개하고 貿易과 商業을 學生에게 가르쳤다.

實學主義의 教育은 實用性과 實踐性을 갖춘 具體的 知識이라든가 實際的 職業的 技術이라든가 文學的인 것이 아니라 商業과 外交에 必要한 言語라든가 政治, 法律, 自然科學 같은 것을 重視하게 되었다. 實學主義가 發達함에 따라 教育은 文學과 美術을 目的으로 삼던 古典中心 教育을 부정하고 自然科學과 技術教育을 重視하며 實生活에 適合한 實學教育을 肯定하였다.

6). 啓蒙時代를 中心한 西歐教育思想

18世紀에 와서는 中世以後의 傳統·社會制度·人生觀·世界觀이 文芸復興 및 宗教改革의 試驗을 받고 새로운 方向으로 움직이든 時代였다. 指向하는 새로운 路程이 過去의 弊狀을 一掃하고 近代의 새 文化와 새 思想을 建設하는 社會의 터를 닦았다. 낡은 因習과 傳統은 理性에 비추어 비판하고 事物을 科學的 方法에 입각하여 觀察하며, 人間生活을 合理的으로 營위하고자한 時代이다.

18世紀 當時의 사람은 구라와의 絶對主義의 政治體制, 구속된 經濟組織 엄격한 階級制度, 宗教的 權威主義 비 과학적 人生觀 및 世界觀을 무자비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불만과 弊狀을 일소하려면 啓蒙思想은 理性의 啓發과 科學의 合理性을 토대로한 時代的 使命으로 나타났다. 科學의 運動이 世界自然을 對象으로 하는 것에서 옮겨서 人間自体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 되겠다.

18世紀 教育思想의 特色은 現實的으로 實科教育을 重視하며 科學置重教育을 그리고 自然으로 기울어져 이 事상을 合理的인 것으로 지향하였다. 自然의 길로 쫓아가는 것은 人間性의 길로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理致라고 주장한 것을 Pestalozzi에서 볼 수 있다. 自然的 直觀的 教育은 理性을 토대로한 教育이다.

그리고 自然的 教育을 合理的인 教育으로 삼았다.

18世紀의 教育思想은 社會的 俸仕의 時代이다. 이때에 貧民 學校 特殊學校 등이 생겼다. 18世紀 에는 社會的 啓蒙思潮가 國家를 發展시키고 同時에 教育을 國民的 大衆主義로 이끌어 주었다. 이 때에는 教會와 國家는 分離되어 學校는 國家가 管理를 하였다.

7) . 19世紀의 教育思想

19世紀의 教育思想은 一般國民의 義務教育化, 對象教育, 國家主義의 發達을 가져 왔다. 國家는 富國이 되고, 強兵을 所有하기 위하여 知的 道德的 肉體的으로 造和있게 訓練을 받은 個人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보통 敎育을 실시하고 자기나라의 國民의 敎育 水準을 向上시키려는 운동이 各國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敎育을 관리하고 國民의 敎育을 책임지며 수업로도 받지 않고, 兒童을 통학시킬 수 있는 公立學校를 주장하고 義務敎育을 주장하기에 이르렀고 이때에 複선형 敎育 제도가 생겼다.

VI. 結 論

以上에서 보았듯이, 學校建築 樣式은 敎育思想을 構築하는 것이며, 同時에 敎育 思想은 學校建築 樣式을 出現시키는 關係를 갖고 있다.

이러한 思想과 樣式の 關係는 前者가 內的인 位置에 있다면 後者는 外的인 位置에 있음을 筆者는 本研究結果에서 시사점으로 던지고 싶다.

現 韓國 學校建築 樣式은 歷史的으로 볼 때 近世初期를 起點으로 始作하여 西歐 學校建築 樣式の 變型이요, 그 속에서 韓國 國民은 敎育法에서 分明히 明示된 敎育目的인 弘益人間 思想을 涵養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現在 學校建築 樣式과 弘益人間 思想을 앞에서 말한 樣式과 思想의 一致라는 前提에서 놓고 볼 때 逆關係라기 보다는 서로 異質的인 兩者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關係속에서는 國民에게 어떤 敎育思想도 涵養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異質的인 樣式속에서는 심어져 있던 敎育思想마저도 말살되는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筆者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課題를 本論文에서 建築史的 整理를 통해서 研究를 하였던 것이다. 즉 課題 첫째는 西歐의 建築樣式の 變型과 韓國 敎育 思想인 弘益人間 思想은 서로 異質的인 關係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둘째로 韓國 敎育思想인 弘益人間 思想과 一致하는 韓國 學校建築 樣式的 出現도 可能하지 않겠는가? 셋째로, 그러면 現存하는 西歐 建築樣式的 變型과 並存하는 西歐 敎育思想과는 이들이 어떤 關係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提示한 「西歐와 韓國의 學校建築 樣式과 敎育思想과의 關係」를 얻었으며, 同時에 우리의 弘益人間 思想의 變型된 時代의 特徵을 中心으로 한 思想이 왜 構築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은 그간 外來思想의 導入을 그 原因으로 보고 있다, 단 近世以前의 韓國敎育 思想은 存在했으나 이것은 東洋의 儒·佛敎 思想으로 우리의 弘

益人間 思想과 相通하는 點이 많고보니 즉 弘益人間 思想이나 儒敎思想이나, 또는 佛敎思想은 모두 個人의 修身에서 出發하며 그 수신은 家庭—社會—國家—國際로 까지 그 指導力을 펼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近世를 접어 들면서 이와는 전혀 다른 西歐의 宗教的 人文的 科學的 社會的인 思想이 혼합되어 導入되었다. 물론 이러한 思想을 배척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思想的으로나 樣式面에서 너무도 주체성이 없고 자주성이 없으며, 남의 것을 무조건 내 것처럼 잘못 소화하다가 보면 스스로 자기의 敎育사상을 말살시켜버리는 結果가 무서운 것이니 자칫 잘못하면 자승자박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우리의 敎育思想은 우리의 學校建築 樣式을 出現시켜야 하겠으며 우리의 學校建築 樣式的 出現을 위해서 現 西歐 建築 樣式 가운데 이에 阻害를 주는 主要因을 빨리 제거 작업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洋 書〉

1. Alfred Roth. The New School, N. Y. ; Frederick Praeger, 1957.
2. Basil Castaldi. Creative Planning of Educational Facilities. N. Y. ; Rand McNally & Co., 1969.
3. Edgar W. Knight. Education in the U. S., (3rd ed.), Boston; Ginn and co., 1951.
4. Ellwood P. Cufferley. The History of Education, N. Y. ; Houghton Mifflin Co., 1948.
5. Erika Brodner & Immanuel Kroeker. Schulbauten, München; Verlag Hermann Rinn, 1971.
6. Malcolm Seaborne. Primary School Desig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71.
7. Patrick McCormick & Francis Cassidy. History of Education, N. Y. ; Catholic Education Press, 1953.
8. R. Freeman Butts. A Cultural History of Education. N. Y. ; McGraw-Hill Co., 1947.
9. Russell Sturgis. History of Architecture. N. Y. ; Doubleday, 1916.
10. The Gospel in All Lands for 1888.
11. The Korean Repository. Vol. 1. No. 3. 1882.
12. William A. Smith. Ancient Education. N. Y. ; Philosophical Library, 1955.

〈韓 書〉

13. 高雨史(卷74), 学校考.
14. 朴相萬. 韓國教育史(上). 서울:大韓教育聯合會, 4291.
15. 朴俊熙. 韓國人의 教育觀, 서울:実學社, 1975.
16. 培材史, 1955.
17.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第8), 神文王二年.
18. 申榮勳, 韓屋과 그 歷史, 서울:東美文化社, 1975.
19.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서울: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20. 柳宗悅, 朝鮮文芸術(朝鮮力木工品項) 參照).
21. 尹一柱, 韓國·洋式建築 80年史, 서울:治庭文化社, 1972.
22. 尹張燮, 西洋建築史, 서울:文運堂, 1973.
23. 尹張燮, 韓國建築史, 서울:東明社, 1974.
24. 林漢永, 教育思想史, 서울:修文閣, 1958.
25. 李萬珪, 朝鮮教育史(上), 서울:乙酉文化社, 1947.
26. 鄭寅國, 韓國建築樣式論, 서울:一志社, 1974.
27. 鄭寅國, 現代建築論, 서울:治庭文化社, 1970.
28. 鄭忠良(전), 梨花七〇年史, 서울:梨大出版部, 1957.
29. 鄭忠良(전), 梨花八〇年史, 서울:梨大出版部, 1967.

新刊

韓國建築史大系 V 建築과 文樣上 卷

新羅의 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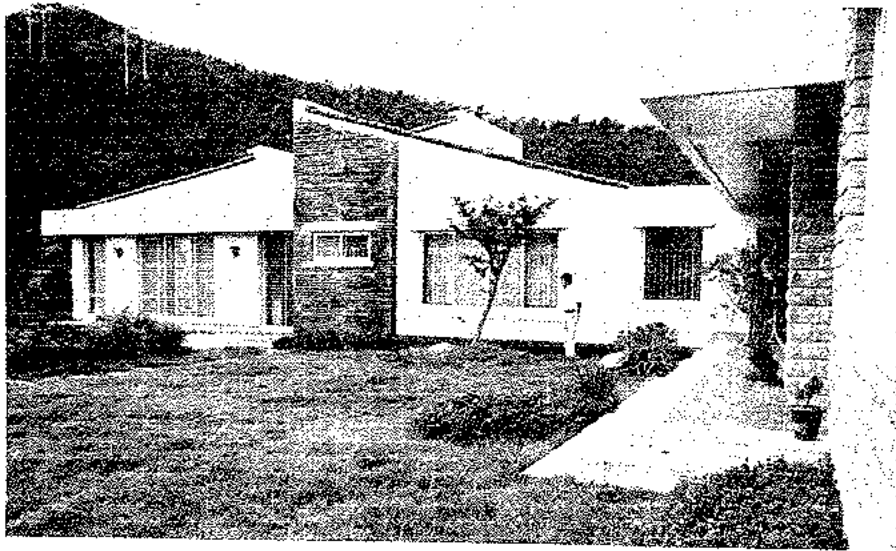
注意: 이책에 실린 圖版을 資料나 挿圖로 이용하는 일은 장려되나 하지만 이것으로 刊行物을 어떤 형태로든 꾸미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값 6,000원

連絡處: 東山文化社 76~76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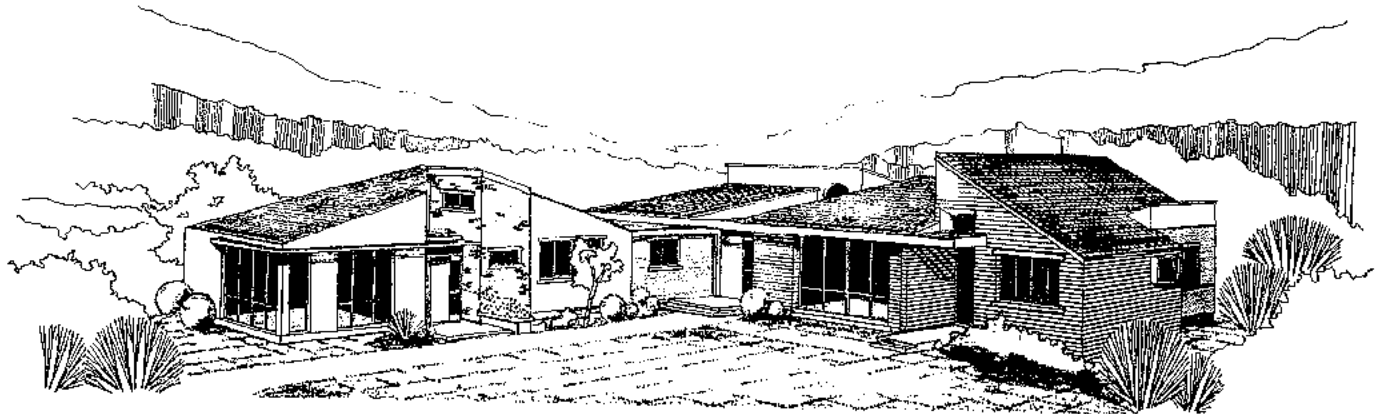
会員作品





“K 氏 住宅”

설 계 : 유 규 성 (임양건축연구소)
 감 리 : 유 규 성
 위 치 : 경기도 안양읍 석수동
 대 지 면 적 : 1,485M² (450평)
 연 평 건 : 269.90M² (81.78평)
 구 조 : 연 와 조
 준공년월일 : 1975년 11월 15일



투 시 도

“設計 포인트”

公需을 피해 서울을 살짝 벗어나 자리를 잡은 이 주택은 먼저 무엇보다도 휴식을 目的으로 垺地를 선택 하였고 또한 여유 있는 垺地 위에 單獨으로 設計하여 보다 韓國的인 風習을 고려하여 生活의 空間構成을 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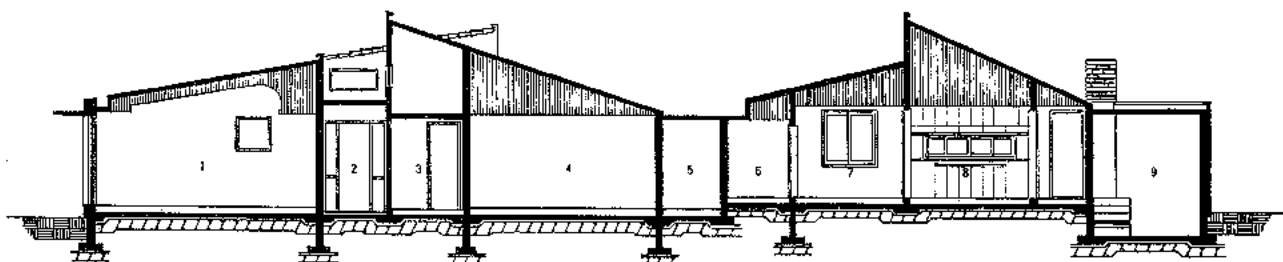
아버지와 아들의 2世代가 한지붕 아래서 살면서도 生活空間은 完全히 分離시켜 독립된 생활 감정을 갖출 수 있도록 한 住宅의 設

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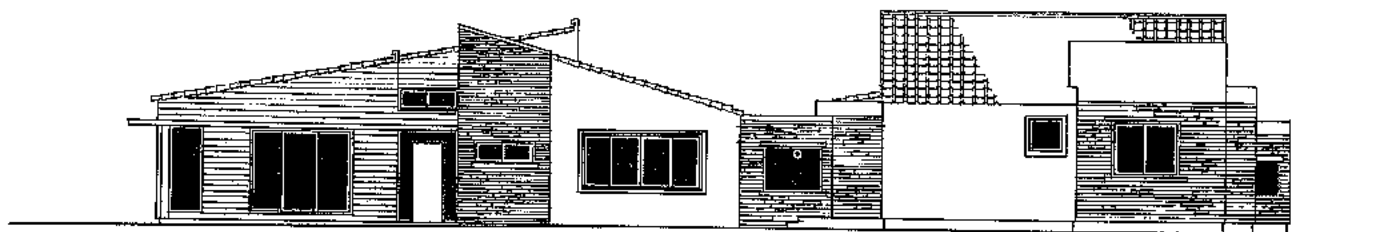
세-비스 空間인 부엌과 食室은 함께 設계되어 있지만 煙과 거실은 별도로 分離 하였고 복도로써 연결점을 해결 하였다.

지붕의 기와는 청색 S기와를 입혀 우아한 맛을 엿보였고 정원은 잔디 정원에 개울 같은 연못을 두어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내어 보다 휴식의 한 要素를 갖추어 더욱 휴식을 目的으로 지어진住宅이라는 인상을 줄으게 하여 본 집이다.

1. 오락실
2. 현관
3. 욕실
4. 할아버지방
5. 복도
6. 창고
7. 가정부방
8. 주방
9. 보이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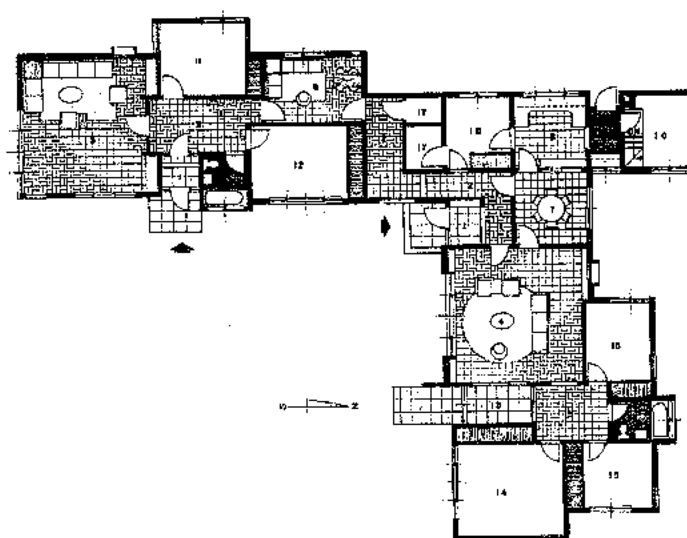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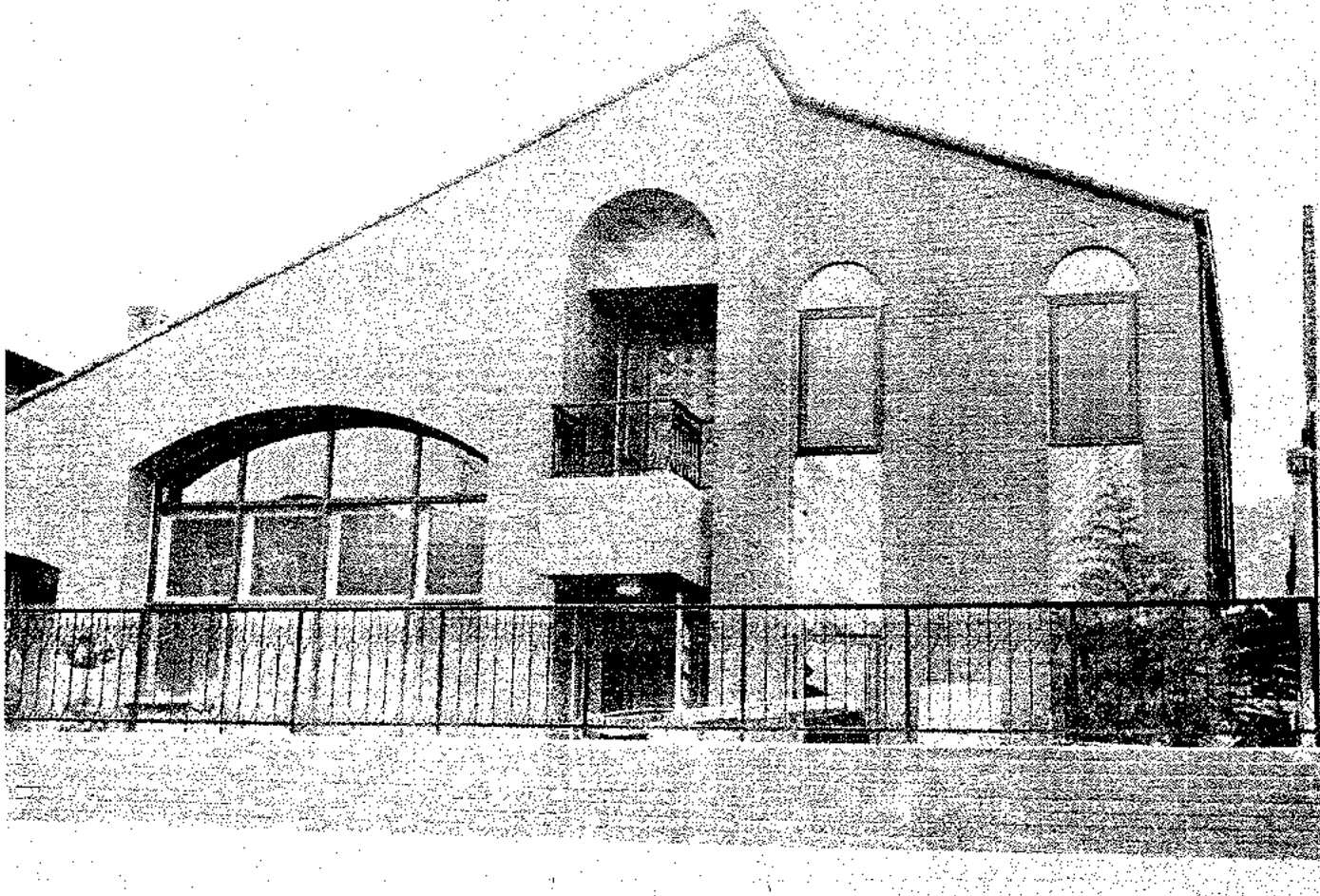


측면도

1. 현관
2. 복도
3. 욕실
4. 거실
5. 오락실
6. 간이식당
7. 식당
8. 부엌
9. 다용도실
10. 보이라실
11. 객실
12. 할아버지방
13. 온실
14. 안방
15. 어린이방
16. 욕실
17. 창고
18. 가정부방



평면도



윤씨 주택

설 계 : 김영기 제 3 건축연구소

담 당 : 문상철 · 정운승

위 치 : 성동구 구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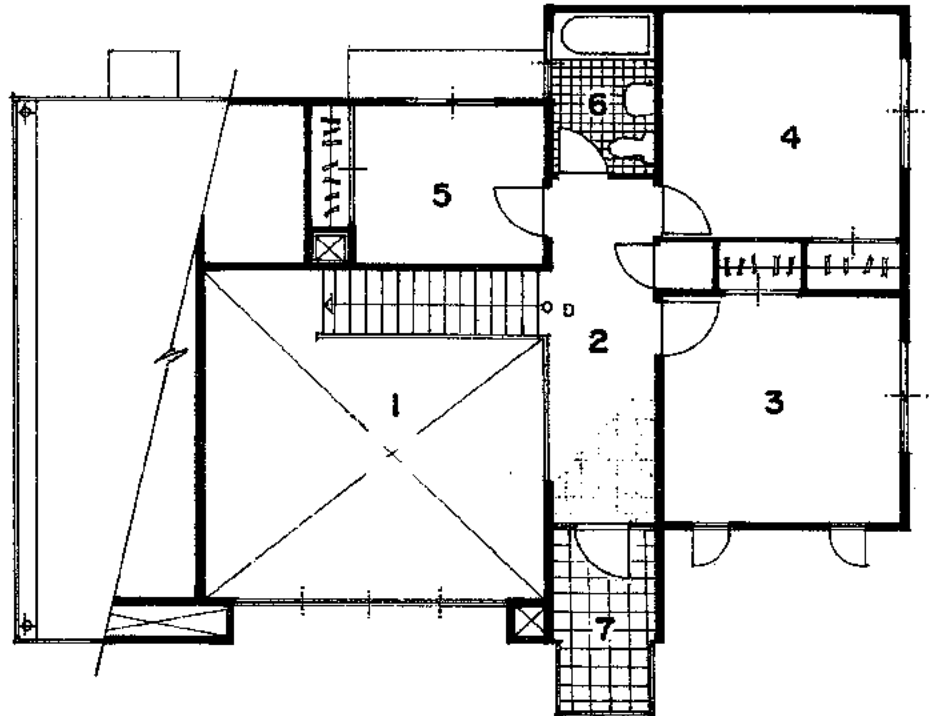
면적 : 48평

구 조 : 연와조

마 감 : 벽, 화장벽돌 · 지붕 · 스페인식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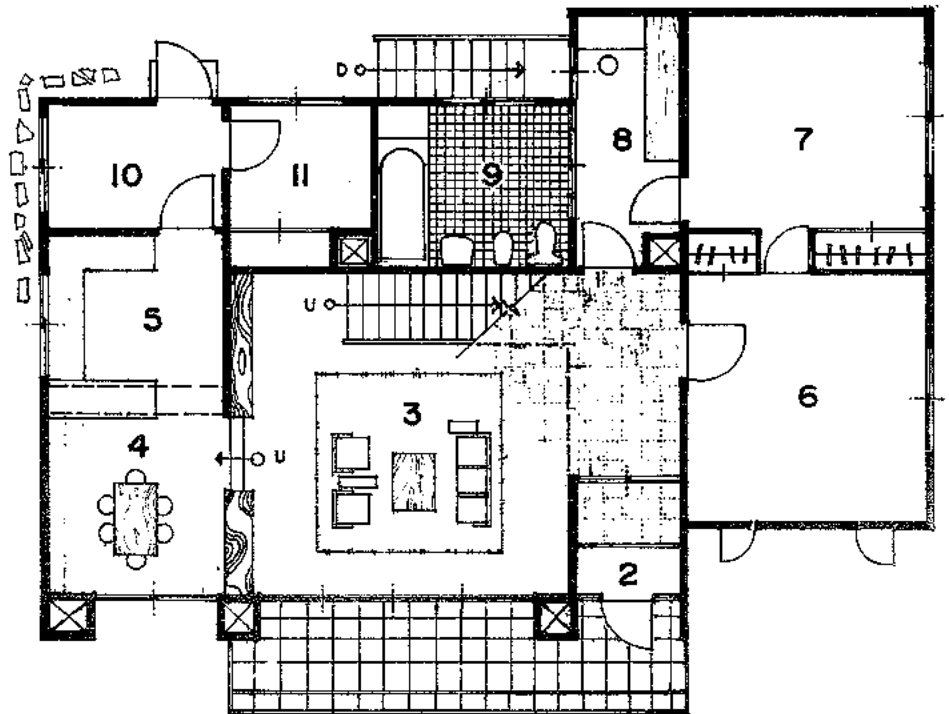


1. 거실상부
2. DECK
3. 침 실
4. 침 실
5. 침 실
6. 욕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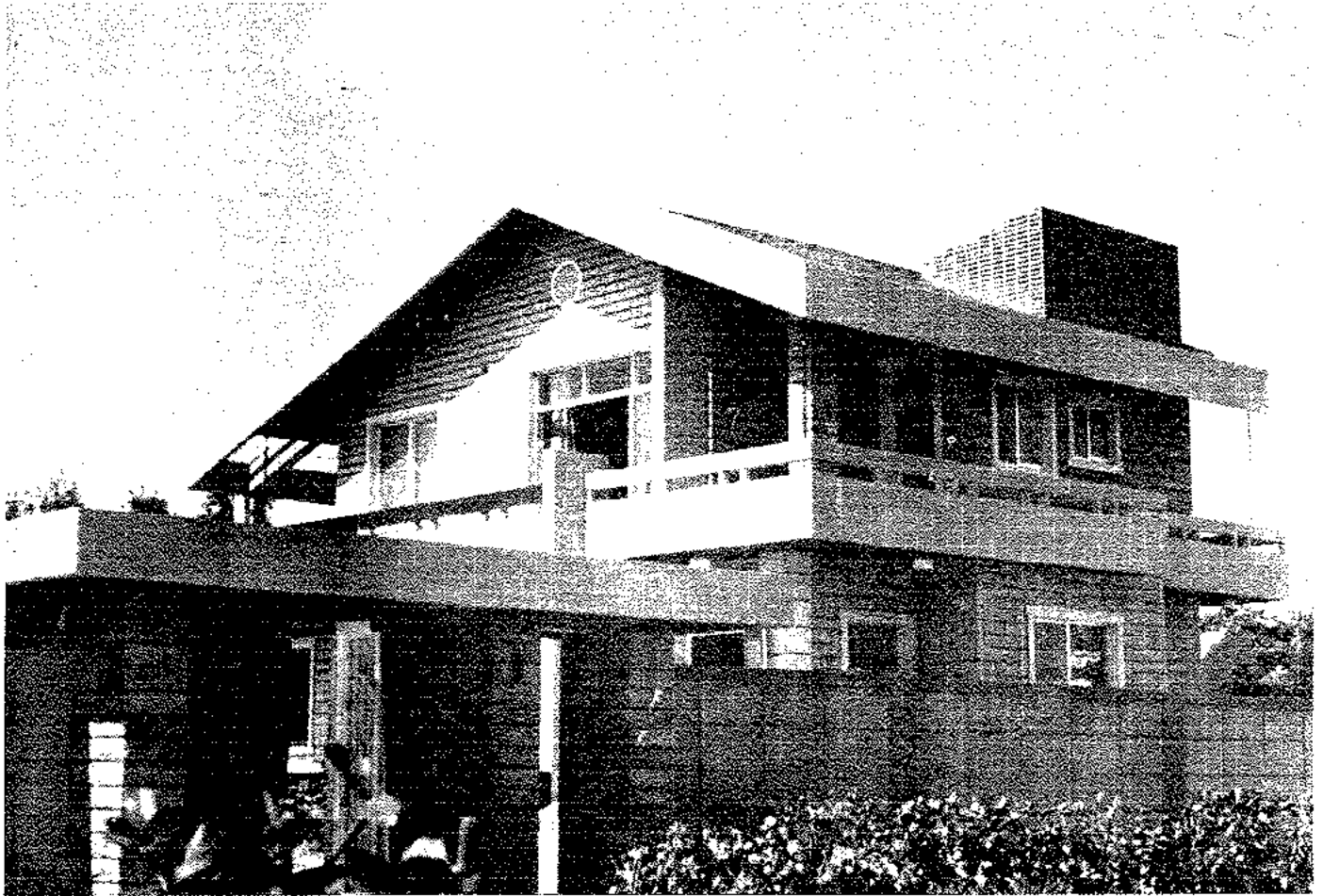


2층평면도

1. 대 문
2. 현 관
3. 거 실
4. 식 당
5. 주 방
6. 침 실
7. 침 실
8. 탈 의 실
9. 욕 실
10. 다용도실
11. 가정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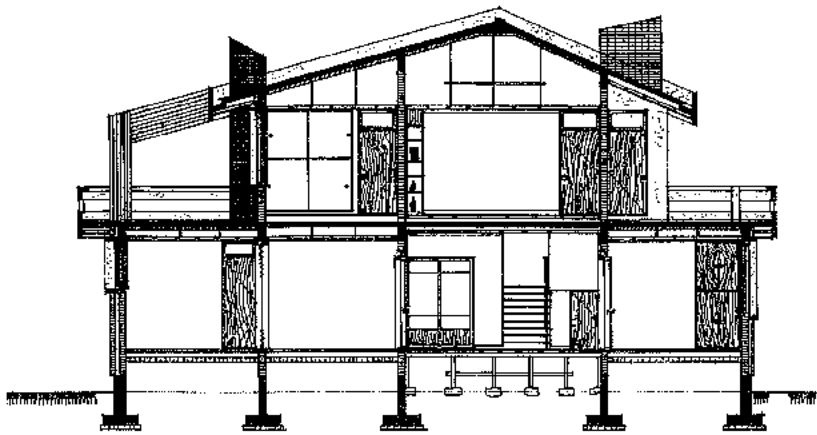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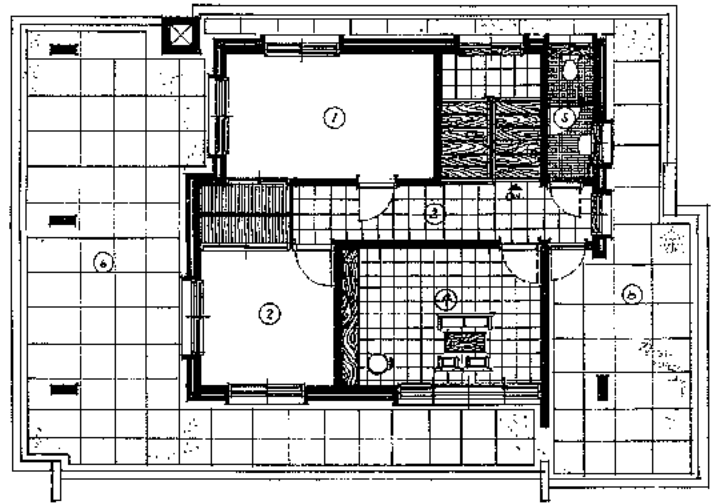


- 설 계: 강 은 홍 금성종합설계공사
- 위 치: 제주도남제주군서귀읍서귀리
- 대 지 면 적: 339m² (103 py)
- 건축면적: 1층 103.7⁹m² (31.4py)
 2층 63.8⁴ (19.2py)
 지 층, 9.6⁸m² (3.0py)
 연면적, 176.9²m² (53.6py)
- 구 조: 조 적 조
- 총 공사 비: 14,000,000원
- 착공년월일: 1945년 8월 2일
- 준공년월일: 1975년 12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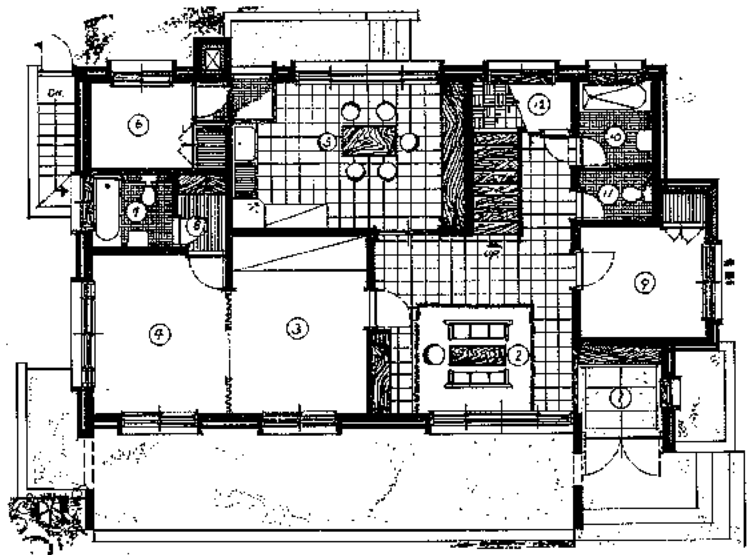


단면도



2층평면도

- | | | | |
|---|---|---|---|
| ① | 현 | 관 | 출 |
| ② | 거 | 실 | 실 |
| ③ | 한 | 주 | 방 |
| ④ | 양 | 주 | 방 |
| ④ | 식 | 주 | 방 |
| ⑥ | 식 | 모 | 실 |
| ⑦ | 주 | 인 | 방 |
| ⑧ | 탈 | 의 | 실 |
| ⑨ | 화 | 생 | 방 |
| ⑩ | 욕 | 장 | 실 |
| ⑪ | 화 | | 실 |
| ⑫ | 창 | | 고 |



1층평면도

J 씨 주택

설 계 : 안 기 태 (동화건축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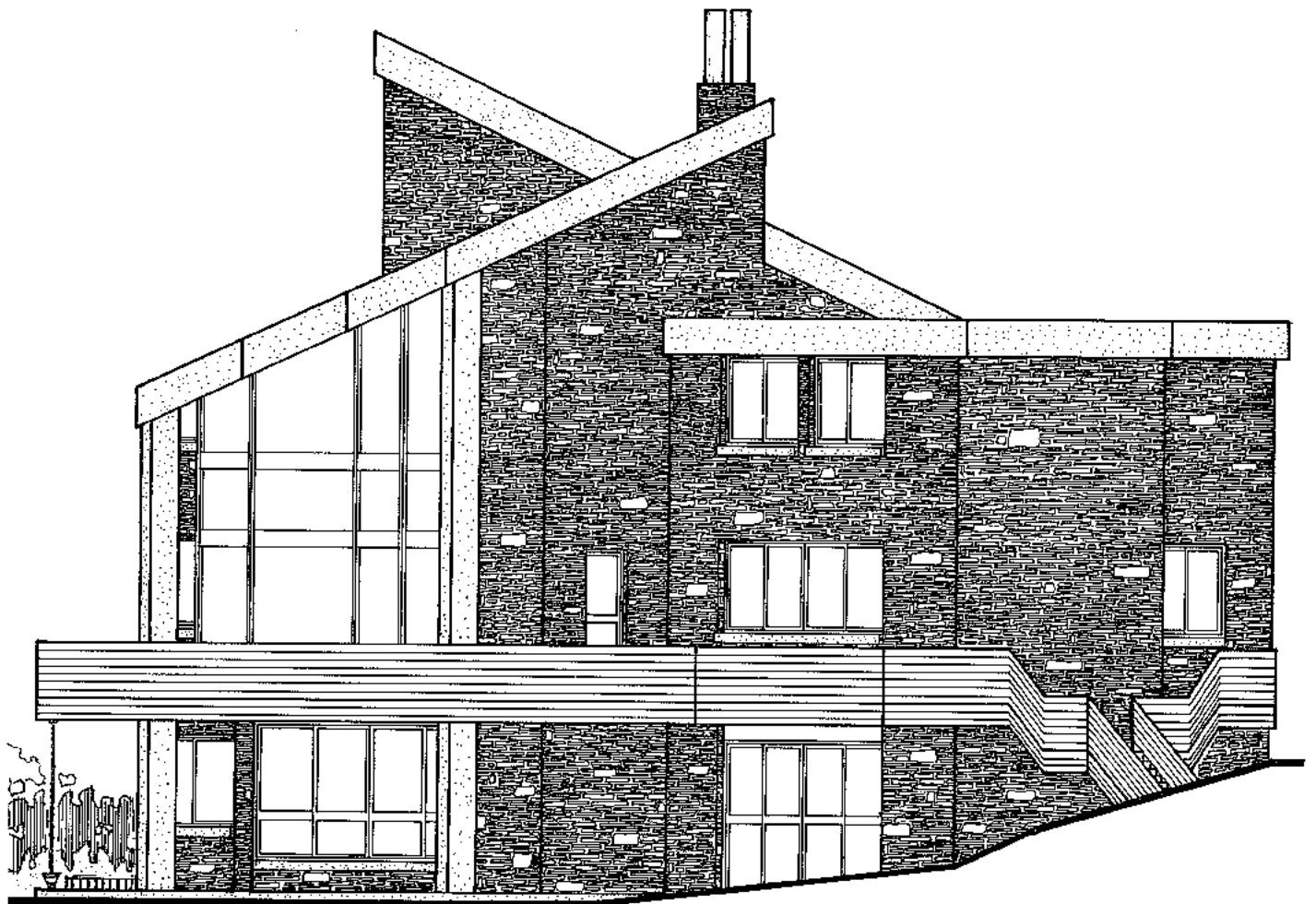
나 상 기

실내장식 : 문 신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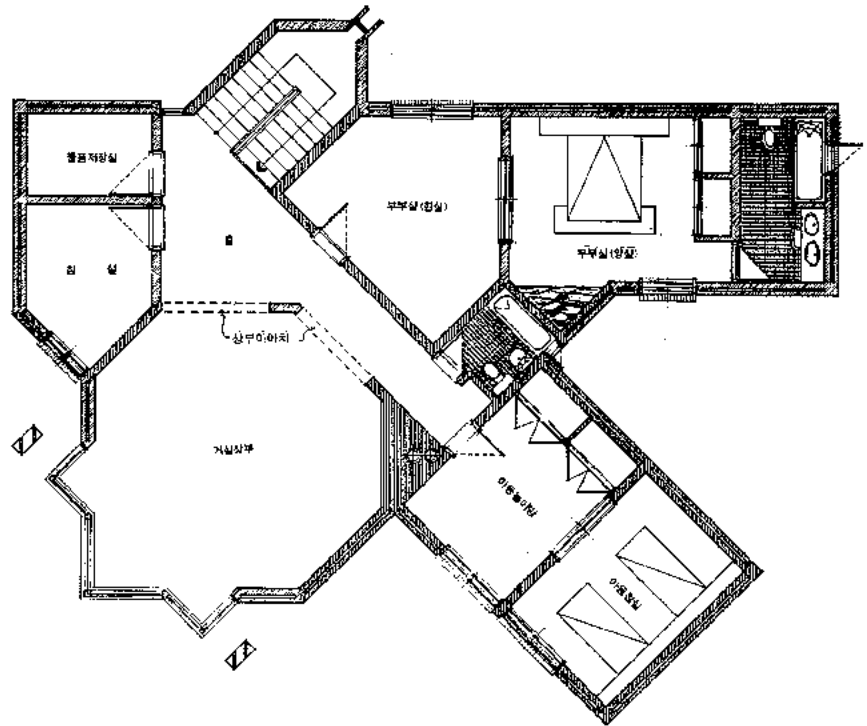
건물면적 : 연 360m²

구 조 : 조 적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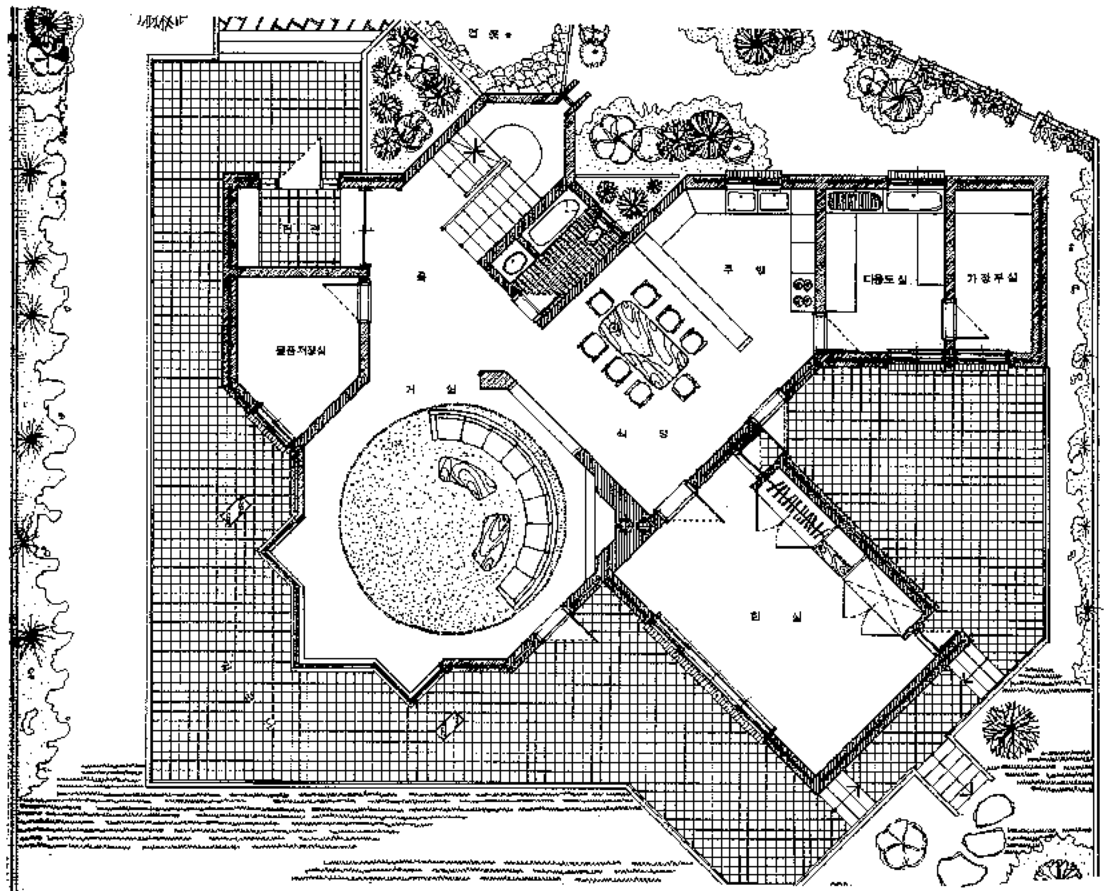
외 장 : 온양석 및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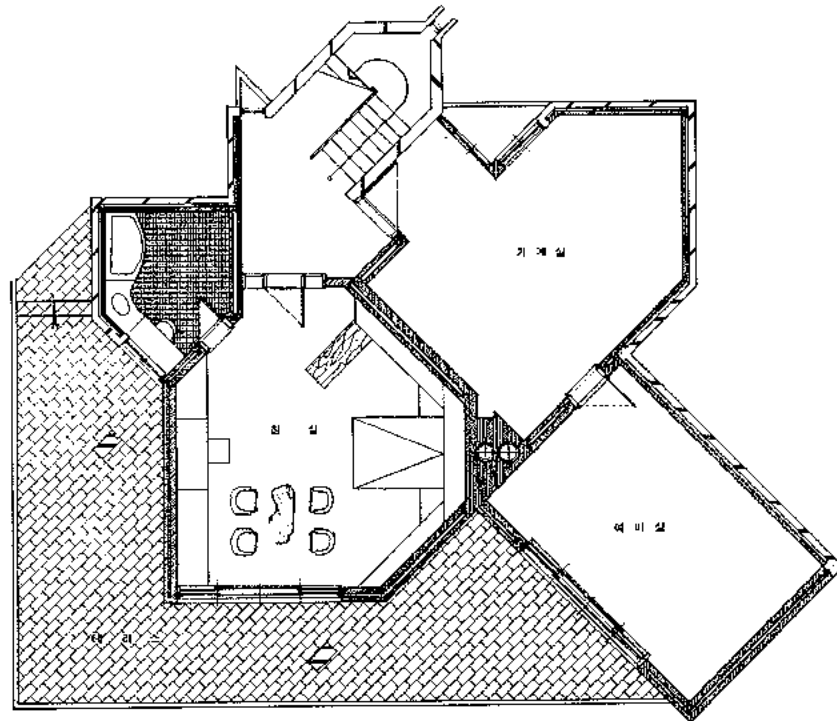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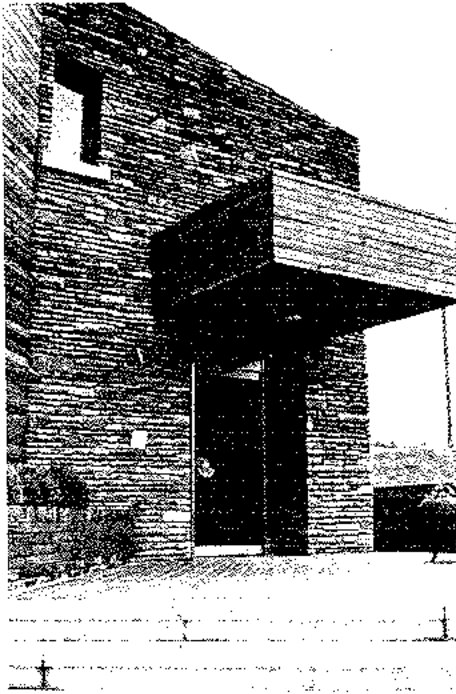
정 면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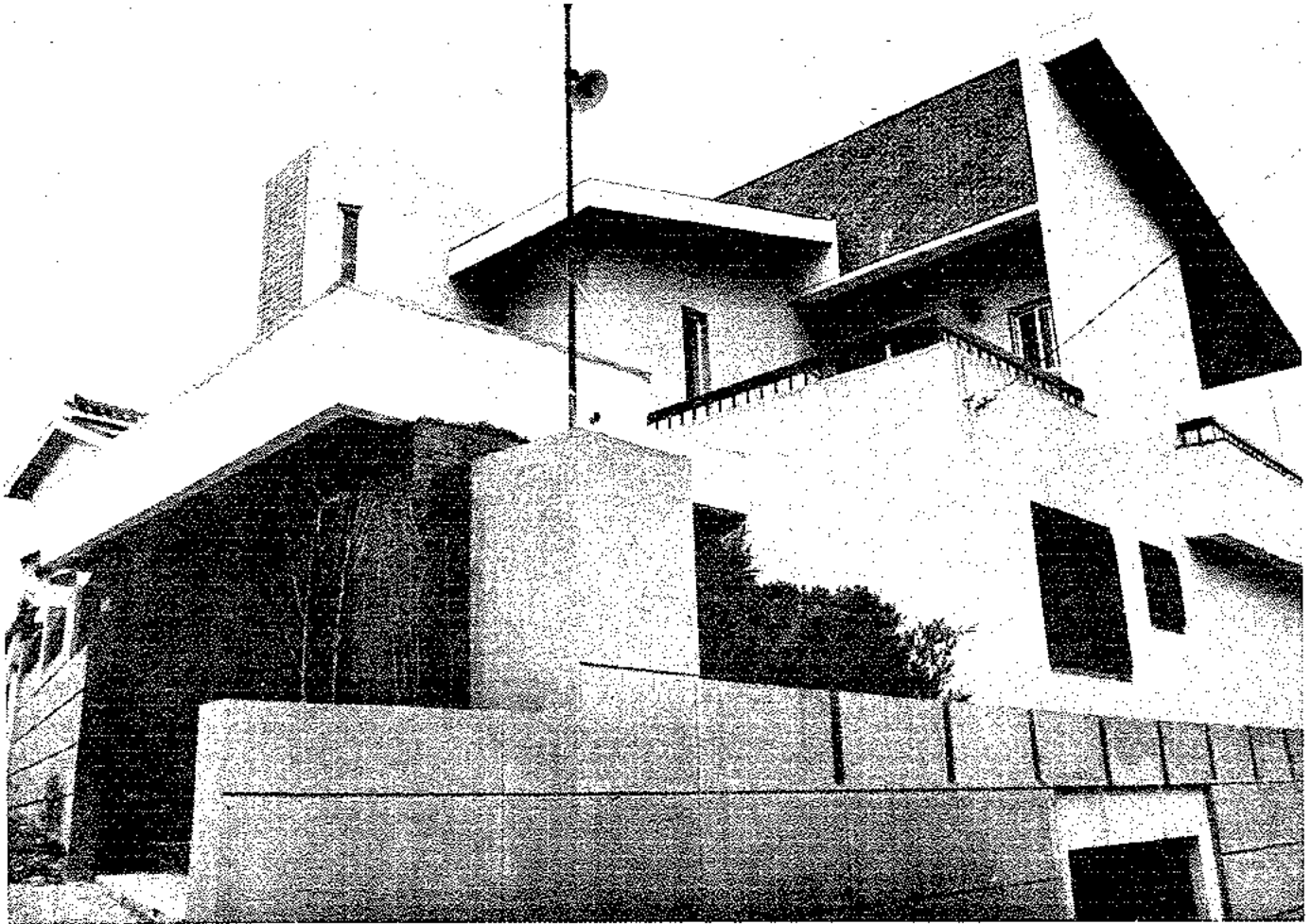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중곡동P 씨댁

설 계 : 도시건축공사
대표 이 기 범

위 치 : 성동구 중곡동
대지면적 : 429.00 (130평)
건축면적 : 지층 23.00 (7평)
2층 99.00 (30평)
2층 42.00 (13평)

연면 적 : 165.00 (50평)
구 조 : 조적조
공 사 비 : 평당 2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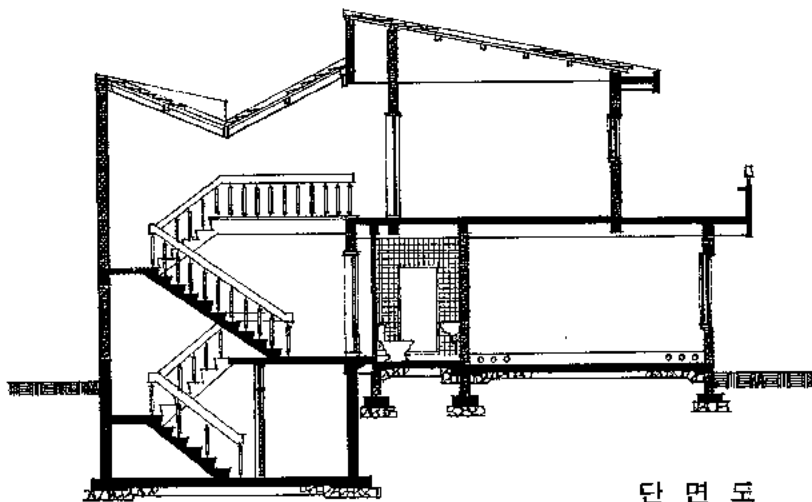
설계개요 :

중곡동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대지로서 작은대지는 동서측으로 길어야 하나 대지가 클수록 남북측으로 길어야 되는 조건에 알맞게 하기 위하여 기존의 두필지를 합쳐 우선 대지로써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을 만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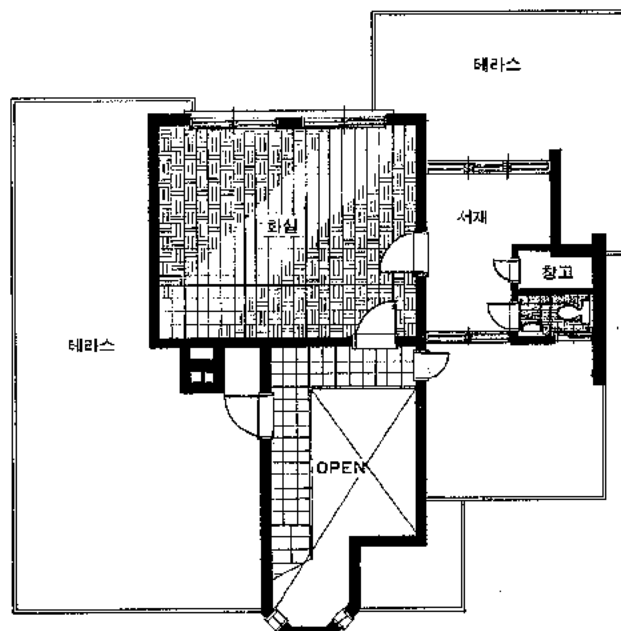
북쪽에 평면을 배치하고 MAIN ENTRANCE도 북쪽에 위치함으로 흔히 남쪽에 대문이 있으므로 생기는 정원의 비독립성을 방지하고 정원과 DATIO의 PRIVACY를 완전히 살렸다. 고로 보는 정원이 아니고 사용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정원이 되도록 하였고 거실 앞 테라스 바닥과 잔디와의 차이를 45cm로 하여 고저차를 최소로 줄였다.

특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식사할수 있도록 식당을 남쪽에 두었고 식당과 거실을 개방시켜 공간을 넓게 보이도록 하였으며 능률적인 낮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각실의 독립성을 어느정도 강조하였으며 채광·통풍·전망에 주안점을 두어 설계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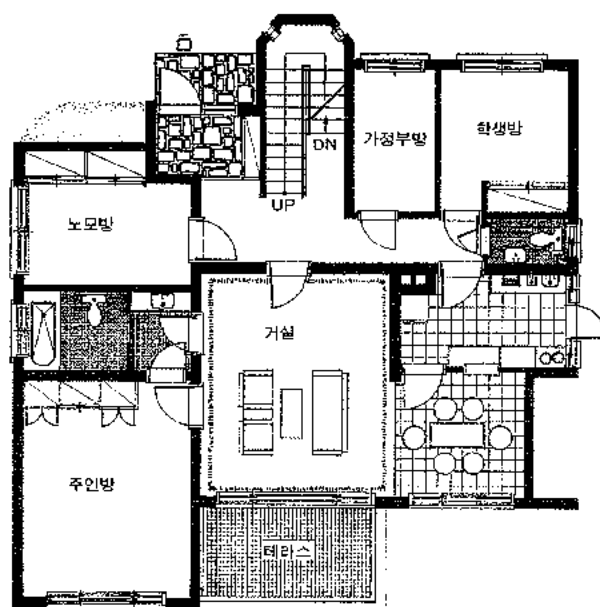




단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수원시외버스 종합 터미널

홍철수 한국건축 문화연구소 대표

설 계 : 서 용 재 · 지 경 환

감 리 : 한국건축 문화연구소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 : 본타일 코팅

내부마감 : 수성페인트

위 치 : 수원시 매산로 1가 2-8

대지면적 : 2,609평

승 차 장 : 8,610m²

조 차 장 : 400m²

하 차 장 : 850m²

주 차 장 : 240m²

건 평 : 3,5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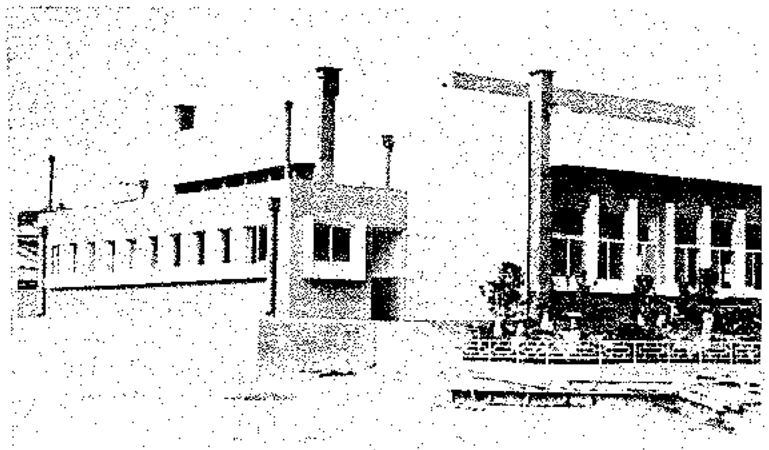
본 건 물 : 862.5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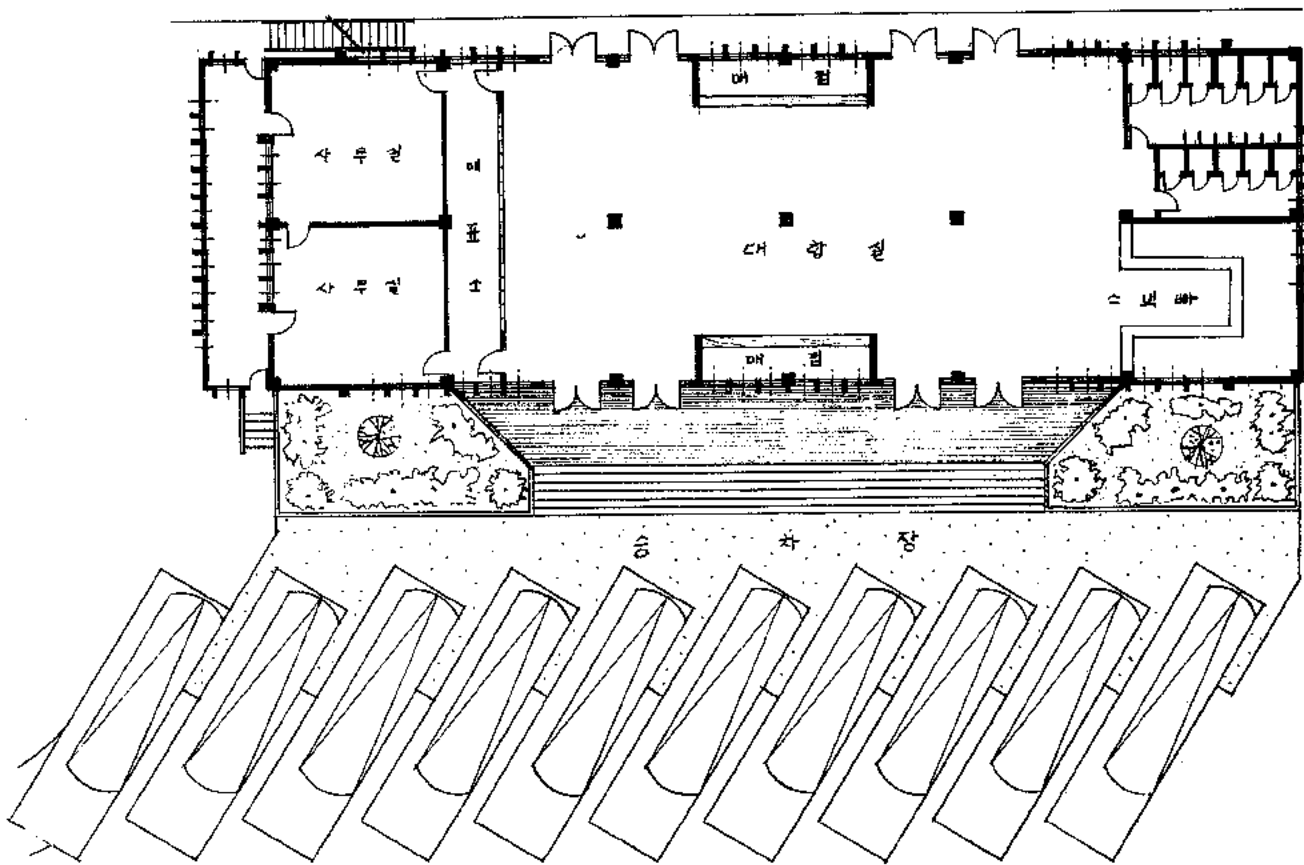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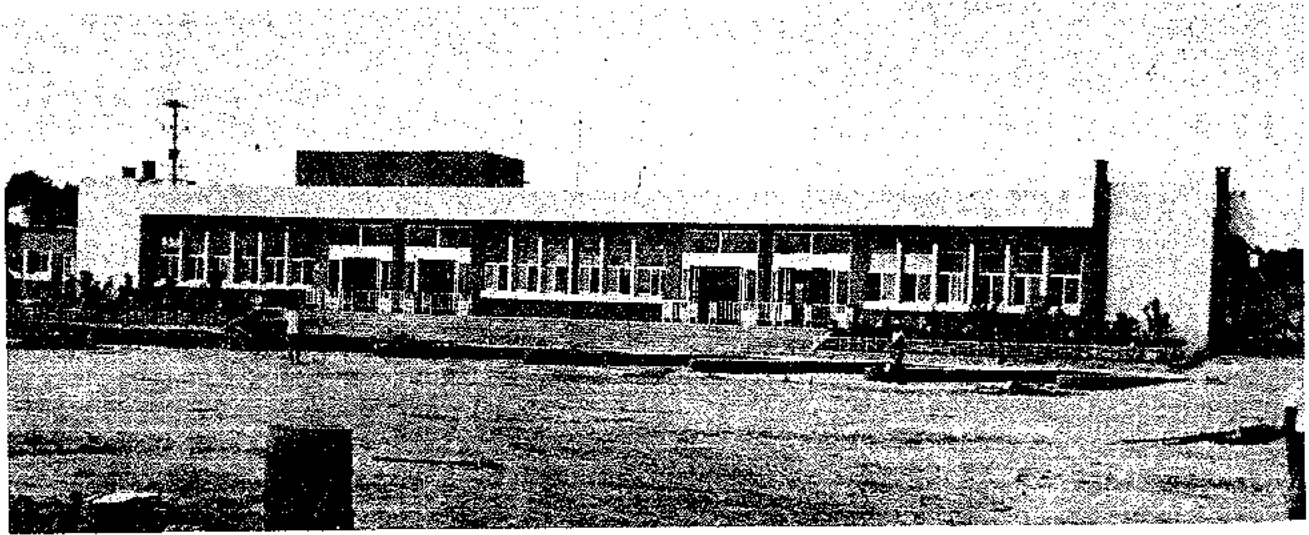
제 2 대합실 : 432m²

정 비 고 : 240m²

옥 외 변 소 : 18m²

합 계 : 1,552.50m²





평면도

建築 에 의 意志

張 起 仁 三成建築設計事務所代表

1. 建築學에의 첫 걸음

建築은 工學的이면서 藝術的이란 點에 攢리어 建築學을 專攻하면서부터 이제까지 약 40年이란 歲月이 지났어도 自信이나 재미스럽다고 느껴본 일은 드물며 건축이란 참으로 어렵고 수고롭기 한량 없는 것이라, 심지어는 두려움마저 앞서는 것을 느끼곤 한다. 다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면 비로소 안도감이 생기며 시공이 완료되어 창작의 價値가 確認될때 비로소 喜悅의 感興을 느껴 自慰하기도 한다. 이렇듯 建築은 깊고 넓은 知識과 이론과 經驗이 쌓인 技術이 必要한 것이다. 다만 열심히 듣고 보고 깨우치는데 많은 時間과 努力을 기울여야 했다. 따라서 建築家は 智慧롭고 슬기로우야 하며 남보다 앞서며 社會의 先驅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것을 이해하고 수없이 전개되는 事項을 모조리 記憶할수는 없는 것이니, 그 가장 기본요소가 되며 基幹이 되는 事項을 注視하고 枝葉的이며 未梢的인 것은 細分專門化된 技術者에게 代替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실제란 누구나 建築學을 專攻하였으면 되리라고 보나 그 設計經驗이나 施工의 過程 結果에 對한 體驗과 批判의 可否가 없이는 無謀한 일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젊은 建築士들이 設計事務所 또는 研究所를 運營하는 것을 볼때마다 그 勇氣와 秀才質에 驚嘆하여 마지 아니하는 바이다. 일반적으로는 着實한 設計經歷을 쌓고, 建實한 施工作業指導의 經驗을 얻지 아니하고 設計業務를 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들이다.

設計者는 남의 重大한 建物の 結果에 對하여 얼마만큼 責任을 질것인가, 말하자면 그저 無限責任인듯한 現實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앞날의 젊은 建築學徒들에게는 실제로 배우고 經驗을 쌓고 技術이 熟練된 다음에 設計 또는 施工의 責任者로서 臨해야 할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2. 建築法의 過去와 未來

近來에 建築法은 過去에 있던 法에서 改善 發展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立地에서 새로운 條目으로 急變한듯한 느낌이 든다. 急轉하는 社會에 對치하기 위해서는 建築法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겠지만 자주 變更되고 削加 自在하여 軋輒을 잡을 수 없고 過去의 知識이 所用없게 됨으로 이를 記憶하고 活用하기에는 번거롭기 限이 없다. 뿐만 아니라 法規의 試驗科題는 冊을 보면서 理解하기도 어려운데 暗記하여 풀이 하기엔 과중한 부담이 아닐수 없다. 따라서 資格試驗法도 再考할때가 되었다고 본다.

法은 萬人의 것이며, 모든 地域에 適用되어야 한다. 새로 짓는 집만을 위한 法이 아니라 모든 建物이 數年 또는 數十年의 經過措置以後에는 이 法에 따라야 한다 한가지 例로 隣地境界線에서 建物을 50cm, 또는 1.5m를 떠이는 問題는 어느 때에 가면 完全解決을 볼것인가! 아마도 서울시내의 건물은 앞으로 數十年 동안 現建築法에는 不法 矛盾된 建物로 남아 있을 것이 念慮스럽기만 하다. 理想과 改善의 方向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를수 없는 問題들의 考慮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例로는 建物에 收容될 停車場, 防火施設, 安全避難施設等도 新築되는 建物에의 問題보다 既存建物의 對策이 時急한 實情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既存建物에 對한 法이 制定되어야 하겠고 그 管理規制가 필요한 것으로 推測된다. 따라서 建築法은 過去의 建物을 整理하며 現在를 規制하여 將來를 圖謀하려는 合理性을 지니도록 이끌어 가야 할것이다.

3. 建築技術資格

建築技術資格은 建築士와 建設技術士와 構造技術士로 大別된듯 하다. 各各 그 經歷年限을 달리하던것을

7年(大學卒業者)으로 統一하고자 하는 時點에 있다.

특히 建築士는 五年經歷으로 되어 問題가 되는듯하다. 애당초 建設技術者資格과 같이 8年으로 하자는 意見과 資格이니까 5年으로 하자는 意見이 對立되어 많은 苦衷을 겪은 것이고 보면 더 할말은 없겠으나 또 한차례 陣痛을 겪어야 할듯하여 염려스럽다. 더욱이 二級資格을 單一級으로 할때는 큰 苦悶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資格免許가 全部인듯한 建築技術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建築技術의 最下承認點이 免許證이라 생각하고 더욱 더 練磨하고 研究하여 技術의 發展과 創造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建設部에서 土木, 建築, 機械, 電氣等으로 区分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여러專門部門으로 細分하고 있으나 技術資格者가 여러 技術資格을 얻고 그를 同時에 行事할수 있는 것인지 疑門點이 생겨난다. 建築學科·土木學科·農業土木學科에 있어서도 測量學이 教科目の 하나로 되어 있는 있으나 각기 그 目的하는 바가 다르고 內容이 다르나 高度의 技術을 要하는 測量은 또 다른 資格이 있게 마련이다. 要컨대 이들 資格免許를 그 全部다 생각한다면 여러가지 資格을 얻을 수 있으나 高度의 建築技術을 터득함에는 그러할 여가가 없는 것이 實情이다. 建築家가 都市計劃專門家이기도 하고, 造景家가 될수는 있지만 이는 極度의 研究活動을 하였거나 아니면 天才的 氣質일 것이며 그렇지도 않다면 그러한 資格들은 한낱 하급기술에 머물고 있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資格이 문제가 아니라 高度의 理論과 明哲한 技術을 지니며 보다 優秀 完壁한 設計와 用意周到한 施工術을 갖추어야 할것이다. 결국 무엇이든 다할수 있는 사람이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젊은 建築士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널리 알아두라 그리고 모든일에 專門家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라. 그러면 나만이 할수 있는 일과 다른이가 해서 유리한 것을 알것이다 라고, 筆者도 建築技術을 細分專門化하여 많은 時間과 努力을 消費하지 않고서도 생을 꾸려 나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現實은 어떠한가! 회장전공한 건축가가 현장에서 骨體施工을 監理하거나, 시공을 爲主로 하다가 設計業務를 하는 것은 껍이나 모순된 일이며, 이제부터는 細分專門으로 하여도 살만 하니 회장, 구조, 시공의 建築의 基本知識을 터득하고 보다 전문적이며 高度의 技術方向을 設定해야 할것이다.

4. 合同事務所

建築行政의 不條理를 없애는데 多大한 効驗이 있으며 至大한 期待를 예측케 한다. 다만 이를 建築人들 自體의 向上에 따른 것이라 보기전에 公무집행관이 自肅하고 새로운 維新理念을 實踐하는데 卒先한데 起因한 것이라 보며 또한 建築企業主의 올바른 信條가

確固하게 섰기 때문이라 그 공과를 우리보다 그들에게 돌리고 싶은 심정이다. 물론 우리 建築人들의 覺悟와 資質向上이 힘이 되었으리라는 것도 잊지 못할 것이다. 다만 3~5인 合同이 뜻하는 바를 다음 몇 가지로 要約한다면 許多한 問題가 생길 것이 自明하다.

① 事業所經營의 合理化를 爲하여

3인 以上の 事務所가 一體가 되어 合理的 經營方法으로 한다면 設計事務의 零細性을 脫皮하고 各建築士의 技量이 補充되어 보다 經營의 妙를 얻을수 있으나 創作이란 課程에서 個性을 버려야 하며 서로 特技가 同一할때는 意見이 相值될 때 그 조절이 어려울것이다. 3인 以上이라도 계획, 의장, 구조, 설계작도, 지방적산동의 각기 분야별 특기 소유자가 협동하게 되고 서로의 능력평가에 기준이 실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막연히 마음이 맞는 同志의 集合으로서 는 그 成果에 對하여 難點이 있을 것이다.

② 同一建物内の 合同

이는 서로 頻繁한 接觸으로 相互 補佐協力하는 方法이 되겠지만 相對方을 過信하거나 不信하여 拋棄心理에서 헤어나지 못할것이 우려된다. 다만 建築法上의 問題만을 自他가 慎重히 다루는 長點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良識있는 技士라면 敢히 남의 作品에 自己所信을 밝히기를 두려워 할것이며 曰可曰否할수도 없는 성질의 作品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오직 법상의 상치 結核사항만을 지적할 수 있을 따름이고, 도면 시방서의 보완, 수정, 재설계 등의 처리등에 직접간여할 수 없는 것이 問題點으로 남을 것이다.

③ 連帶責任

合同事務所 또는 連合事務所라 하여 連帶責任의 重輕 또는 그 限界의 所在가 分明치 아니하다. 바꾸어 말하면 責任과 同時에 賦與되는 權限은 무엇이며 언제, 어드때, 어떻게 責任과 權限이 주어지는지 理解가 잘 되지 아니한다. 連帶保證과도 다른 意義를 지닌다고 보면 모를까 그러한 範疇라면 原設計監理者가 責任을 다할수 없을때에 限함이 아니겠는가, 또 그 責무는 건축법상의 法的 違背如否에 따른 것이며 또 그 適否에 對해서도 建築士의 見解로서 可否가 判定될수도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 共同責任이란 虛點이 생길것이 우려 된다. 더우기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 爲主가 아니라 建築主, 施工者(都給者 또는 技能工)의 過失 非違를 여러 건축사가 다함께 한다고하여 막을수만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는 點도 있다.

말하자면 한 건축사의 불비 모순점을 여러 건축사가 發見하고 是正하려는 本意는 重要하나 自己가 直接計劃 하고 구상한 것이라도 보조기술자로 하여금 대신 한것의 잘못도 가려내기 힘든데 남의 계획, 작도한 것을 한눈에 그 모순을 指適할수는 到底히 不可能한 것이 아닐까 의구심부터 앞선다.

그러나 계획 설계 작도에 보다 충실하고 더욱 정확해야 할것은 分明하니 建築士 各自은 크게 憤發할 것이며 自己 業務에 最大의 努力을 기울일 것이니 建築技術의 向上은 보다 漸増될 것이 期待되거도 한다.

6. 施工의 安全管理

新聞紙上에 建築現場의 事故가 報道될때 마다 一抹의 悲哀를 느낀다. 建築主의 지나친 經濟追求, 施工者의 過다한 貪慾을 탓하기 전에 建築設計, 施工의 技術指導가 이렇게도 貧困해서야 하는 偉大함이 든다. 심지어는 무슨 技術이 必要한가, 아무라도 철근 묶고 콘크리트를 다져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起因한다고 본다. 木材나 鉄材를 쓰는 方法은 그래도 오랜 歲月동안 그 힘과 構造法이 一般에게도 몸에 배어 지레 짐작으로도 어느 정도 安全性 있게 다루고 있지만, 철근콘크리트의 一般應用的 歷史는 不過 100년이 못되며 專門家로서도 그 成分, 過程, 結果가 뜻대로 되는 일이 적은데 비하면 一般人은 그저 튼튼한 것으로만 理解되고 있는듯 하여 危險이 隨伴한다고 지적할만 하다.

여기에 고도의 이론과 經驗이 그 安全性을 保障할 것이며 單純히 知識으로서 理解할 것이 아니라 活用하여 錯誤없는 技術이 요구될 따름이다. 우리는 나날이 發展創造되는 材料와 더불어 그 利用에 있어서 施工安全性을 檢討하고 充分한 設計와 周到한 工事管理

가 要求되며 또 여기에 모두들 邁進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建築術은 設計나 施工管理에 있어서나 그 技術全般을 經驗하고 執拗하게 追求하여 不備한 點이 極少로 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建築士 建築技術者는 自己의 專門과 能力 限界에서 벗어나는 일은 可及的 避하여 보다 큰 來日을 築造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할것이다. 建築設計事務所 營業이기는 하지만 研究所란 名稱으로도 通用되며 많은 研究들이 이루어 졌으리라推測되기도 한다. 그 연구 結果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는 雅量이 있어 建築誌에 發表되기를 希望한다.

7. 끝으로

建築은 工學, 技術, 藝術 등으로 말하고 있으나 現代社會的 見地에서 共的인 存在로 認識하고 나만의 獨創의인 設計요 得意의 建設妙技보다는 누구에게나 共感이 가고 公評한 價值가 부여되는 建築이 되기를 바랄 따름이다.

建築作品이란 計劃設計者의 것만도 아니고 建築主 自身の 것만도 아니다. 더우기 施工者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三者가 融和되어 渾然一致하여 이 社會에 巧獻되는 것이여야 할 것이며 技術의 精進과 아울러 人間의 陶冶에도 힘써야 좋은 作品이 이루어 지리라 確信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6년 7월24일 건설부장관

제1조 제1항중 “(2)난내지 (12)난중”을 “(2)난내지(13)난중”으로 하고, 동조 동항의 표 후단에(13)난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건축물의종류	도시의종류	측 척	표시하여야할사항
(13)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할때	토지의 지형 평면도	임 의	축척 및 종 · 횡단선
		종 · 횡단면도및구조물 상세도		축척 · 단면상세 (인접) 토지를 포함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정본) 및 별지 제1~2호 서식(정본)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를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분) 및 별지 제1~2호 서식(부분)중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을 허가함”을 “건축법 제5조 및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2호 서식중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를 완료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7~2호 서식중 “건축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이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을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 변경공사를 검사한 결과 건축법의 규정 및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 내용에 적합함을 증명함”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建築法 質疑応答(第4回)

建設部建築課

解説：韓 奎 泰

37. 現行 建蔽率 規定에 違背된 既存建築物의 大修繕 (質疑要旨)

建築法 第39條(建蔽率)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既存建築物을 耐火構造의 間막이를 하는等 大修繕을 할 수 있는가?

(質疑者：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13324 (76. 7. 3)

大修繕은 法 第2條 第12號의 規定에 依據 建築이 아니므로 法 第39條(建蔽率)의 規定에 不適合한 既存 建築物이라 하더라도 同既存建築物이 適法하게 建築한 것이라면 大修繕을 할 수 있습니다. 끝

(解 說)

法 第5條와 令 第4條에서 建築 許可를 받도록한 対象建築物은 “建築할 때”와 “大修繕을 할 때”許可없 이 建築할 수 없는 것이고 法 第48條의 規定에서 用途 變更을 할 때 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大修繕과 用途變更은 “建築”에 包含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 때에는 建築할 수 없다”라고 規定 되었을 때에도—地域·地區에 依한 建築制限規定에 適合하지 않게 用途變更을 할 때 등을 除外—大修繕과 用途變更은 할 수 있는 것이다.

建蔽率·坪地面積의 最少限度·높이制限等에 違背 되거나 用途地域·地區에 不適合한 既存建築物이라 하 더라도 建築當時 適法하게 建築된것(許可를 받은것은 勿論이고 許可對象이 아니어서 許可없이 建築한것을 包含한다)은 大修繕이나 用途變更을 할 수 있으며 令 第142條 第10項의 規定에 依據 増築·改築 또는 再築 等を 許可하고 있다.

※ 建築(法 第2條 第12號)：

新築·増築·改築·再築·移転

38. 昇用 昇降機의 設置 基準

(質疑要旨)

昇用 昇降機 設置台數 算定方法의 基準은?

(質疑者：建築士)

(回信內容)

建築125~13536 (76. 7. 6)

令 第129條 및 施行規則 第22條를 적용하여 승강기 所要台數를 算定함에 있어 貴質疑上의 아파트의 居室 面積은 當然히 算入되는 것이나, 居室以外의 用途로 使用되는 地下室과 屋內停車場等の 面積은 除外되는 것입니다. 끝

(解 說)

學校·病院·集會場·展示場·百貨店·여관·호텔 아파트·事務所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쓰이는 6層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할 때—6層以上の 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50m² 以下인 경우는 除外—建築物의 用途와 面積의 規模에 따라 昇用 昇降機를 設置토록 規定하고 있다.

昇降機의 設置基準을 建築의 用途와 居室의 面積規模에 依해서만 定하는것이 非科學的인 方法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適正台數가 아닌 最少의 台數를 定하고져 한것이 立法취지였으므로 승강기의 속도등에 의 한 事項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未備한것이 있다면 塔승인원에 따른 基準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規定을 初案할 때 8人昇을 基準으로 하였던 것 이므로 이에 對하여는 더 研究 檢討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9. 養鷄用 비닐하우스의 建築

(質疑要旨)

現在 住居地域內에 있는 양계용의 비닐하우스가 住民의 위생상 좋지 아니하여 綠地地域으로 移轉 하려고 할 때 建築許可없이 移轉이 가능한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14502(76. 7. 21)

建築法の 立法趣旨上 都市計劃區域內의 畜舍에 對해서는 그 建築을 制限(地域에 따라) 함으로서 都市의 環境 衛生을 저해하는 것을 防止코져 하는 것임으로 養鷄를 爲한 비닐하우스를 建築許可없이 建造토록 하면 위와 같은 目的達成을 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貴質疑의 養鷄用 비닐하우스는 畜舍로서 建築許可를 받아 建造하여야 합니다. 끝

※ “建築士”誌 5月号 P27 參照

40. 住居地域內에서의 注油所 移轉

(質疑要旨)

都市計劃施設(道路)의 變更으로 因하여 住居地域內에 있는 既存 注油所가 危險物取扱所 施設基準에 맞지 아니하여 道知事로부터 構造變更 移轉許可를 받은 경우 隣接한 同一人의 所有地로 移轉할 수 있는가?

※ 위 移轉許可는 建築法상의 移轉許可가 아님.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15168(76. 7. 29)

① 令 第142條 第2項의 規定에 依據 住居地域 內에서는 注油所의 建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貴質疑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注油所用의 建築物을 建築할 수 없습니다.

② 貴 質疑와 같이 既存注油所가 있는 隣接地에 地下油類貯藏施設을 하는 경우 地下貯油槽는 令 第175條의 規定에 依據 建築許可를 받아야하는 工作物의 範圍에는 包含되지 아니함으로 建築法과는 無關하며, 따라서 消防法規等 他法令의 規定에 適法하게 築造할 수 있는것입니다. 끝

41.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質疑要旨)

都市計劃施設인 道路로 決定 告示된 地에 道路建設 事業 施行前에 假設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 建築主)

(回信內容)

建築125-15169(76. 7. 29)

都市計劃施設 또는 施設予定地上의 假設建築物의 許可는 法 第47條 및 令 第174條의 規定에 依據 当該 地域의 都市計劃事業의 實施에 支障이 없는것에 限하여 許可할 수 있는것으로서 이는 市長・郡守의 裁量行爲입니다. 끝

(解 說)

假設建築物은 必要할 때 容易하게 撤去할 수 있도록 그 構造基準을 令 第174條에서 定하고 있으며

災害復旧・興行・展覽會 및 工事施工等を 爲한 臨時的인 假設建築物은 着工 5日前에 申告만 하면 建築이 可能하나 都市計劃施設 또는 施設予定地上에서는 위와같은 臨時的인 假設建築物이라 하더라도 許可 없이 는 建築할 수가 없는 것이다.

都市計劃施設 또는 施設予定地上에서는 令 第174條의 規定에 適合한 假設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許可權者가 当該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할 때에만 建築許可를 하는 것이며 이는 市長・郡守의 自由裁量行爲이며 申告에 依하여 建築할 수 있는 假設建築物은 法 第2章 내지 第5章의 規定을 適用받지 않은 反面에 都市計劃施設 또는 施設予定地에서 許可를 받아 建築하는 假設建築物은 建築法令의 모든 規定을 적용받는 것이다.

42.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의 組編成

(質疑要旨)

① 住宅建築許可改善策을 實施하기爲한 連帶責任 建築士의 組編成을 함에 있어 5人을 原則으로 하였을때 殘余 3人으로 編成된 組도 5人組와 同等하게 認定받을 수 있는가?

② 위와같이 組가 編成된 市에서 新規로 編入 하고 저하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不可能할 경우의 対策은?

(質疑者: 建築士)

(回信內容)

建築125~15711(76. 7. 29)

① 質疑 ①에 對하여

住宅建築許可制度改善策 實施當時 道知事が 不得已하다고 認定하여 編成된 3人組 建築士組는 5人組와 同等하게 認定되는 것이며,

② 質疑 ②에 對하여

貴下の 경우와 같이 同業務를 爲하여 連帶責任建築士의 組에 編入하려면 5人組 또는 3人組 中 어느 組에나 編入될 수 있으며, 設計事務所의 開設登錄을 받은 市長・郡守가 어느 組에나 編入되도록 措置 하여야 합니다. 끝

(解 說)

連帶責任建築士의 組編成은 建築士 相互間의 意思에 따라 또는 支部에서 調整하는 等의 方法으로 編成되어져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方法만으로 안되는 경우를 予想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小數의 建築士가 編入될 수 없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적절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同 許可制度에 모든 建築士가 參與할 수 있는 機會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43. 綠地地域의 建蔽率等

(質疑要旨)

1976. 4. 15 建築法施行令이 改正된 후에도 生産綠地地域과 自然綠地地域으로 区分되지 아니하고 從前에 指定된대로 綠地地域으로 되어있을 때 建蔽率等은 어떻게 (몇 %)로 適用하는가?

(質疑者：建築士)

(回信內容)

建築125~15411(76. 7. 31)

自然綠地地域과 生産綠地地域으로 区分되지 않고 綠地地域으로 되어있어도 양곡보관창고의 建築은 可能하며 建蔽率・坪地面積의 最少限度 및 容積率은 自然綠地地域의 規定을 適用합니다. 끝

(解 說)

大統領 第8090号(76. 4. 15) 부칙 第2項의 規定에 依하면

自然綠地地域과 生産綠地地域으로 区分되기 前의 綠地地域에서 建築할 때 地域別 用途制限은 生産綠地地域의 建蔽率・坪地面積의 最少限度 및 容積率은 自然綠地地域의 規定을 適用하여야 한다.

区 分	綠 地 地 域	自然綠地地域	生産綠地地域
用途制限	生産綠地地域으로 (令“別表8”適用)	(令“別表8”)	(令“別表9”)
建蔽率 (%)	20	20	20
坪地面積의 最少限度(m ²)	600	600	200
容 積 率 (%)	20	20	150

44. 地下層의 設置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는 既存建築物

(質疑要旨)

地下層設置規定이 改正되기 前에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延面積의 1/10의 地下層을 設置한 既存建築物(地上 4層, 地下 1層)을 7層으로 增築하고자 할 때

1層 바닥면적에 相當하는 地下層은 設置할 수 있으나 “電氣・冷暖房 및 給排水施設을 設置하는 面積은 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地下層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면 令 第113條(現行)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增築이 可能한가? (質疑者：建築士協會)

(回信內容)

建築125-13346(76. 7. 3)

貴 質疑上의 建築物이 竣工檢査를 필한 既存 建築物이라면 令 第180條의 規定에 依據 法 第22條의 3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음. 끝

(解 說)

地下層을 設置하지 아니하여도 建築할 수 있는 경우는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로 地下層의 設置規定에 適合하게 建築된 既存 建築物을 增築 또는 改築(一部改築) 하는 경우와

둘째 水面위에 建築하는 경우와 地盤의 地耐力이 200t/m²(長期応力에 對한 許容応力度) 以上일 때 地下層의 設置가 不可能하다고 市長・郡守가 認定(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쳐)할 때이다.

위 첫째의 경우를 열거하면

① 70. 1. 1以前에 建築된 既存建築物(※地下層의 設置規定은 70. 1. 1法律 第2188号로 新設되었음)

② 70. 1. 1以後 當該 建築物의 收容人員 1人당 0.25m²를 基準으로 地下層을 設置한 既存建築物.

그러므로 質疑와 같은 경우의 建築物은 令 第113條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위 ②에 該當되어 垂直增築이 可能한것이나 既存의 地下層에 電氣・冷暖房 等의 設備을 追加보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45. 邑・面의 都市計劃區域안의 住居地域에서의 農産物保管倉庫 建築

(質疑要旨)

邑・面의 都市計劃區域內에 있는 住居地域에 倉庫業을 經營하는 農産物保管倉庫를 建築할 수 있는가?

(質疑者：慶尙北道)

(回信內容)

建築444.1~15232(76. 7. 29)

邑・面의 都市計劃區域안의 住居地域에서는 倉庫業인지와 如否에 關係없이 農産物保管倉庫의 建築이 可能함. 끝

(解 說)

倉庫의 建築可能如否를 地域別로 보면 다음 表와 같다.

地 域 別	農産物保管倉庫		其他用途의 倉庫	
	自家(非營業用)	營 業 用	自家(非營業用)	營 業 用
住 居 地 域	可	可	바닥面積 165m ² 以上은 不可	左 同
邑·面의 都市計劃區域	바닥面積 165m ² 以上 不可	左 同	可	可
市級都市計劃區域	可	可	不可	不可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	不可	不可	可	可
住居專用地域	可	可	可	可
其他의 地域	可	可	可	可
(5個地域 및 地域指定 이 없는 地域)				
都市計劃區域外	可	可	不可	不可
市·邑의 區域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는 外에 可)			
基準地圖告示地域	可	可	可	可
其 他				

46. 垜地가 2個以上の 地域 또는 地區等に 걸칠때 (質疑要旨)

하나의 垜地가 綠地地域內的 風致地區와 公園區域에 걸칠때 公園區域에 저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경우 公園區域에 저촉되는 垜地面積에 算入할 수 있는지의 如否?

(質疑者: 경기도)

(回信內容)

建築444.1~15230 (76. 7. 29)

貴 質疑와 같이 綠地地域안에 있는 하나의 垜地가 風致地區와 公園區域에 걸칠 때에는 그 垜地의 過半이

屬하는 地區 또는 區域의 施設 用途 建築用途를 變換하여야 하며 (法 第52條), 過半에 未達하는 地區 또는 區域에 屬하는 部分의 面積도 垜地의 面積에는 算入되는 것임. 끝

47. 農業用的 建築物 (質疑要旨)

都市計劃區域內的 自然 및 生産綠地地域에서 建築이 可能的한 建築物을 規定한 令(別表 8) 및 (別表 9)의 各 第 1項에 記기한 “農業用建築物”과 “畜産業用建築物”에는 정미소·농산물보관창고 및 축산물 사료 공장인 否 포함되는가?

(質疑者: 경기도)

(回信內容)

建築125~15690 (76. 8. 5)

令 第142條 第 8項(別表 8) 및 (別表 9)의 規定에 依하면 自然綠地地域과 生産綠地地域에서는 農業 및 畜産業用 建築物은 建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貴 質疑上의 양곡보관창고와 정미소는 農業用建築物에, 축산물사료공장은 축산업용건축물에 包含되는 것임. 끝

물 자 절 약

법 국민적으로 소비절약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일환책으로 협회와 각 시도 지부 및 전 회원은 자율적으로 실천수행하자.

1. 수입물자 절약하여 국제수지 개선하자.
2. 근검절약 생활화하여 경제자립 이룩하자.
3. 폐물자 활용하여 국산대체 추진하자.

建築法規 問題 解説

(1)

韓 奎 峯 (建設部建築課)

建築법이 1962. 1.20 制定 公布된 以來 法은 다섯번, 令은 일곱번이나 改正되었다.

建築設計業務나 試驗과 같은데 부딪치고 나서야 “법이 改正되었구나” 하고 失望하거나 建築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辱아닌 辱정을 하게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저 自身도 辱을 들을 수도 있는 立場에 있는 사람이라 辱을 안들기 爲해서(?) 이글을 쓸것을 承諾하게 된것이다.

建築物를 設計・監理하거나 建築士試驗을 準備 하는 建築人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1. 建築許可 対象建築物

建築許可는 禁止된 行爲를 解除하는 行政行爲로서 그 目的을 세가지 側面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都市計劃法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되는 地域・地区와 其他 特殊한 目的으로 指定하는 地域・地区 또는 区域의 指定目的에 適合한 用途의 建築物을 그 地域・地区等에 建築하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 建築物을 構造의으로 安全하게 建築하게 함으로써 危害로부터 人間을 保護하려는 것이다.

셋째: 住居生活이나 建物을 利用하는데 있어 不便이 없도록 하기 爲하여 最少限의 基準 以上으로 建築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目的을 爲해서는 建築許可 対象區域을 全國으로, 또 모든 建築物을 対象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全國에서 建築하는 모든 建築物을 対象으로 하지않고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으며 그 範圍는 점차로 擴大 되어가는 傾向에있다(※ 밑줄 친 部分은 法律 第2852號 및 大統領令 第8090號로 法令이 改正될때 追加된 것이다.)

建築許可対象區域 또는 建築物

① 모든 建築物을 許可對象으로 하는 地區
都市計劃區域안의 防火地區

② 延面積 10M² 以上の 建築物을 許可對象으로 하는 區域等.

㉑ 都市計劃區域(防火地區 除外)

㉒ 国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依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

㉓ 都市計劃區域外の 市・邑의 行政區域

㉔ 高速道路 및 国道 양측 500M² 以內的 區域

㉕ 鐵道 양측 500M 以內的 區域

㉖ 鐵道 양측

㉗ 地價告示 対象地域

※ ㉑ 내지 ㉗ 에 該当하는 地域・地区에서 10M² 以下の 建築 또는 大修繕을 할때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③ ① 및 ② 에 該当되지 아니하는 場所라 하더라도 다음 規模以上인 建築物을 建築 또는 大修繕할 때에는 建築許可를 받는다.

㉘ 特殊建築物로서 延面積 100M² 以上인 建築物.

㉙ 木造建築物로서 延面積 300M²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建築物

④ 建築許可는 建築 및 大修繕을 할때 適用되며 建築許可対象建築物을 用途變更할 때에도 建築許可를 받아야 한다.

㉚ 木造 以外の 建築物로서 延面積 200M² 以上이거나 2層以上인 建築物.

※ 關係條文 令 第4條
法 第5條 法 第48條

2. 建築物의 工事監理

建築士法의 規定에 依하여 建築士가 設計하여야 하는 建築物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築物을 建築(新築・増築・改築・再築 또는 移轉)하거나 大修繕을 할때에는 建築

士를 工事監理者로 定하도록 法 第6條 第2項에 規定한 것을 根據로하여 令 第2條 第3項과 令 第7條에서 工事監理業務의 限界와 監理對象建築物의 範圍等を 規定하고 있다.

(1) 工事監理業務의 限界

工事監理와 工事監督의 明確한 区分을 하기는 어려웠으나 1976 4.15 改正令에서 工事監理業務를 다음과 같이 規定한 것이다.

即 “工事監理”란 建築士가 다음事項에 對하여 施工者를 指導하고 施工結果를 確認하는 業務를 말하는 것이다.

- ① 建築의 位置 및 配置
- ② 建蔽率·容積率
- ③ 道路·隣接地境界線·隣接地안의 建築物과 關聯되는 建築物의 높이
- ④ 同一地안의 建築物 相互間에 毗어야 할 建築物의 높이
- ⑤ 建築物의 構造上의 安全에 關聯되는 基礎 및 構造體의 規格 또는 斷面積, 鉄筋의 加工 및 配筋·콘크리트의 配合·打設 및 養生.
- ⑥ 駐車場·地下層
- ⑦ 避難施設
- ⑧ 耐火構造·防火構造·防火區劃·防火門
- ⑨ 土地掘削部分에 對한 整理
- ⑩ 主要構造部用 材料의 選定

(2) 工事監理對象 建築物의 範圍

工事監理者를 定하여 建築이나 大修繕을 하여야 할 建築物은 原則的으로

- ① 延面積 300M²以上の 建築物
- ② 높이 13M以上の 建築物
- ③ 처마높이 9M以上の 建築物이며 이 외에도 市長·郡守가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工事監理者를 定하여야 建築物을 따로 定할 수 있는 것이다.

市長·郡守가 監理對象建築物로 定할 수 있는 範圍는

- ① 住宅일 경우에는 延面積 30M²以上 300M² 未滿이며 이와같은 範圍內에서 工事監理를 하여야 할 對象을 定한 때에는 市長·郡守가 公告를 함으로서 그效力이 發生하는 것이다.

(3) 工事監理에 關한 罰則

① 工事監理者를 定하여 建築이나 大修繕을 하여야 할 建築物을 工事監理者없이 施工한 建築主와 施工者는 2年以下の 懲役 또는 600萬圓 以下の 罰金(法 第55條 第3號 및 第5項)

② 工事監理者가 工事監理를 한에있어 法 또는 法에依한 命令에 違反하여 施工하는것을 是正토록 建築主와 施工者에게 勸告하여도 이에 不応할때 市長·郡守에게 報告할 義務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虛偽로 報告한 建築士(工事監理者)는 100萬圓 以下の 罰金(法 第56條)

※ 關係條文

法 第6條 第2項

令 第2條 第3項

(別表 12)

令 第7條

法 第55條 第4 및 5項

法 第56條

3. 道路와 建築線

(1) 道路의 定義

사람이 步行할 수 있고 階段式 車輛通行이 不可能한施設이 없는 通過道路 및 막다른道路(길이 35M未滿인 막다른道路는 階段等 施設이 있어도 무방함)로서

① 都市計劃法·道路法·私道法 其他 關係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關한 告示가 된것.

② 建築許可를 할때 市長·郡守가 그 位置를 指定한 道路를 말한다.

※ 1975. 12. 31法의 改正에서 自動車通行이 可能한 경우만을 道路라고 規定 하였으며 從前의 規定에 依한 車輛通行이 不可能한 道路는 改正된 規定에 不拘하고 適法한 道路로 본다고 附則 第2項에서 規定하고 있다.

(2) 막다른道路의 幅과 構造

막다른道路에 關한 令 第138條의 規定은 消防上에 必要한 最少限의 道路를 漸次로 確保하려는 規定이라 할 수 있다.

既存 막다른道路가 令138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幅의 道路일 때에는 法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依據 그 道路에 接한 地에 建築할때 마다 漸次로 所要幅의 道路를 確保하여 나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道路의 形態가 凹凸현상이 되겠지만 장차에는 建築法이 意圖하는 道路가 될 것이다.

令 第138條에 規定한 내용을 열거하면

① 막다른道路의 長이가 10M未滿은 그 幅을 2M以上으로 하되 車輛通行이 不可能한 階段等의 施設이 있어도 무방하다.

② 막다른道路의 長이가 10M以上 35M未滿이면 幅 3M以上이며 역시 階段等이 있어도 상관 없다.

③ 長이가 35M以上일 때에는 車輛通行에 支障이 있는 構造이어서는 아니되며 그 幅은 6M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④ 막다른道路의 長이가 35M以上이라 하더라도 長이 35M以內마다 自動車가 회전할 수 있는 空地(公園·廣場 其他 이와類似한 建築이 禁止된 空地를 말함)가 있을 때에는 道路의 幅을 3M以上으로 할 수 있다.

(3) 建築線

建築線은 道路의 境界線을 말하며 바꾸어 말해서 “建築制限線”이라고 表現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建築物이나 담장은 建築線의 無直線을 넘어서는 아니되며(路面으로 부터 3M以上에 있는 窓이나 出入口 등은 建築線을 침범하여 開閉하여도 무방함) 幅 4M未滿의 通過道路나 令 第138條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막다른道路에 接

한 垜地는 그 道路의 中心線으로 부터 當該 道路 所要幅의 1/2을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하여 建築하여야하며 道路의 反對側에 傾斜地·河川·鐵道等이 있어 그 方向으로 道路 확장할 때에는 當該 傾斜地等이 있는 쪽의 道路 境界線으로 부터 그 道路의 所要幅 만큼의 水平距離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여야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定해진 建築線을 침범하여 담장을 싸울수도 없다. 이와같이 最少限의 道路 確保를 위한 建築線外에도 市長·郡守가 建築物의 位置를 整備하거나 環境整理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建築線을 指定할 수도 있으며 이렇게 建築線을 指定하였을 때에는 이를 告示하도록 規定하고있다.

(4) 道路모퉁에서의 建築線

街角剪除를하여 이 線을 建築線으로 하는것이다.

道路 모퉁이 部分에서의 自動車의 廻轉을 容易하게하고 通行에 不便이 없도록 하기爲하여 幅員 8M이하의 道路가 交叉하는 位置에 있는 垜地(道幅 8M인 두 道路의 交叉일 때에는 除外)의 街路 모퉁이에는 그 道路의 交叉角과 路幅에 따라 다음 規定에 依據 建築線을 定하고 建築하여야한다.

(單位: M)

2 道路의 交叉角	交叉되는 道路의幅	8 M以下 6 M超過	6 M以上 5 M超過	5 M以下 4 M以上
80° 未滿	6M以下5M超過 5M以下4M以上	4 3	4 3	3 2
80° 以上 110° 未滿	6M以下5M超過 5M以下4M以上	3 2	3 2	2 2

이 表의 數置는 道路의 交叉點에서 境界線(道路와 垜地의)을 따라 후퇴한 點까지의 길이이며 이 두點을 연결한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 關係條文

- 法 第2條 第15号
- 法 第7條 內지 第31條
- 令 第2條 第2項
- 令 第138條
- 令 第140條의 2

4. 建築物과 道路와의 關係

建築物은 道路에 接해서 建築되어야 그 利用이 可能한 것임은 極히 一般的인 常識이지만 建築法에서는 建物の 用途와 規模에 따라 道路의 幅과 垜地가 道路에 接하여야 할 最少의 길이에 對하여 規定하고있다.

(1) 幅 6 M 以上の 道路에 接하여야 하는 경우

特殊建築物(火葬場·屠殺場·진에 및 오물처리장을 除外)이나 3層以上の 建築物로서 延面積 1,000M²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하는 垜地와 車庫用的 垜地는 幅 6 M 以上の 道路나 空地에 6M以上 接하거나 1個所에 4M以上式 2個

所以上 接하여야한다. (이 경우 空地라함은 公園·광장其他 이와 類似한 것으로서 建築이 禁止된 空地를 말한다).

(2) 販賣業用的 建築物

로서 販賣場의 바닥면적의 合計가 3,000M² 以上인 建築物은 그 垜地의 2面以上이 道路 또는 空地에 接하거나 垜地들래 길이의 1/3以上이 道路 또는 空地에 接하여야 한다.

(3) 위 (1) 및 (2)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建築物의 垜地는 道路에 2M以上 接하여야 한다.

(1)에서 말하는 特殊建築物 및 3層以上の 建築物로서 延面積 1,000M² 以上인 建築物의 垜地와 車庫用的 垜地는 幅 6M以上の 道路에 接하여야 함으로 幅 6 M未滿의 다른道路에 接하고 그道路의 中心線에서 3M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여 建築을 하려는 경우에는 令 第139條의 規定에 違背되어 建築許可를 할 수 없다는이다.

(2) 및 (3)의 경우는 道路의 幅에 關係없이 法 第2條 第15号의 規定에 適合한 道路이기만하면 無關하므로 幅 4 M 以上の 道路(通過道路)나 令 第138條의 規定에 依한 各다른道路中 어느道路에 接하더라도 상관하지 아니하며 垜地의 周圍에 公園·광장等 建築이 禁止된 空地가 있거나 保安上 支障이 없을때에는 道路에 接하지 아니하여도 建築을 할 수 있다.

※ 關係條文

- 法 第27條
- 令 第139條

5. 駐 車 場

都市計劃區域內에서 建築物을 新築·増築·改築 또는 再築(이하 “新築等”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駐車場을 設置하여야한다. 改築의 경우에는 全部改築인 때에만 該當되며 増築을 할 때에는 既存의 延面積과 増築하는 面積을 合하여 基準面積以上이면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1) 対象建築物과 設置基準

① 商業地域內에서 新築等を 하는 다음과 같은 用途의 建築物의 延面積이 1,000M² 以上이면 그 延面積 200M² 마다 駐車台數 1台의 比率로 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 劇場 映画館 演芸場 觀覽場, 集會場, 展示場, 旅館, 호텔, 飲食店, 舞蹈場, 바, 카바레, 遊技場, 公衆沐浴場, 共同住宅(아파트 聯立住宅), 體育館, 百貨店, 事務所, 病院(綜合病院, 病院), 農水産物都賣市場, 倉庫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에 쓰이는 建築物.

※ 醫院은 病院에는 包含되지 아니하나 “其他 이와 類似한 用途의 建築物”에 該當될 것이다.

② 商業地域內에서 新築等を 하는 ①에 該當되지 아니하는 建築物과 商業地域以外的 地域(8 個地域)內에서 新

築等을 하는 延面積 2,000M² 以上の 建築物은 그 延面積 500M² 마다 駐車台數 1台的 比率로 設置하여야 한다.

(2) 自動車 1台的 駐車面積 基準

은 15M² (6 M×2.5M)이다(다만, 平行駐車일 때에는 7.5 M×2.5M)

(3) 駐車場の 通路에 관한 規定

駐車場을 設置할 때에는 台當面積 15M² 以外에 다음과 같이 通路를 確保하여야 하고 駐車部分의 長短邊中 1邊 以上은 通路 또는 自動車의 通行에 支障이 없는 道路에 接하여야 한다(長邊: 車의 길이쪽의 邊, 短邊: 車의 幅쪽의 邊)

停車場 通路의 幅

駐車形式	通 路 의 幅(M)	
	出入口가 1 個일때	出入口가 2 個以上일때
平行駐車	5.0 以上	3.6 以上
直角駐車	7.6 "	7.6 "
45° 对向駐車	5.0 "	4.7 "
60° 对向駐車	6.0 "	6.0 "
交叉駐車	5.0 "	4.7 "

(4) 다른用途로의 使用禁止

駐車場은 다른 用途로 使用할 수 없는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道路交通法 第54條의 規定에 依하여 6個月 以上 車輛通行이 禁止된 道路에 接하고 이 禁止된 道路以外에 車輛이 出入할 수 있는 道路나 通路가 없는 屋内駐車場 일 때에는 通行禁止期間에 2週日을 加算한 期間을 期限付로 하여 市長·郡守가 用途變更을 承認할 수 있다.

※ 關係條文

法 第22條의 2

令 第22條

令 第22條의 2

施行規則 第19條

6. 昇用昇降機의 設置

學校·病院·集會場·展示場·百貨店·여관·호텔·아파트·事務室 및 寄宿舍 其他 이와 類似的한 用途에 쓰이는 6層 以上の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다음 表에서 定하는 基準台數 以上の 昇用昇降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6層 以上の 建物이라 하더라도 6層 以上の 層의 居室바닥面積의 合計가 150M² 以下인 경우에는 昇降機를 設置하지 아니하며 設置台數는 居室面積을 基準으로 하여 建築法施行規則 第22條에서 設置台數를 規定하고 있다.

昇用昇降機 設置台數의 基準

거실면적의 합계	3,300 평방 미터 미만	3,300 평방 이 상 6,600 평방 미터 미만	6,600 평방미 터 이 상
집회장·전시장·호 텔·백화점·병원	1	3	메 3,300평방 미터 이내마다 1 대의 비율 로증가
여 관·사무실	1	2	
기 타 (設置対象建築物)	1	1	

※ 關係條文

法 第22條 第1項

令 第129條

施行規則 第22條

7. 非常用昇降機의 設置

法 第22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非常昇降機는 同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昇用昇降機의 設置에 關係없이 設置하여야 하며 檢용으로 할 수 없다.

(1) 設置對象 建築物

높이 31M를 넘는 建築物中에서

① 높이 31M를 넘는 各層을 居室以外의 用途로 使用하는 建築物

② 높이 31M를 넘는 層의 數가 4個層 以下로서 그 바닥面積의 合計가 500M² 以下인 建築物

③ 높이 31M를 넘는 層의 數가 4個層 以下로서 當該層(높이 31M를 넘는 位置에 있는 層)의 居室바닥面積 100 M² 以內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및 壁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한 建築物

④ 높이 31M를 넘는 層의 數가 4個層 以下로서 該當層의 居室의 벽 및 반자를 準不燃材料로 마감하고 그 바닥面積 200M² (벽 및 반자를 不燃材料로 한 때에는 500M²) 以內마다 耐火構造의 바닥 벽 또는 防火門으로 区劃한 建築物等을 除外한 建築物은 設置台數基準에 따라 非常用昇降機를 設置하여야 한다.

(2) 設置台數의 基準

높이 31M를 넘는 位置에 있는 層中 제일 넓은 層의 바닥面積이 1,500M² 未滿인 때에는 1台 以上 위 基準을 넘을 때에는 基本台數 1台에 1,500M²를 넘는 3,000M² 以內마다 1台式을 加算한 台數 以上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3) 非常昇降機의 構造基準等

① 昇降場의 構造

㉠ 昇降場의 바닥과 壁은 耐火構造로 한다.

㉡ 避難層을 除外한 各層에서 通할 수 있도록하고 出入口는 甲種防火門으로 한다.

- ㉔ 直接 노대 또는 外氣에 向하여 開放할 수 있는 窓을 設置하거나 排煙設備을 하여야 한다.
- ㉕ 반자 및 벽의 室内面에는 不燃材料로 마감한다.
- ㉖ 予備電源을 갖춘 照明設備
- ㉗ 1 台昇降機의 昇降場面積은 6M² 以上 (但: 屋外에 設置할 때에는 例外)
- ㉘ 避難層에 있는 昇降場이나 昇降路의 出入口로 부터 道路 또는 空地까지의 距離는 30M 以下로 한다. 이 경우 道路는 幅員 4M 以上の 道路이며 空地는 公園·廣場과 같은 建築이 禁止된 空지를 말한다.

② 昇降機의 構造

- ㉙ 予備電源에 依한 可動
- ㉚ 정격속도 60M/Min
- ㉛ 外部와 연락할 수 있는 電話設備

※ 關係條文

法 第22條

令 第129條 내지 第132條

8. 地 下 層

地下層의 用途에 對하여는 建築法에서 規制하지 않고 있으나 有事時에 待避施設로 利用하기爲한 目的으로 그 設置를 義務化한 것이다.

(1) 地下層의 定義

地下層이라 함은 地表面下에 있는 層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地表面까지의 높이가 그 層의 天井높이의 2/3 이상인 것을 말한다.

即 $h \geq 2/3H$ 이어야 地下層이 되는것이다.

(2) 地下層 設置對象建築物

人口 20 万以上 또는 建設部長官이 指定 公告하는 地域의 行政區域안에 建築하는 地上層의 延面積 200M² 以上の 建築物中에서

① 倉庫·火葬場·屠殺場·진애 및 오물처리장 其他 이와 類似한 建築物

② 5 層以下の 建築物로서 建蔽率에 꼭 맞는 空地外에 余裕空地가 當該 建物延面積의 1/8 以上이 있는 建築物

③ 當該 建築物의 地下層에 갈음할 수 있는 施設 또는 自然條件(山 터널과 같은것을 말함)이 있다고 市長·郡守가 認定하는 建築物等을 除外한 建築物은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한다.

延面積에 依한 對象建築物을 定함에 있어 同一地안에 2 株以上 있을 때에는 그 延面積의 合計로, 增築할 때에는 既存과 增築部分의 延面積의 合計로 計算한다.

(3) 地下層 設置基準

- ① 6 層以上 15 層以下の 建築物은 1 個層以上の 地下層
- ② 16 層以上の 建築物은 2 個層 以上の 地下層
- ③ 5 層以下の 建築物은 地上層 延面積의 1/6 以上에 相當하는 地下層을 設置하여야 하며 電氣 冷暖房·給排水等 機械設備을 하는 地下層部分의 面積은 基準面積에 算入하지 아니 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地下層에 機械設備을 하였을 경우 그 相當面積만큼 더 設置하여야 한다.

(4) 地下層의 構造基準

區 分	基 準
構 造	鉄筋콘크리트造 또는 鉄筋鉄骨콘크리트造
壁 두께	20cm 以上
방 자 높 이	2.1M ² 以上
避難施設	地下層의 바닥面積의 合計가 1,000M ² 以上일 때에는 防火壁으로 區劃되는 部分마다 1 個 以上の 避難階段 設置 ※ 防火區劃面積은 令 第96條의 規定에 依한다.

(5) 地下層없이 建築할 수 있는 特例

① 地盤의 地耐力이 長期応力에 對한 許容応力度 200 t/M² 以上일 때로서 建築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경우와 水面위에 建築하는 建築物은 地下層을 設置하지 아니하며

② 建築當時 地下層設置規定에 適合하게 建築된 既存建築物은 地下層을 設置하지 않고 無直으로 增築할 수 있다.

地下層의 設置規定은 1970 年 1 月 1 日 (法律 第2188 号) 改正法에서 처음으로 新設하였으므로 이 以前에 建築한 地下層없는 建築物은 地下層의 規定에 適法한 既存建築物이며 1970. 1. 1 以後 收容人員 1 人當 0.25MP 基準으로 地下層을 設置한것도 適法한 既存建築物로서 地下層없이 無直增築이 可能한 것이다.

※ 關係條文

法 第2條 第5号 및 第22條의 3

法 第53條의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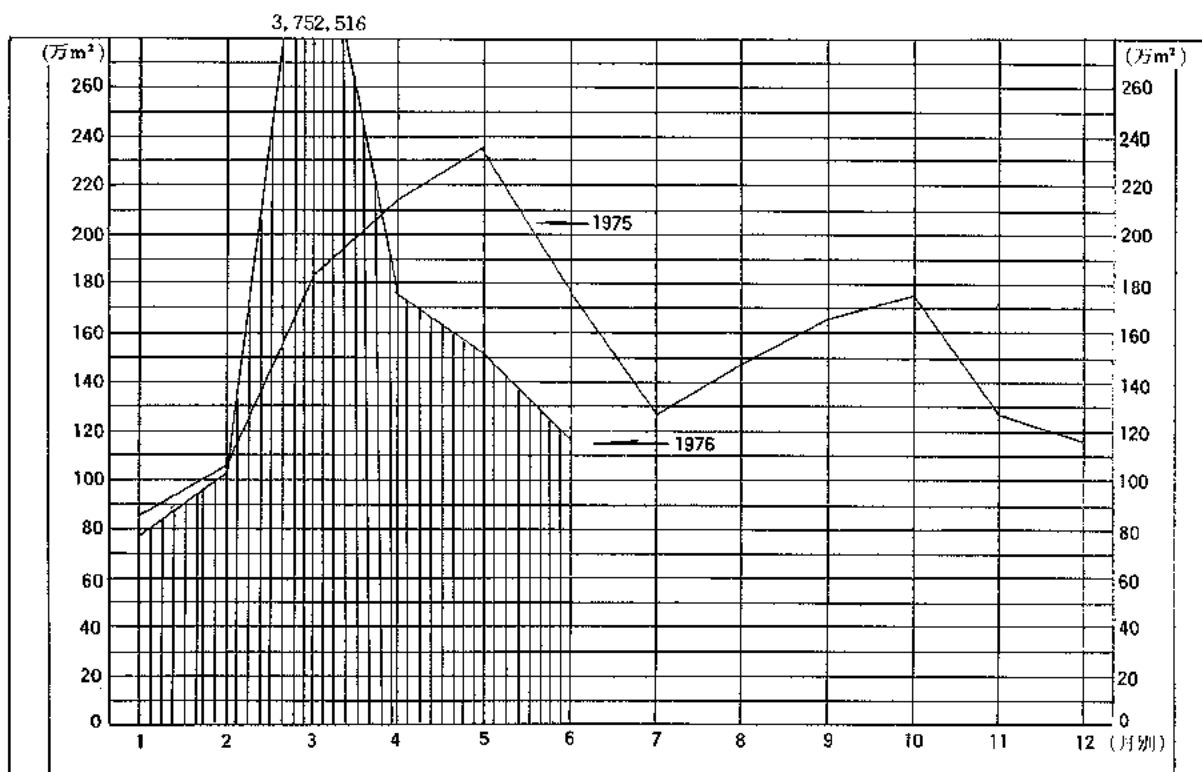
令 第113條 및 第114條

令 第180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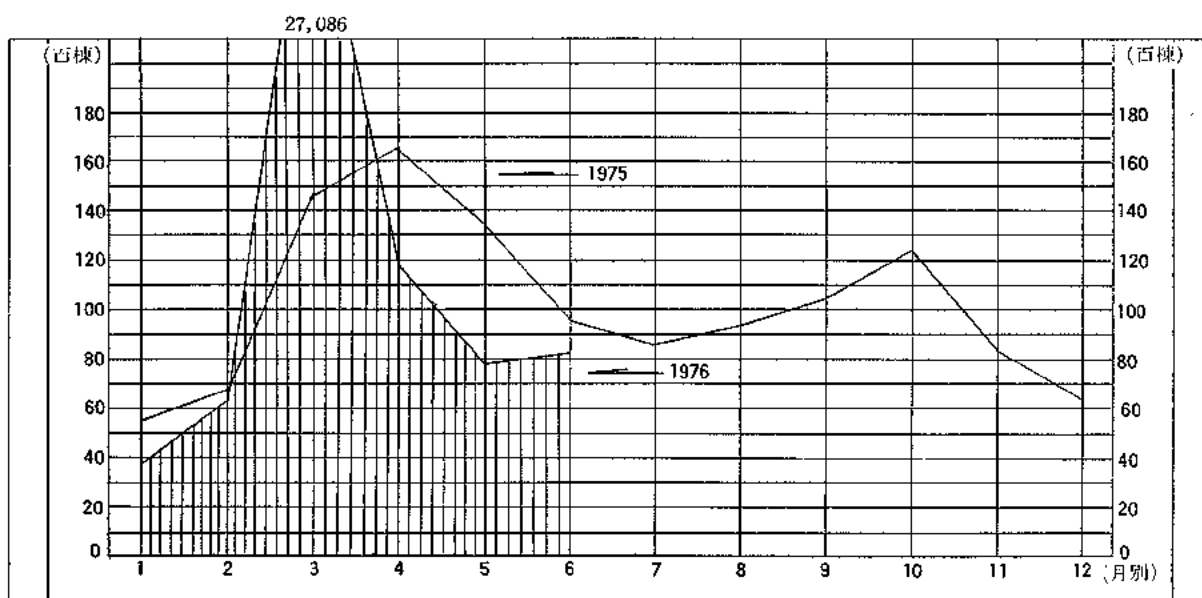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6年6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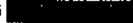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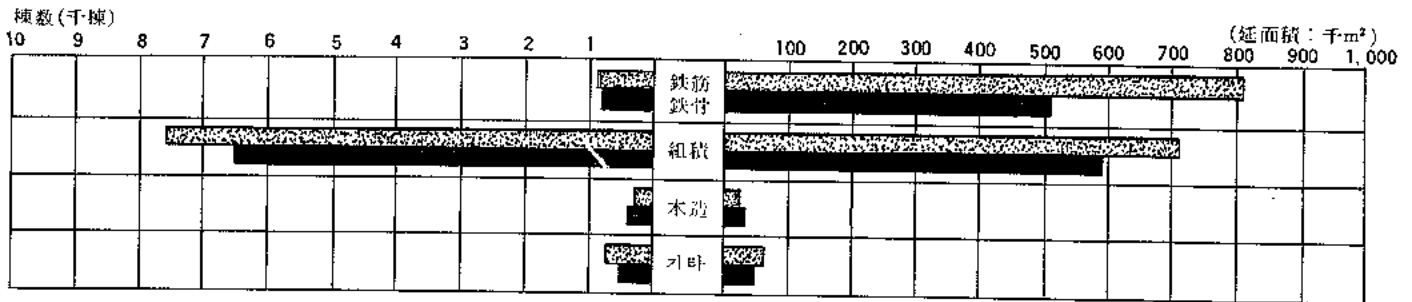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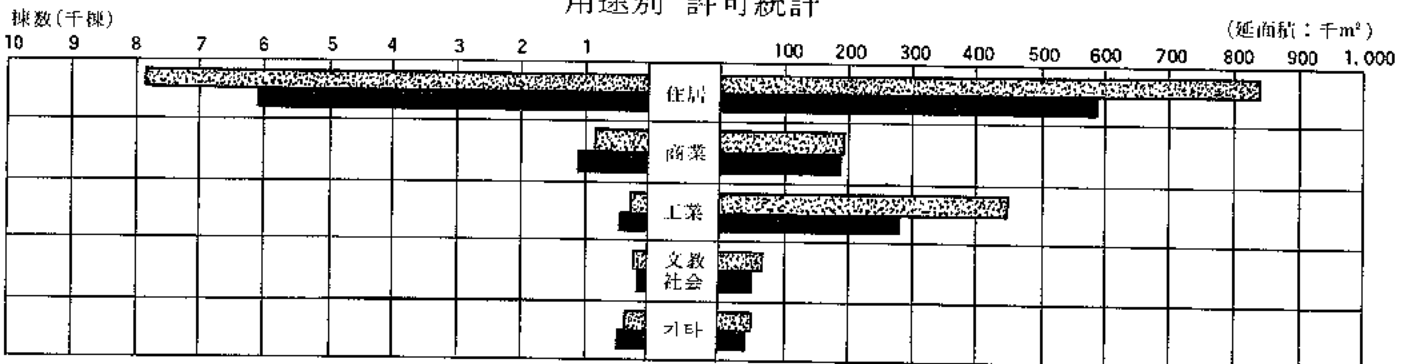
(1976年6月分)

1975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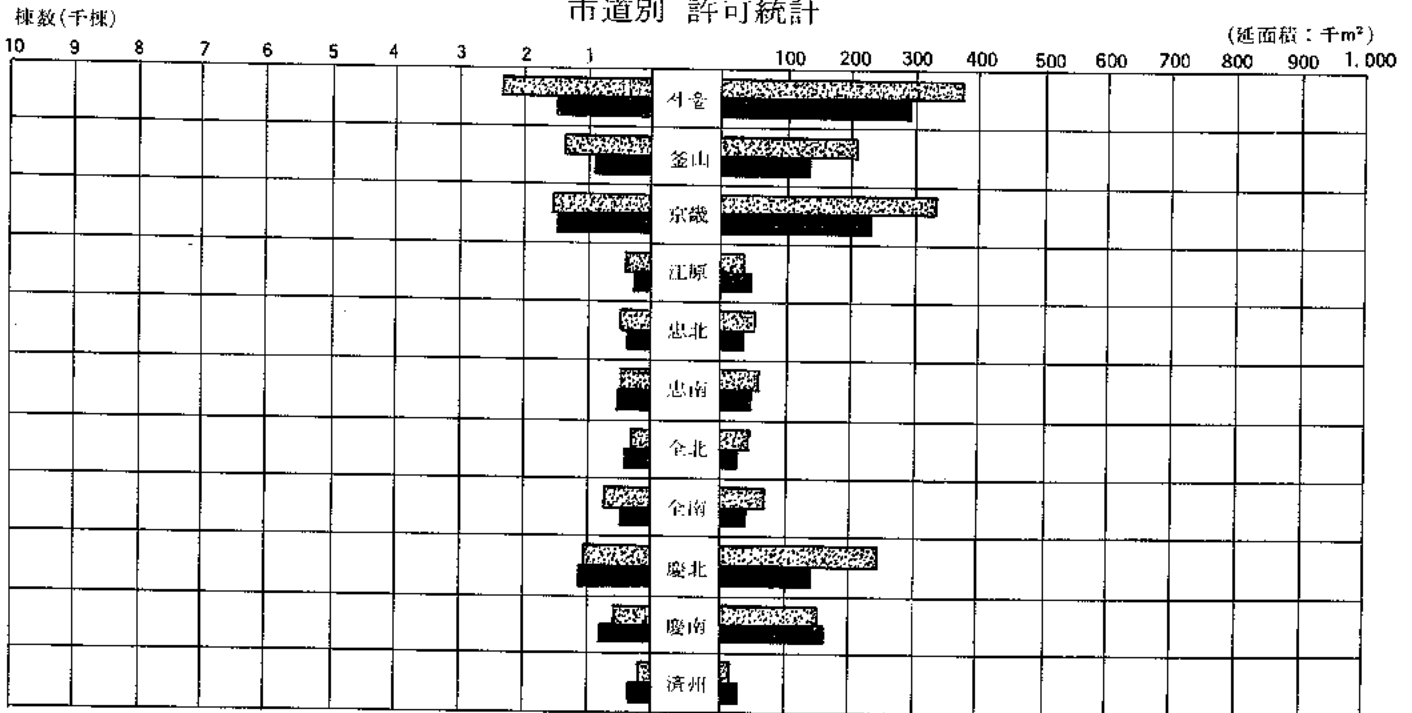
構造別 許可統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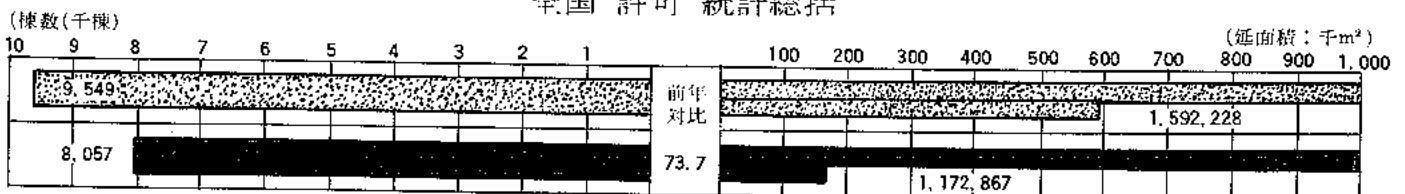
用途別 許可統計



市道別 許可統計



全国 許可 統計総括



1976年度上半期全国建築許可統計

單位：棟 數：棟

延面積：평방미터

用途別 月別許可統計 前年対比

区分 月別	'75		'76		延面積 対比%
	棟 数	延 面 積	棟 数	延 面 積	
1	5,178	842,326	3,914	783,869	93.1
2	6,891	1,177,437	6,580	1,142,075	97.0
3	14,735	1,813,310	27,086	3,752,516	206.9
4	16,668	2,119,282	11,704	1,782,776	84.1
5	13,264	2,288,367	7,855	1,502,443	62.9
6	9,549	1,592,228	8,057	1,172,867	73.7
計	66,285	9,932,950	65,196	10,136,546	102.0

기타	棟 数 延面積	3,805 315,941	2,532 304,097	66.5 96.3
計	棟 数 延面積	66,285 9,932,950	65,196 10,136,546	98.4 102.0

市道別 許可統計 前年対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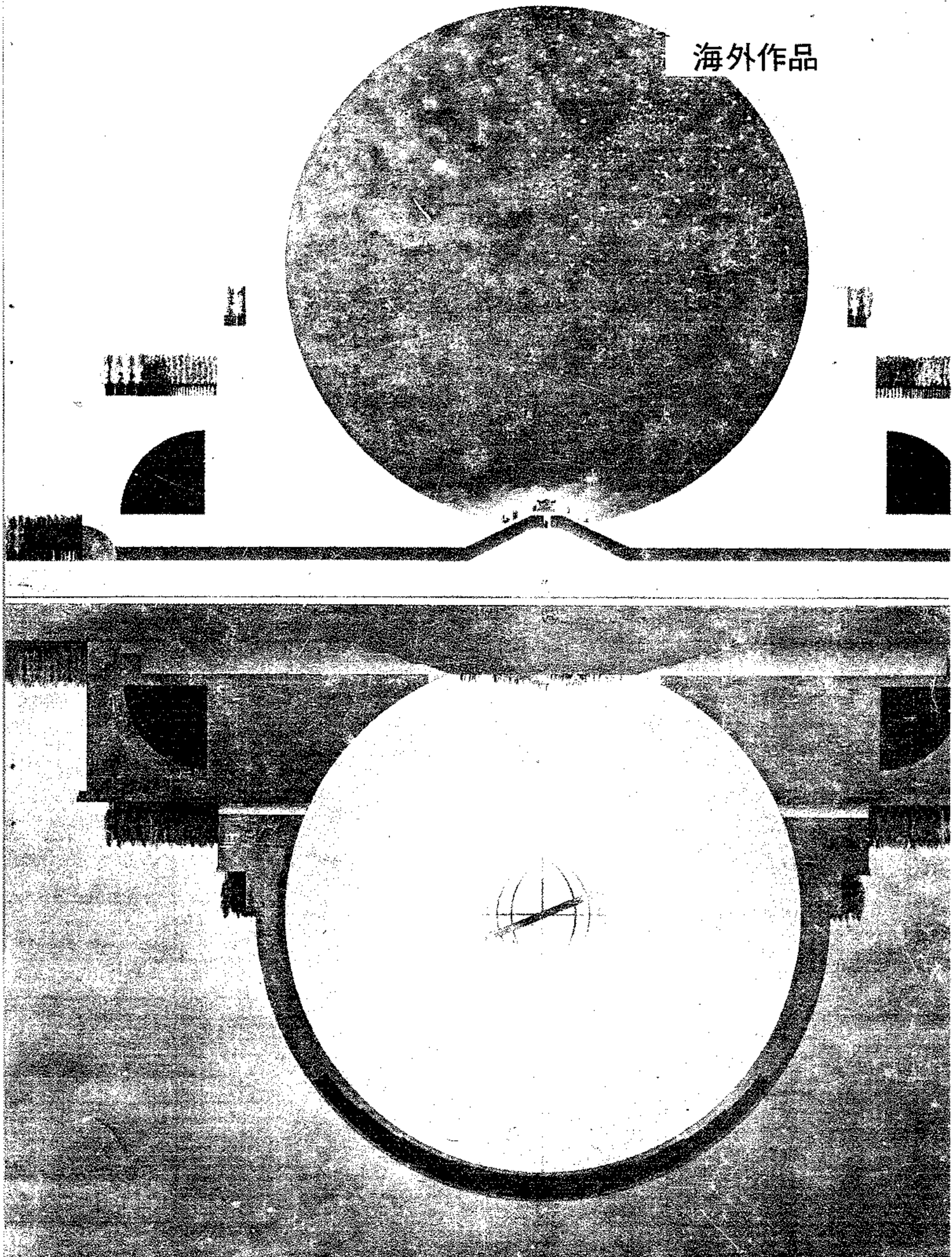
用途別		1 - 6 月		
		'75	'76	%
住居用	棟 数	57,177	53,945	94.3
	延面積	6,815,199	5,963,684	87.5
商業用	棟 数	5,226	6,314	120.8
	延面積	1,169,533	1,608,512	137.5
工業用	棟 数	1,350	2,374	175.9
	延面積	1,269,131	1,823,902	143.7
文教 社会用	棟 数	866	743	85.8
	延面積	417,995	361,435	86.5
기타	棟 数	1,666	1,820	109.2
	延面積	261,092	379,013	145.2
計	棟 数	66,285	65,196	98.4
	延面積	9,932,950	10,136,546	102.0

市道別	年度別	1 ~ 6 月		
		'75	'76	対比%
서울特別市	棟 数	25,276	22,813	90.3
	延面積	4,569,610	3,915,696	85.7
釜山直轄市	棟 数	7,824	6,976	89.7
	延面積	1,087,442	1,307,719	102.3
京 畿 道	棟 数	8,325	8,860	107.6
	延面積	1,211,019	1,423,450	117.5
江 原 道	棟 数	1,199	1,176	98.1
	延面積	113,659	155,667	137.0
忠 清 北 道	棟 数	2,364	2,271	96.1
	延面積	212,414	225,393	106.1
忠 清 南 道	棟 数	3,492	3,477	99.6
	延面積	360,098	353,796	98.2
全 羅 北 道	棟 数	2,098	2,199	104.8
	延面積	22 1556	202,251	91.3
全 羅 南 道	棟 数	3,344	3,735	111.7
	延面積	319,362	390,983	122.4
慶 尚 北 道	棟 数	7,093	7,479	105.4
	延面積	990,831	1,024,331	103.4
慶 尚 南 道	棟 数	4,176	4,223	101.1
	延面積	716,142	996,594	130.9
濟 州 道	棟 数	1,184	1,987	167.8
	延面積	88,817	140,666	163.9
計	棟 数	66,285	65,196	98.4
	延面積	9,932,950	10,136,546	102.0

構造別許可統計 前年対比

用途別		1 - 6 月		
		'75	'76	%
鉄 筋 鉄 骨	棟 数	5,628	6,969	123.8
	延面積	4,324,181	4,560,291	105.5
組 積	棟 数	54,978	53,579	97.5
	延面積	5,173,088	5,107,473	98.7
木 造	棟 数	1,874	2,116	112.9
	延面積	119,740	164,685	137.5

海外作品



Leth bridge university Canada

건축가 : Erickson, Massey

디자이너 : Arthur Erickson

프로젝트담당 건축가 : Ron Bair, Garry Harison, Rob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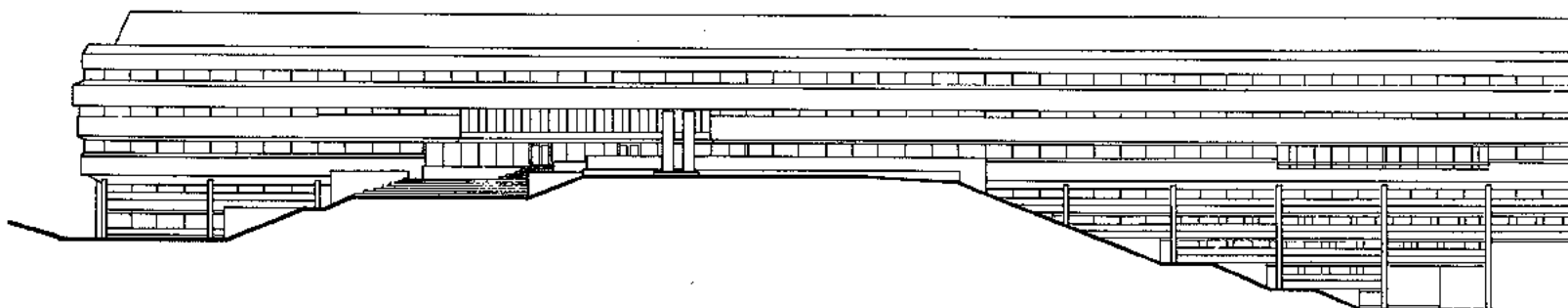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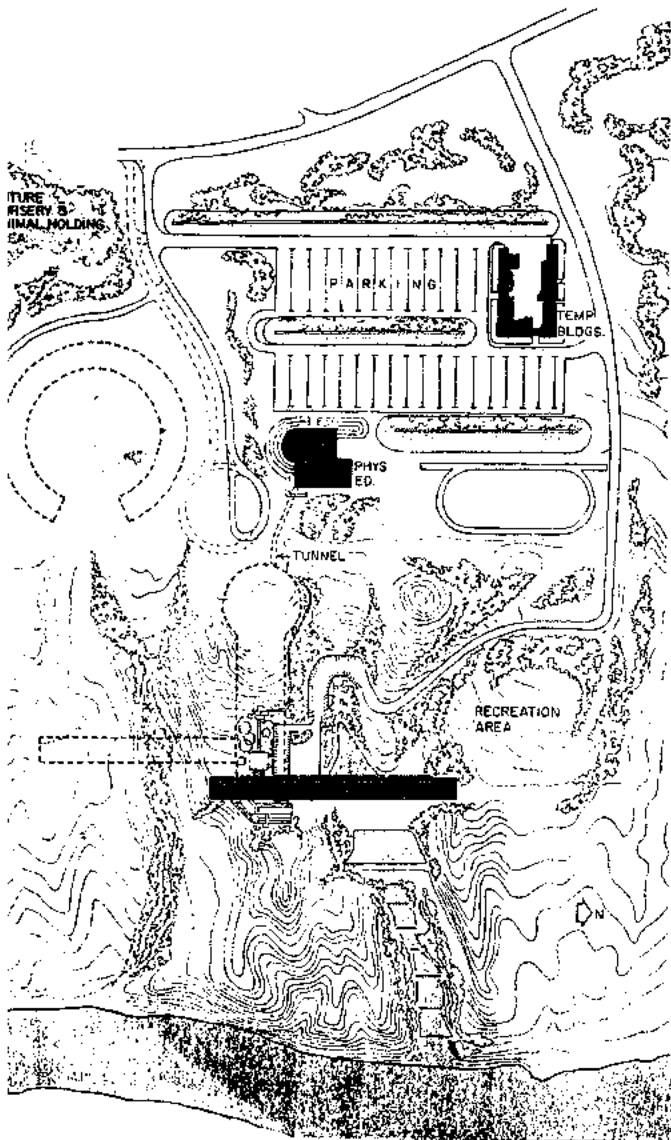
Mitchell Watson

기 사 : Bogue Babicki & Association (구조)

Ripley Klohn & Leonoff International Ltd (기초)

Reid, Crowther & Associ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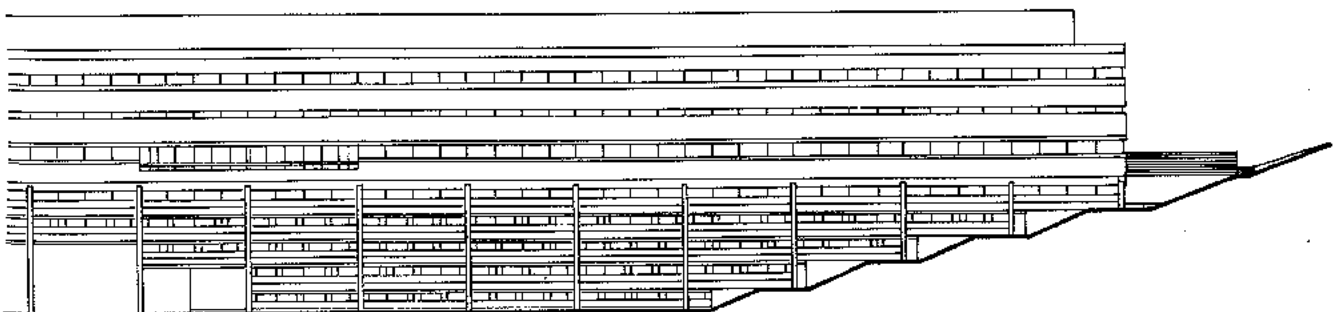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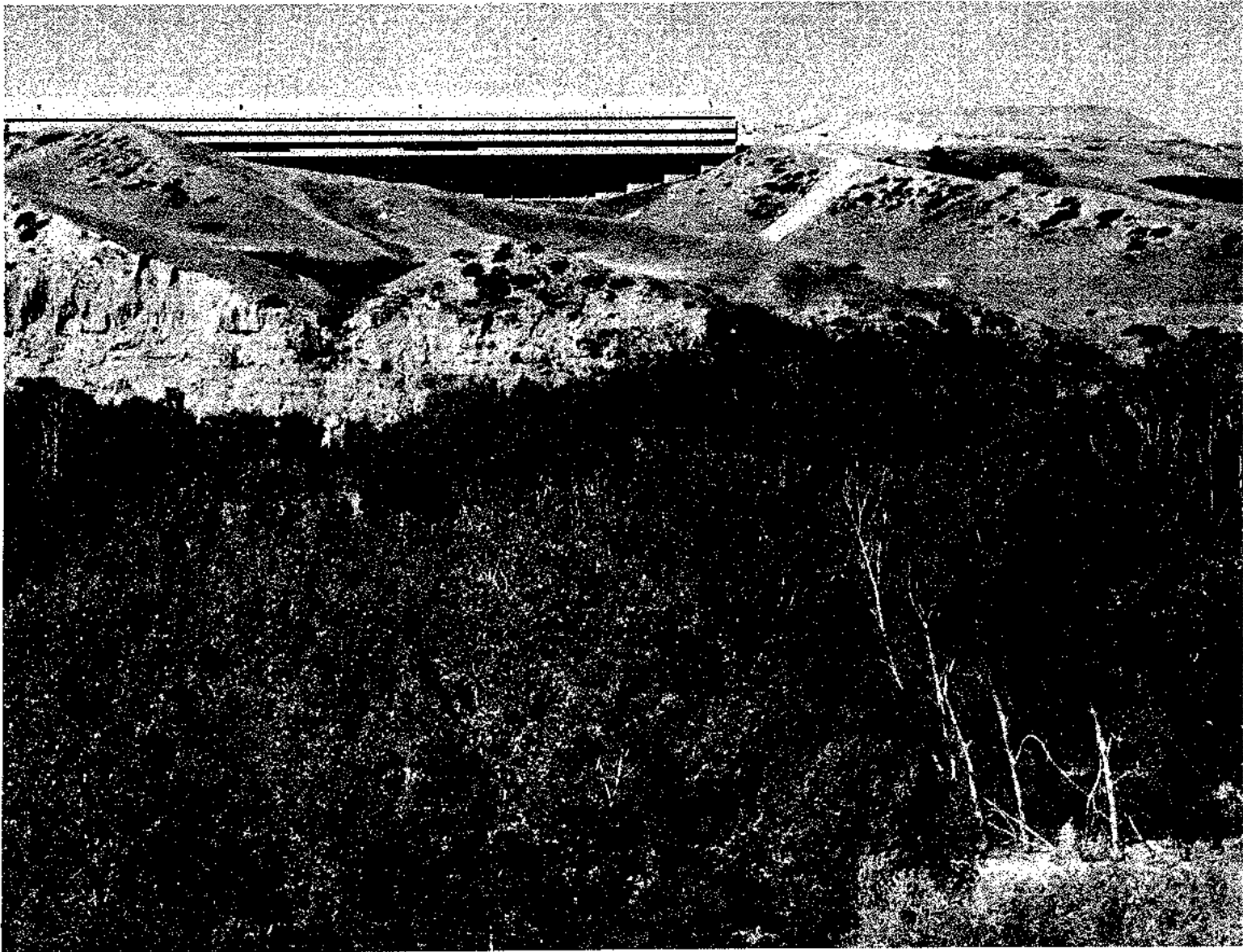
(기계설비, 전기설비)



시 공 자 : Poole Construction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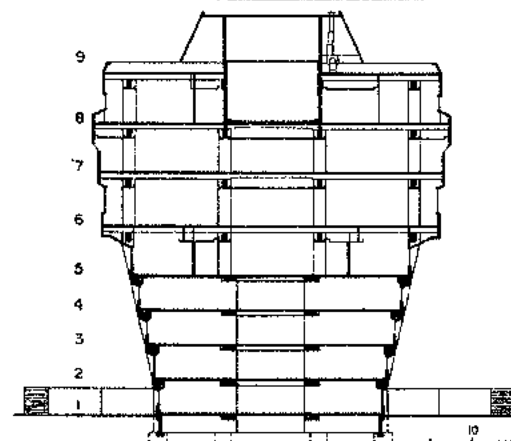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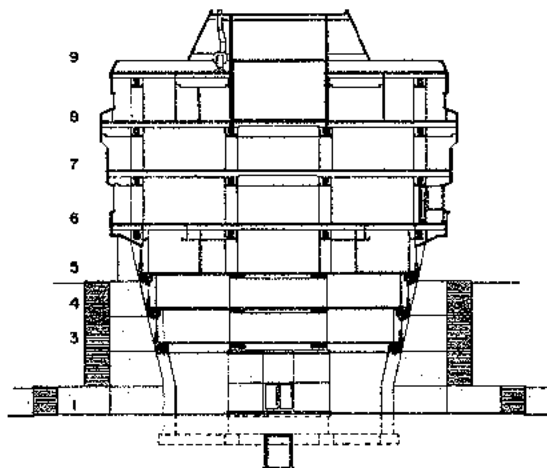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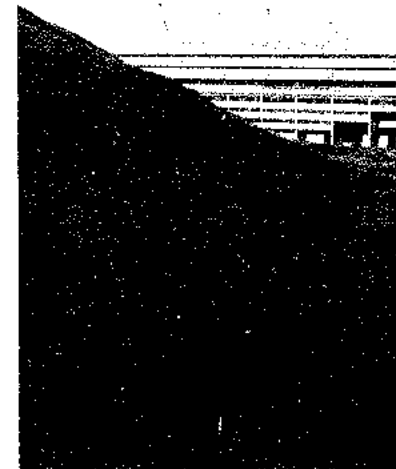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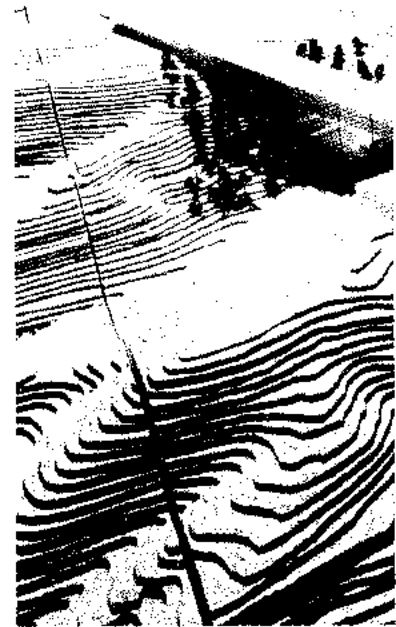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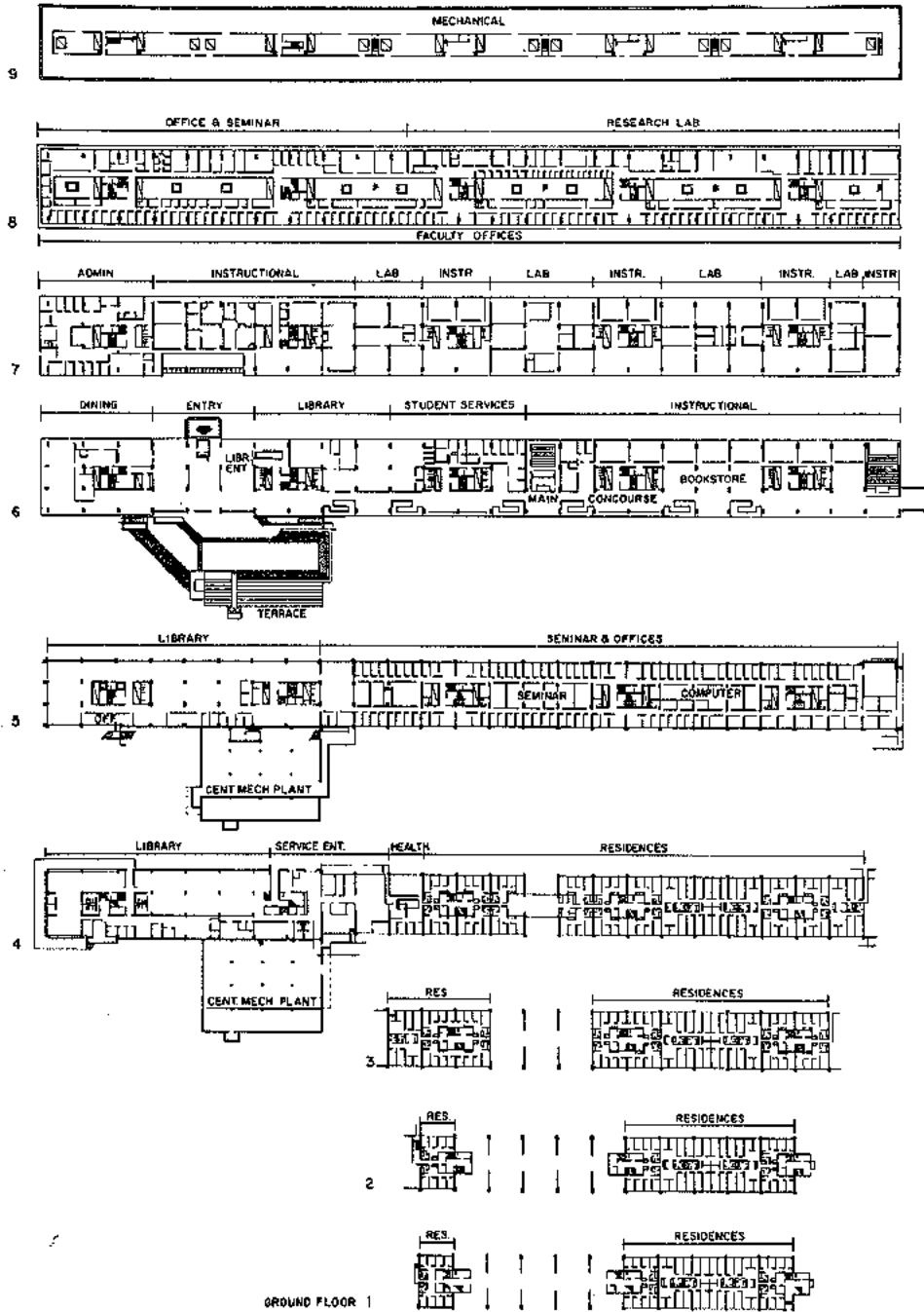
연 면 적 : 40,000m²

학 생 수 : 1,8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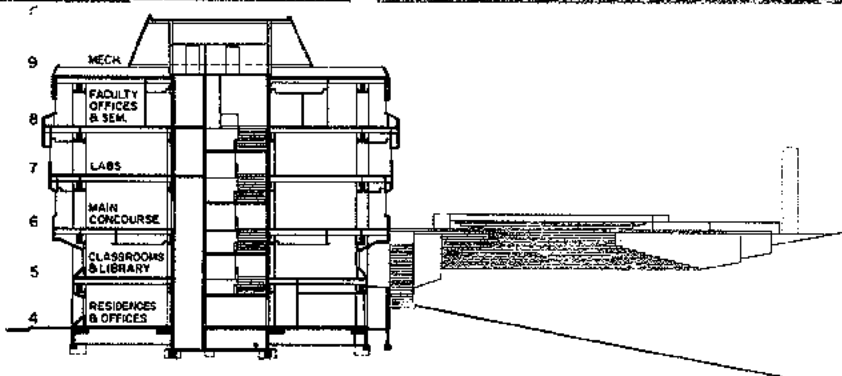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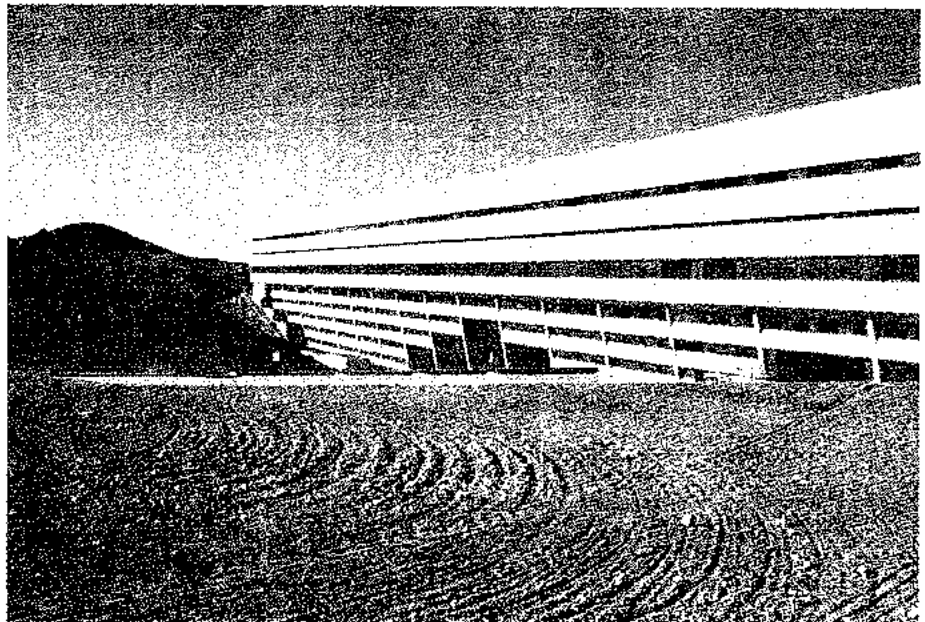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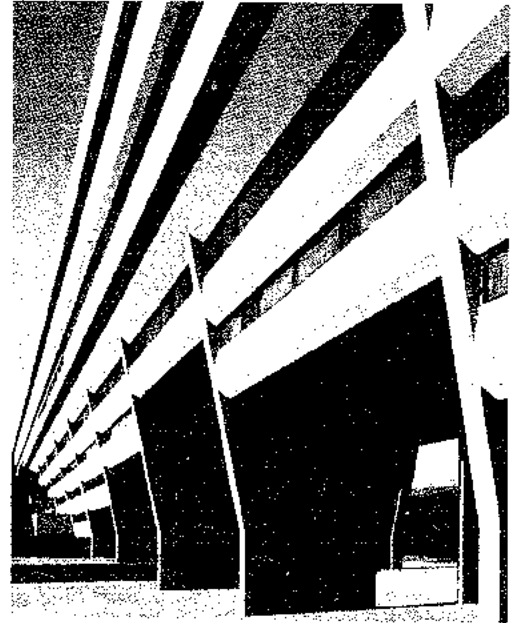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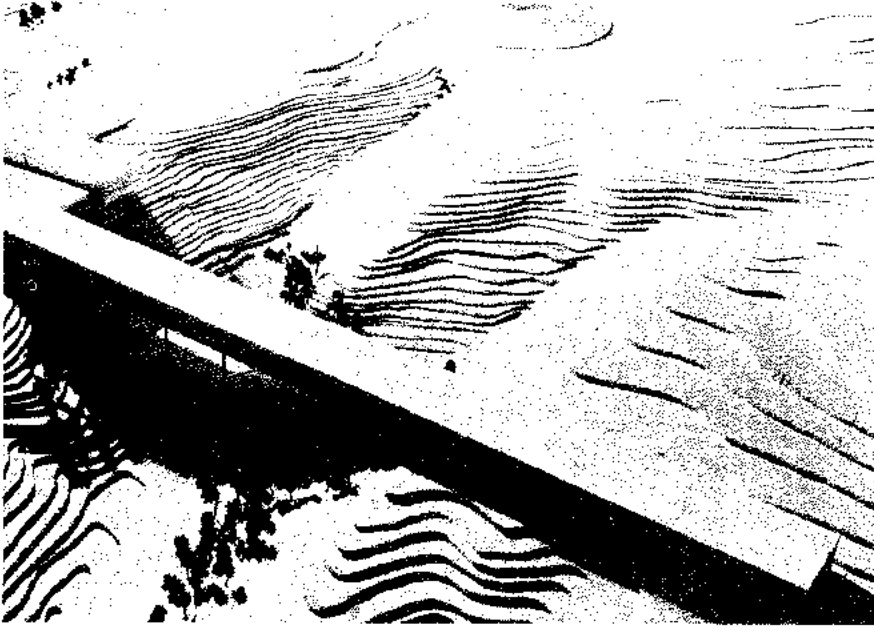


전체모형

- a. 下左사진 : 직선적인 건물이 평원의 작은 골짜기를 가로
지르고 중앙에 출입구 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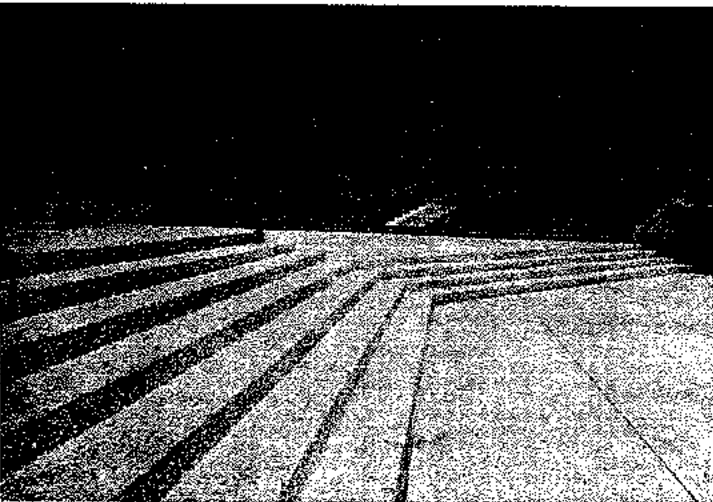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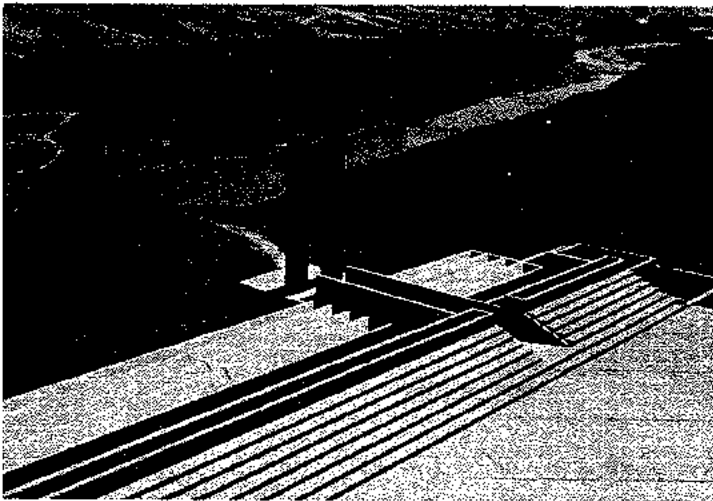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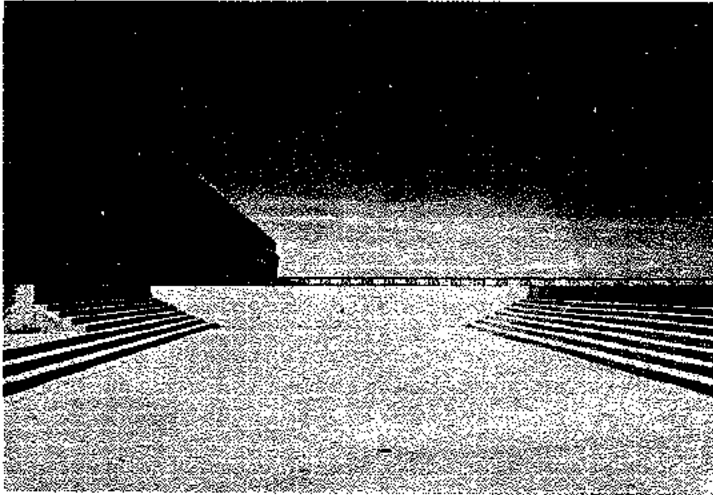


b. 아래사진 : 출입구와 상하층 전면의 디테일. 하층은 기복이 심한 대지를 뚫고 지나갔다. 수직으로 움직이는 감을 주는 요소는 횡적인 띠(Band)의 연속성을 깨뜨리며 단층이 지어진 감(感)을 축소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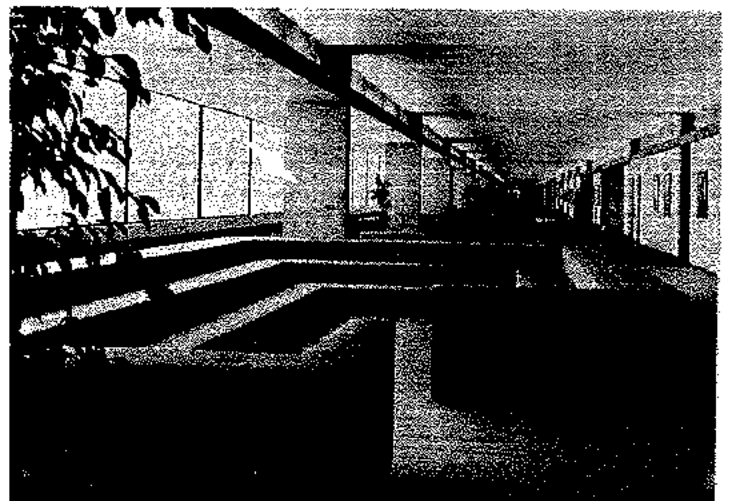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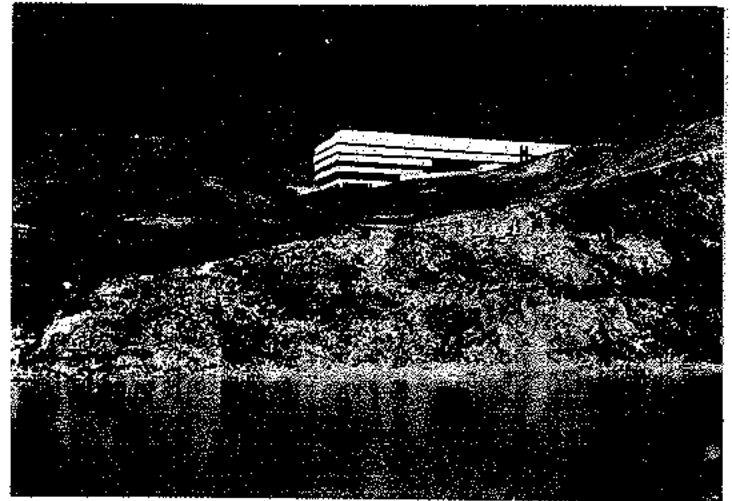
a. 上左 : 테라스에서 철교를 향해 동쪽으로 본 모습.

中左 : 건물의 뒤편 모습, 테라스가 강을 향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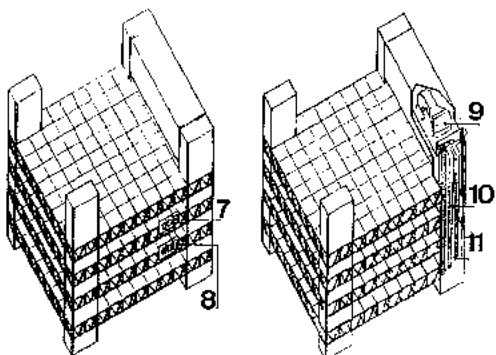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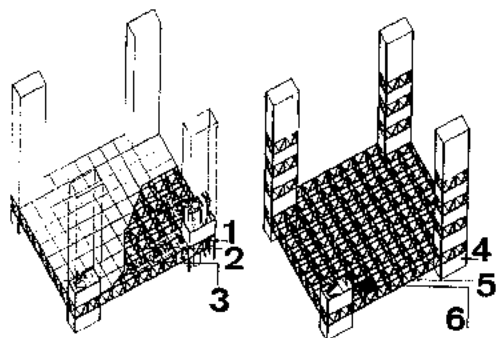
b. 上右 : 강에서 남동쪽으로 본 모습 : 콘크리트와 유리의 기
다란 떠는 상부층의 성격을 부여하며 각종의 기능에 따라
서 그들사이에서의 깊은 상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中右, 中下 : 개방된 넓게 휴식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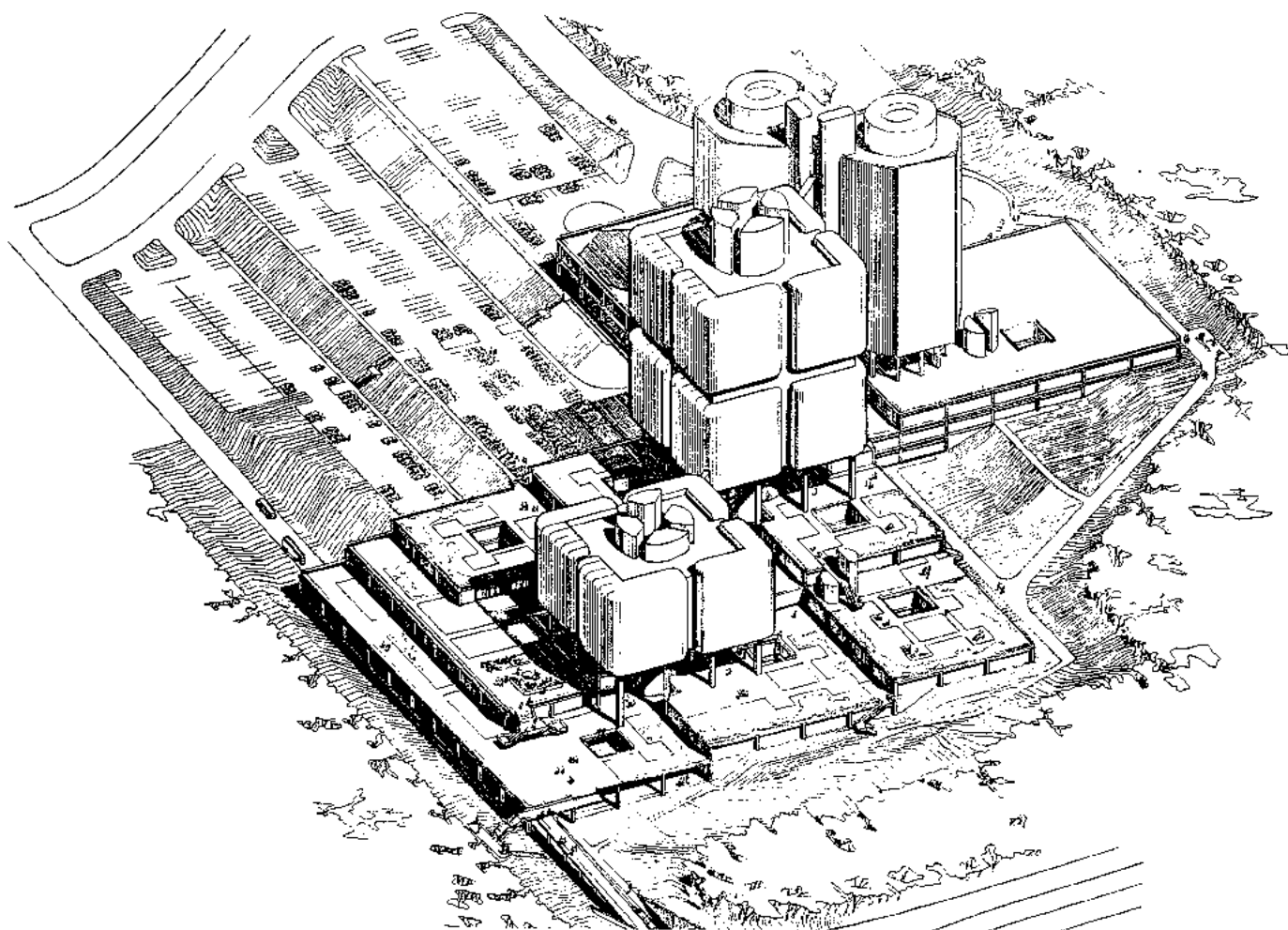
Bertrand Goldbery의 病院建築作品

Mc Master 종합병원 기본계획



- | | |
|------------|---------------------|
| 1) 기계실부 | 2) 배관다트에서 분기된 유체 |
| 3) 부속파이프 | 물 파이프 |
| 5) 수직장선 | 4) 구조체 |
| 7) 창문 | 6) 융통성과 변동사항 (전기, 기 |
| 9) 기초적기계설비 | 계설비 등등)에 대비한 공 |
| 11) 공기다트 | 간. |

건강과학센터 (Health Science Center)의 조감도



대학병원 Story Brook, New York

건축기사 : Bertland Goldbery & Association.

시공회사 : Turner Construction 会社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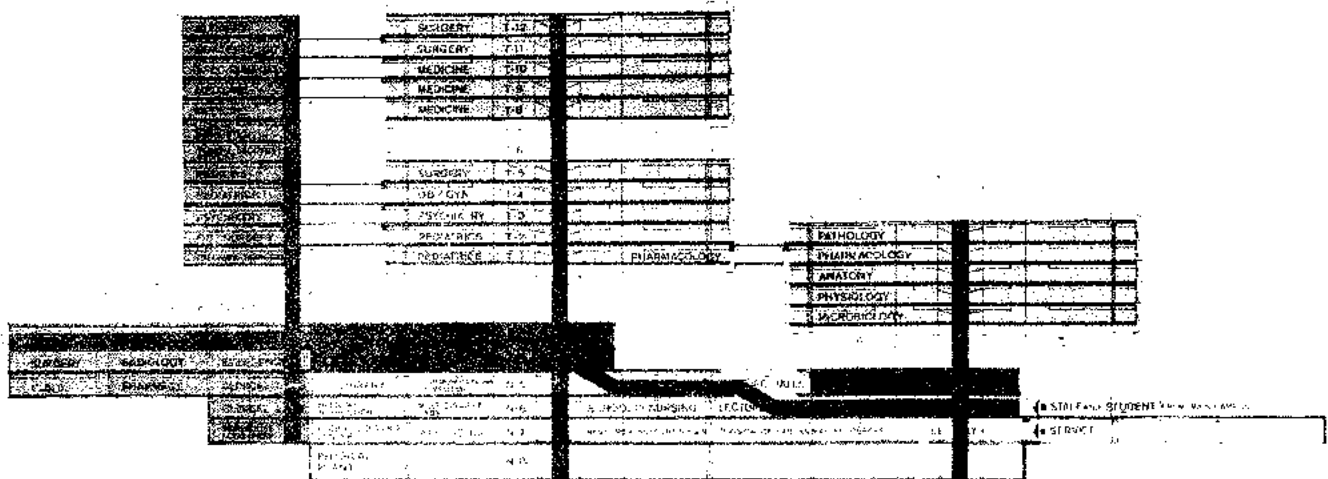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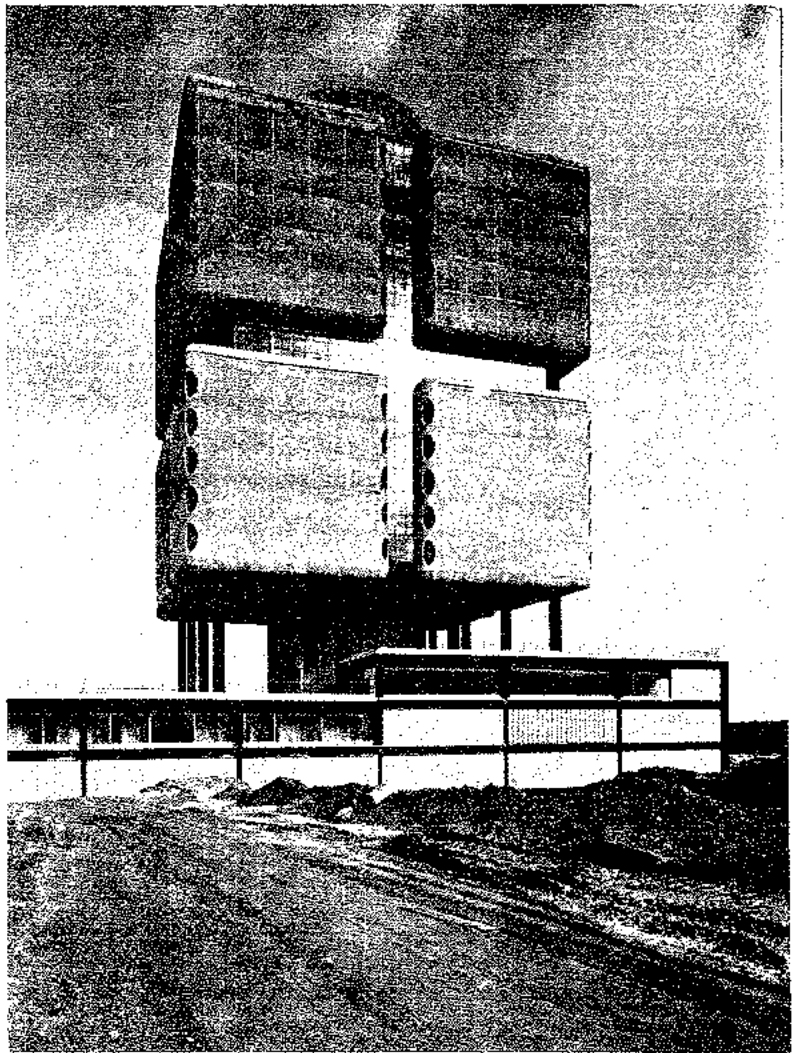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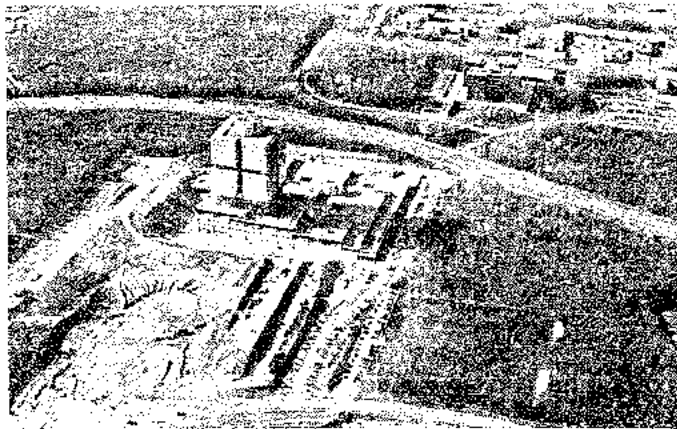
건설비 : \$ 14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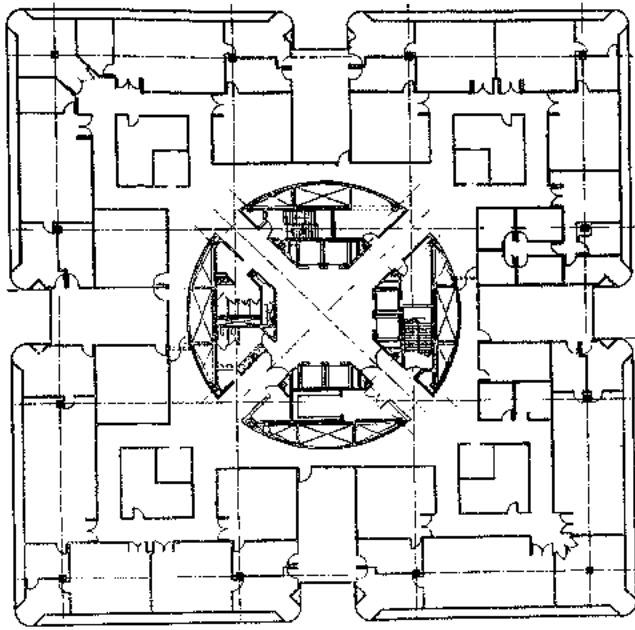
수용학생수 : 3,300

대지면적 : 10ha

프로그램 : 이 건강 센터는 두개의 부분으로 되어있다.

- i) 행정부서, 연구소, 의학교육, 컴퓨터 센터와 도서관이 한 데 모여 86,400m²를 차지한다.
- ii) 540 베드의 대학 병원을 짓기 위해 630,000m²가 유보되어 있다 : 외과, 방사선과, 실험실, 계교육실, X-선실, 소독실, 약국 및 기타 부속 기능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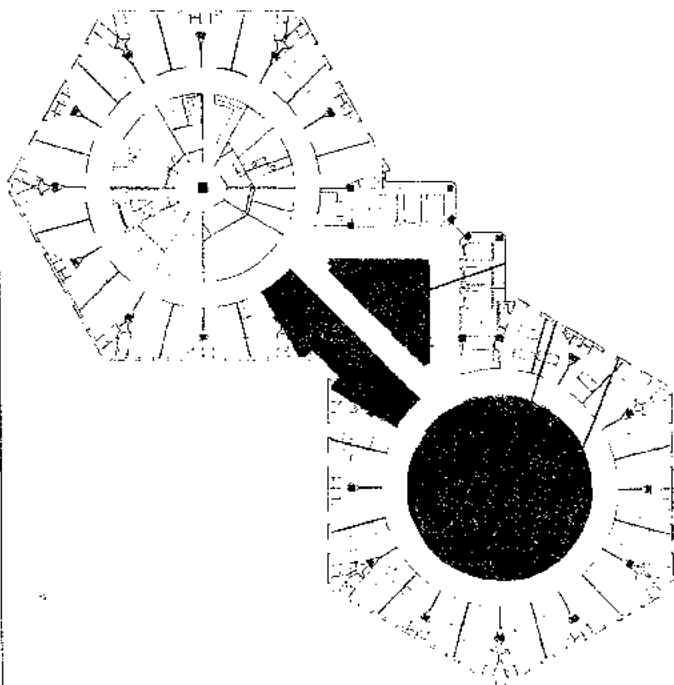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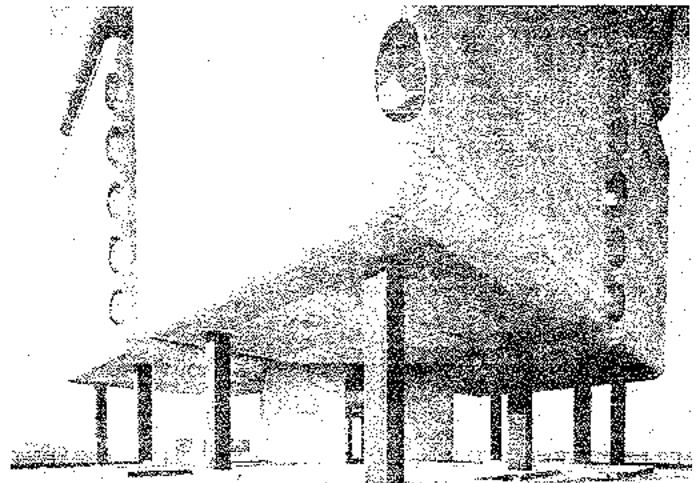


Clinical Science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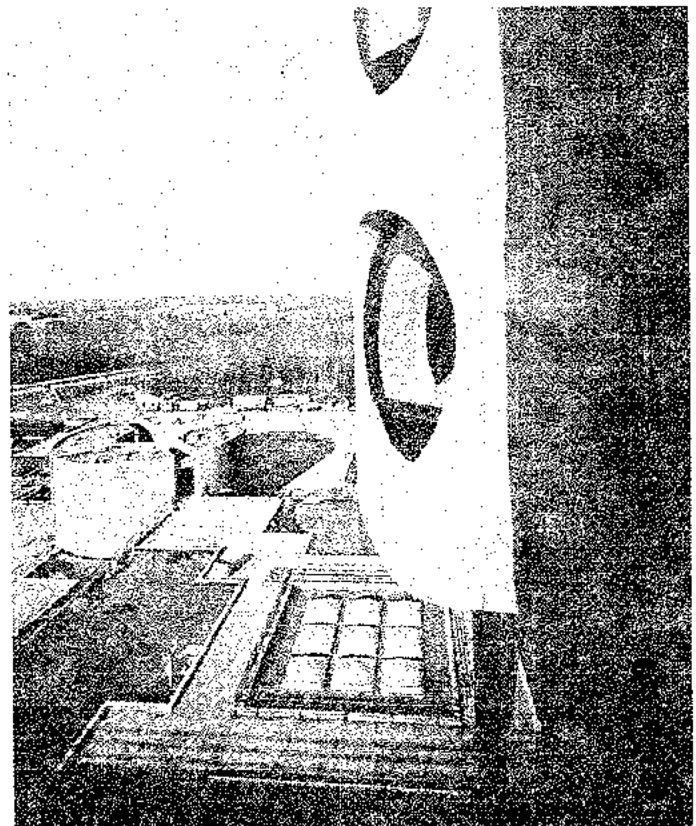
건축적의의 : 교육용 건물이 지상 7층으로 된 것은 아주 큰 건물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인식되어 왔는데 그런 편견아래서 12층의 타워가 세워진 것이다. 이런 megastructure는 구릉 경사 높이에 조화시키고 있고 36,000m²의 모듈에 따라 구획되어 있다.

3개의 타워 구름다리 시스템 (Le Systeme de passerelles)으로 연결되어 있다.

구조 : 철골구조, Woof, 48' x 48', 리캐스트 콘크리트



Hospital Tower



여성을 위한 Prentice hospital과 정신의학연구소 건축가 겸 기사 : Bertland Goldberg & Association

시 공 자 : Paschen-Newburg

건 설 비 : \$ 17,000,000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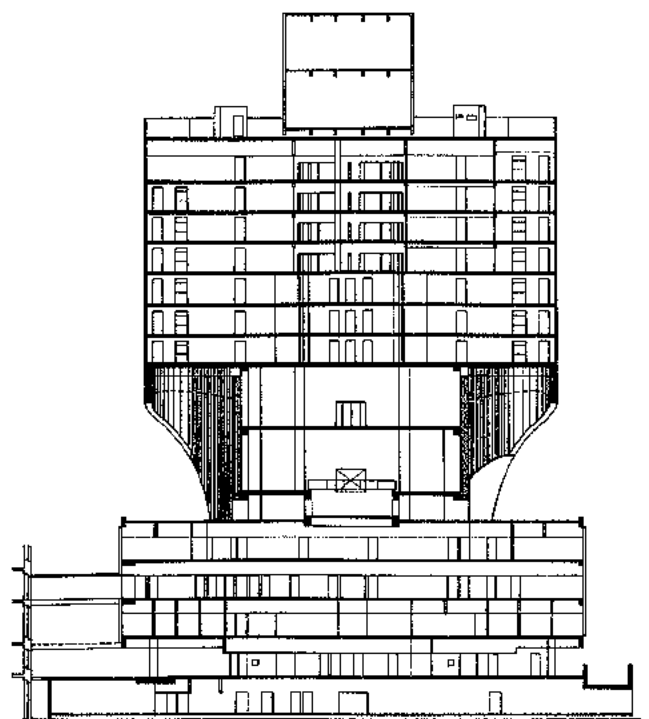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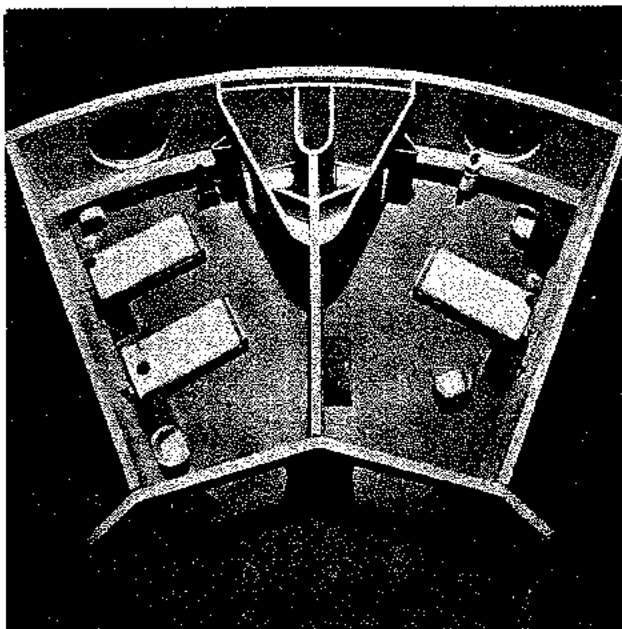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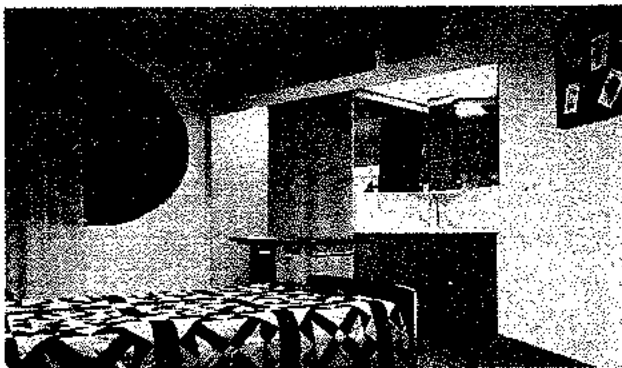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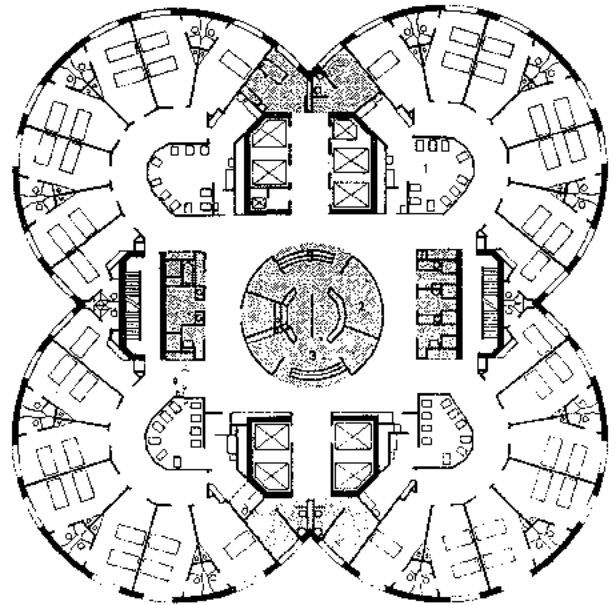
연 면 적 : 279,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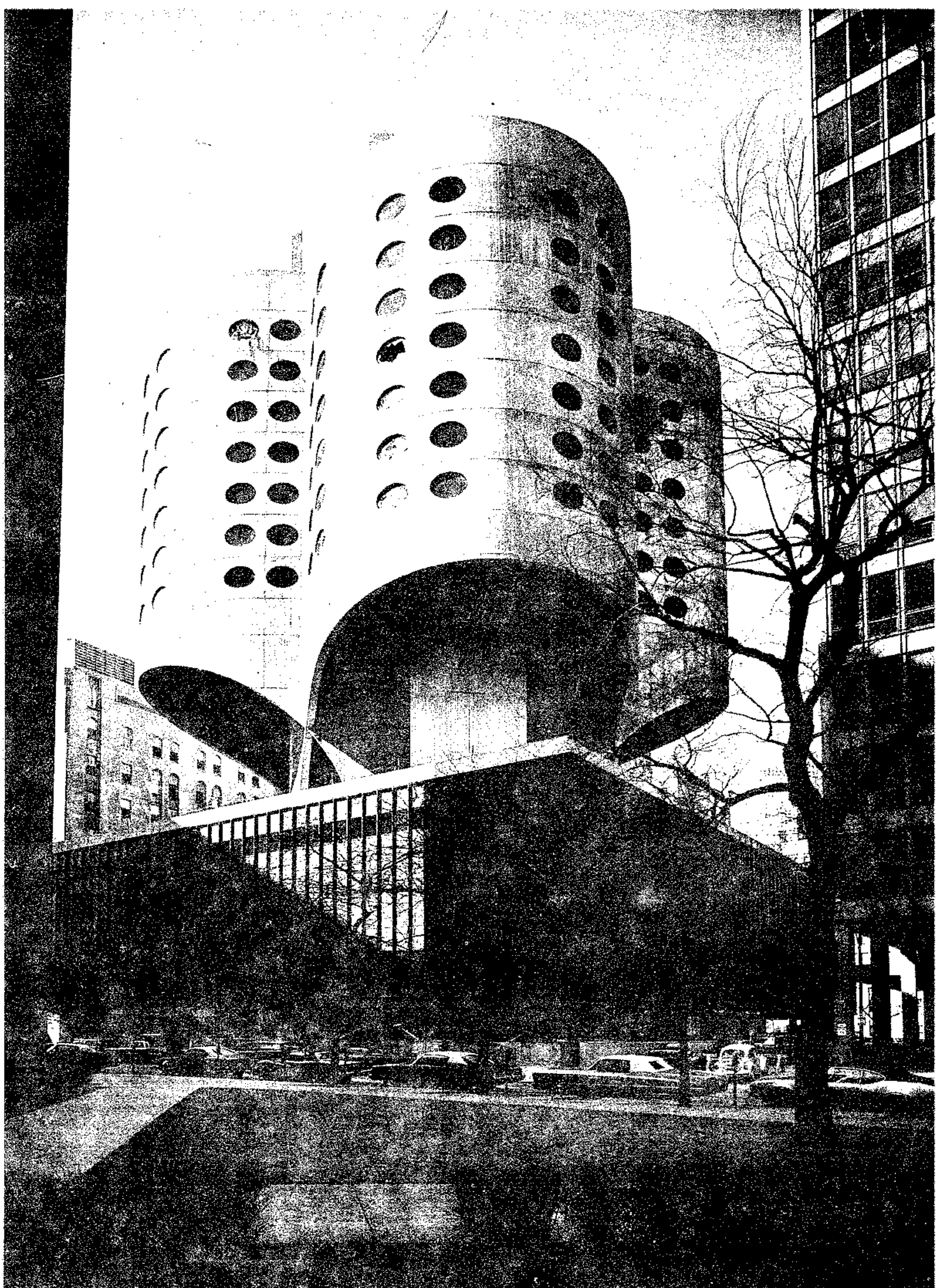
프로그램 : 1층 및 3층 : 일반병원 및 산부인과 병원, 부인과
(科)서비스부, 육아실 등 2층 및 4층 : 정신과 연구소, 7
층 및 타워 : 환자병실.

구 조 : 병실이 있는 타워는 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중앙 core에 걸린 콘크리트 벽체로서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진 건물이다. 각각의 form은 그 기능에 맞게 맞추어져있다.
구조는 prestressed concrete이다.

W oof(Trame(f)) 34' × 34'

- 1) 간호원실
- 2) 중앙 core
- 3) 치료실





Saint-Marie Hospital Milwaukee, Wisconsin

건축가 및 기사 : Bertland Goldberg & Association

시 공 자 : J. A. Jones Construction Company

건설비 : \$ 1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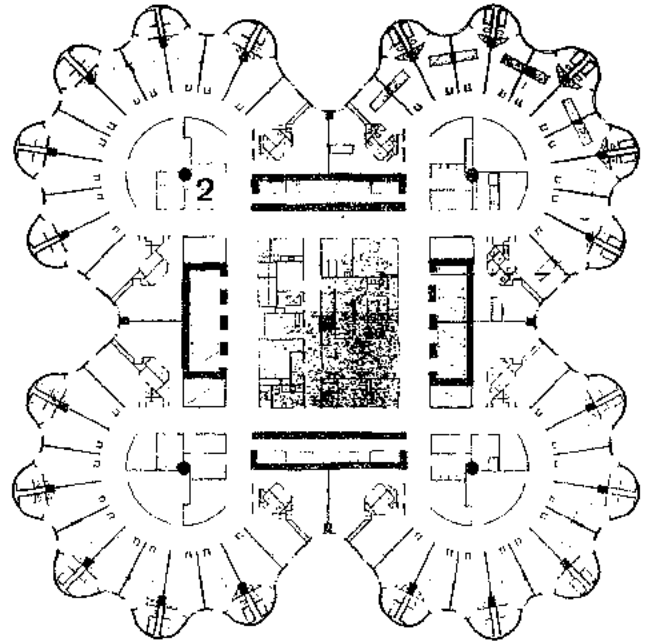
침대수 : 268

연면적 : 286,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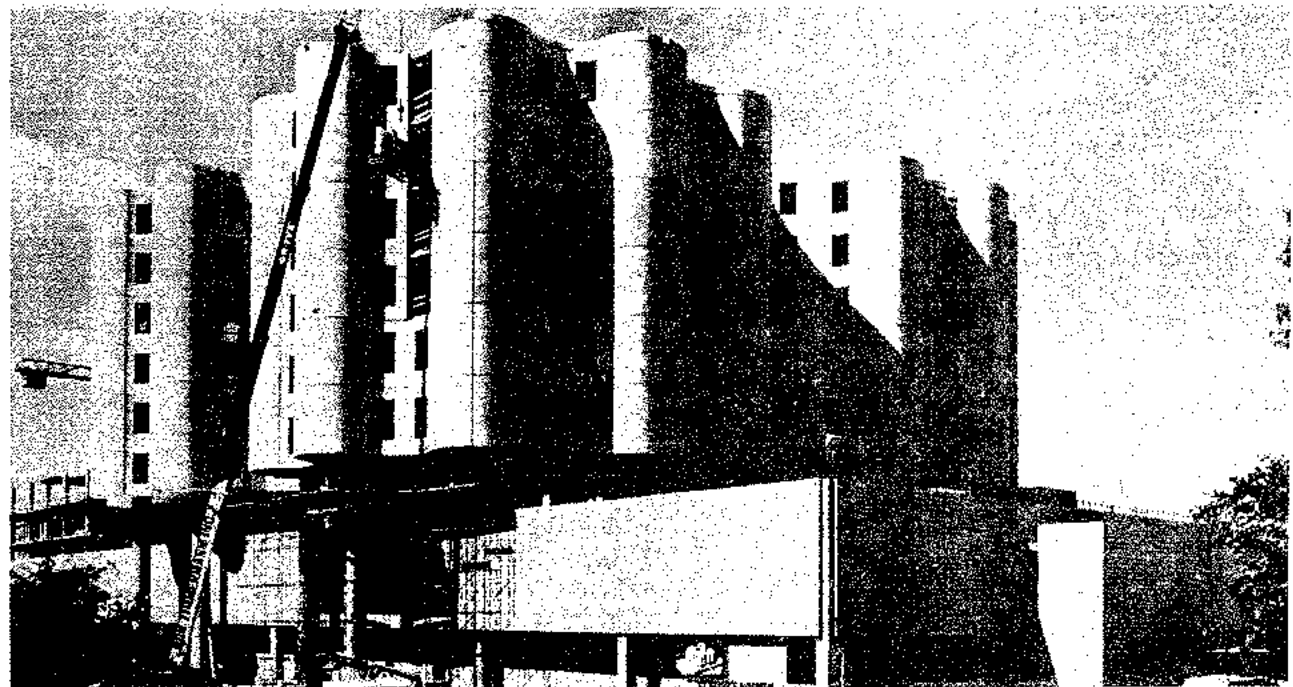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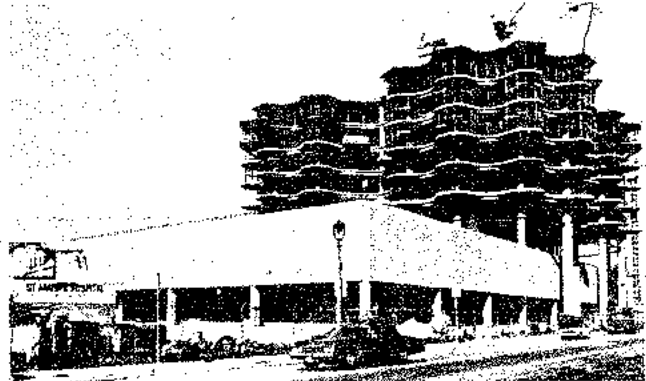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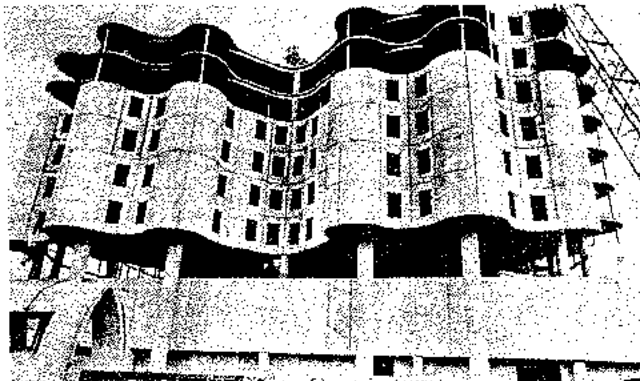
프로그램 : 간호원실 주위에 14개의 방이 둘러있다. 1층당 56베드를 수용한 4개의 그룹이 있다. 타워의 다섯층은 동선을 포용하는 중앙 core 주위에 방사선 모양으로 환테 원주 시스템 (column system) 으로 지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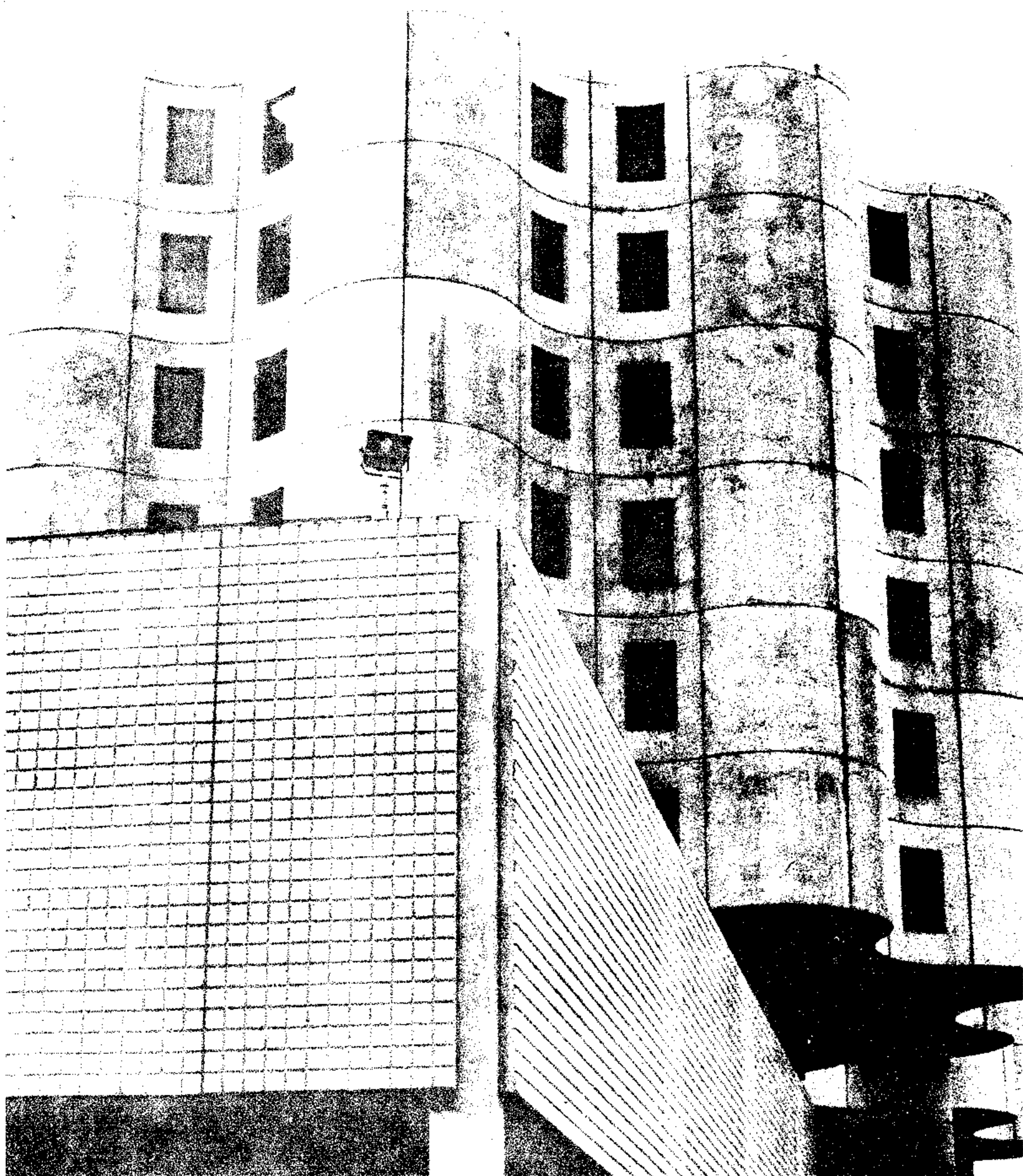
구조 : Prestressed concrete

Woolf 38' x 38'



1) 중앙 core
2) 치료실





Saint-Joseph Hospital Tacoma, Washington

건축가및기사 : Bertland Glod berg & Association

협력건축가 : Seifert, Forbes, Berry

구조기사 : Abam. Engineers Inc.

시 공 자 : Baugh Construction Company

건설비 : \$ 13,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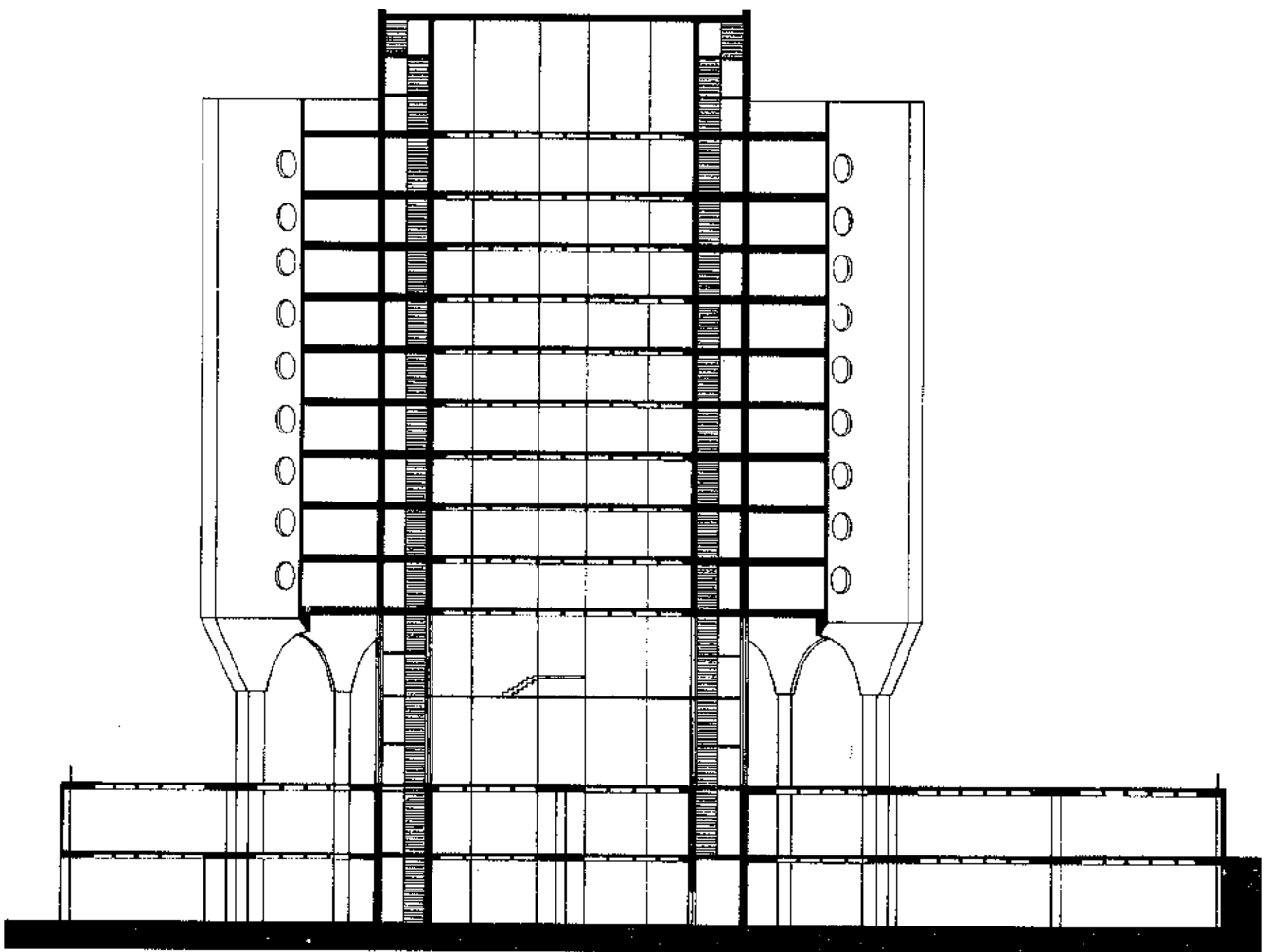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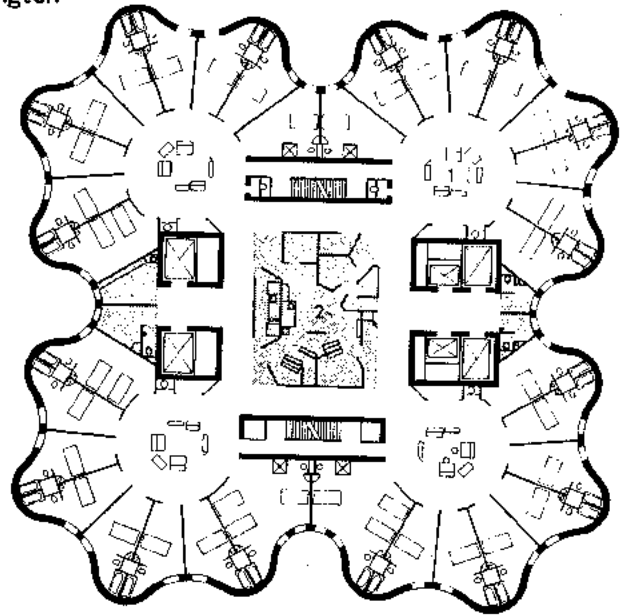
연면적 : 241,0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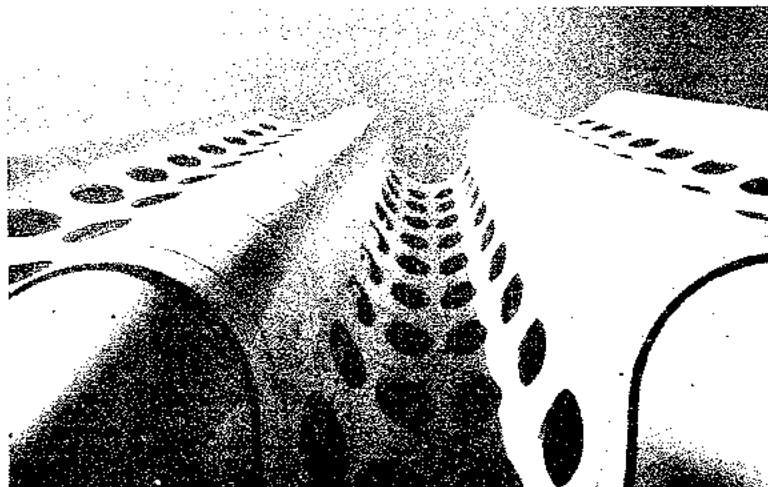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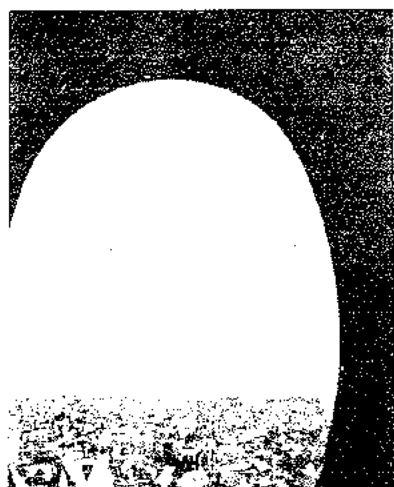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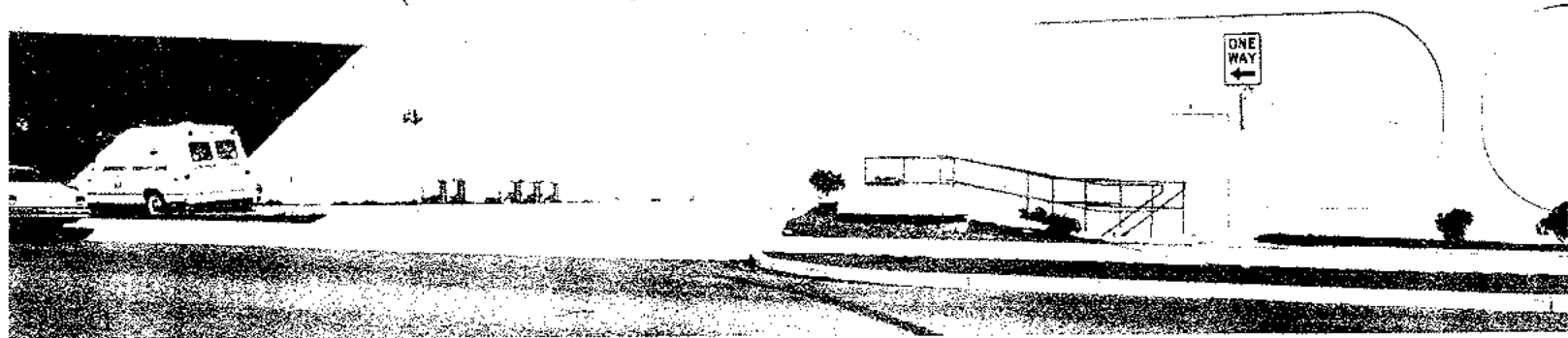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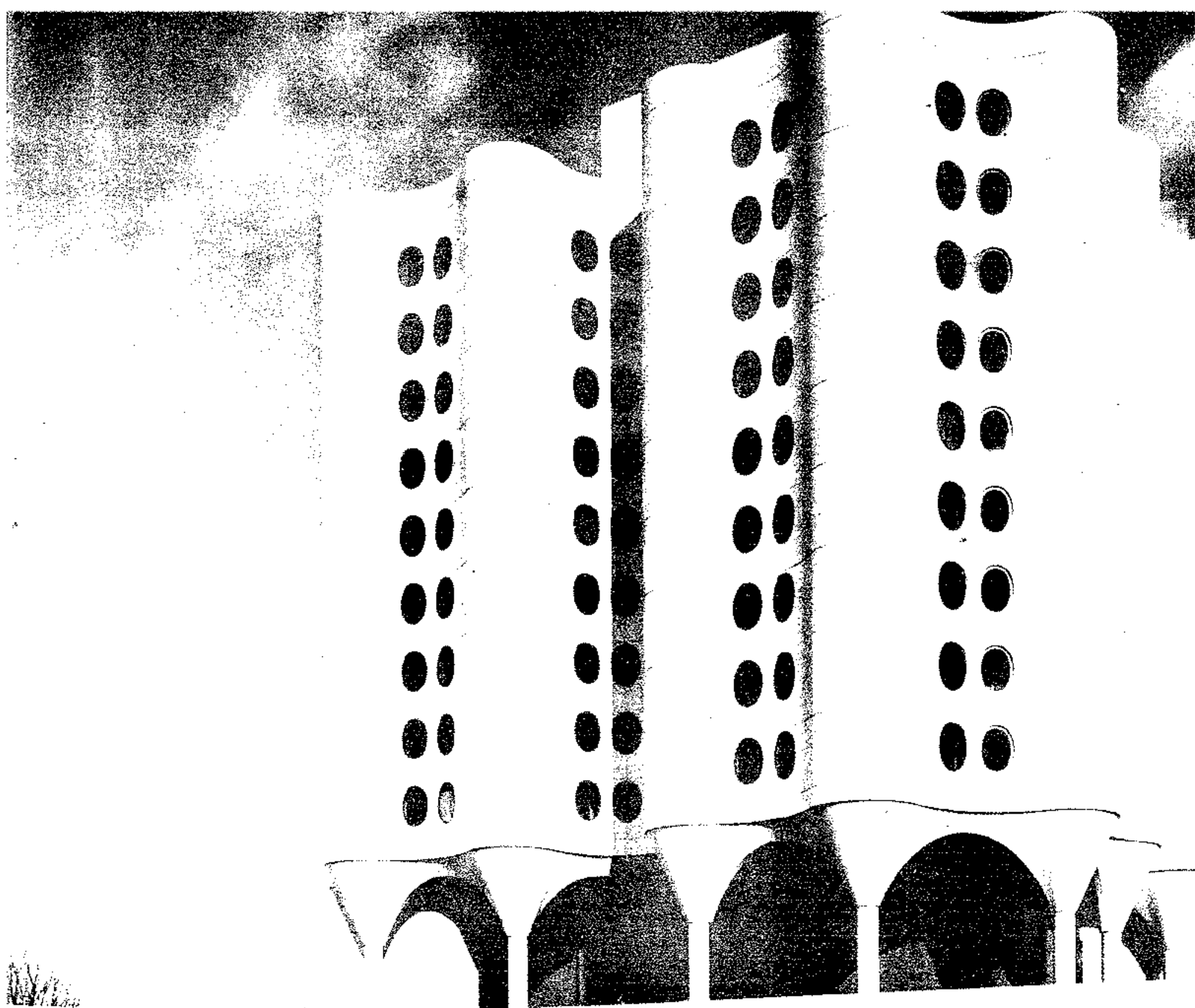
침대수 : 260

프로그램 : 치료실을 중심으로 1그룹당 10개의 침대가 모여

있다. 1층당 4개 그룹으로 되어있다. 벽체의 외부변화가 기능에 따라 요구되는 내부공간을 결정한다. shell의 중량은 장방형의 base가 받아 아치와 기둥을 통해서 기초에 전달된다.

구조 :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 제산된 prestressed concrete woof. 34' x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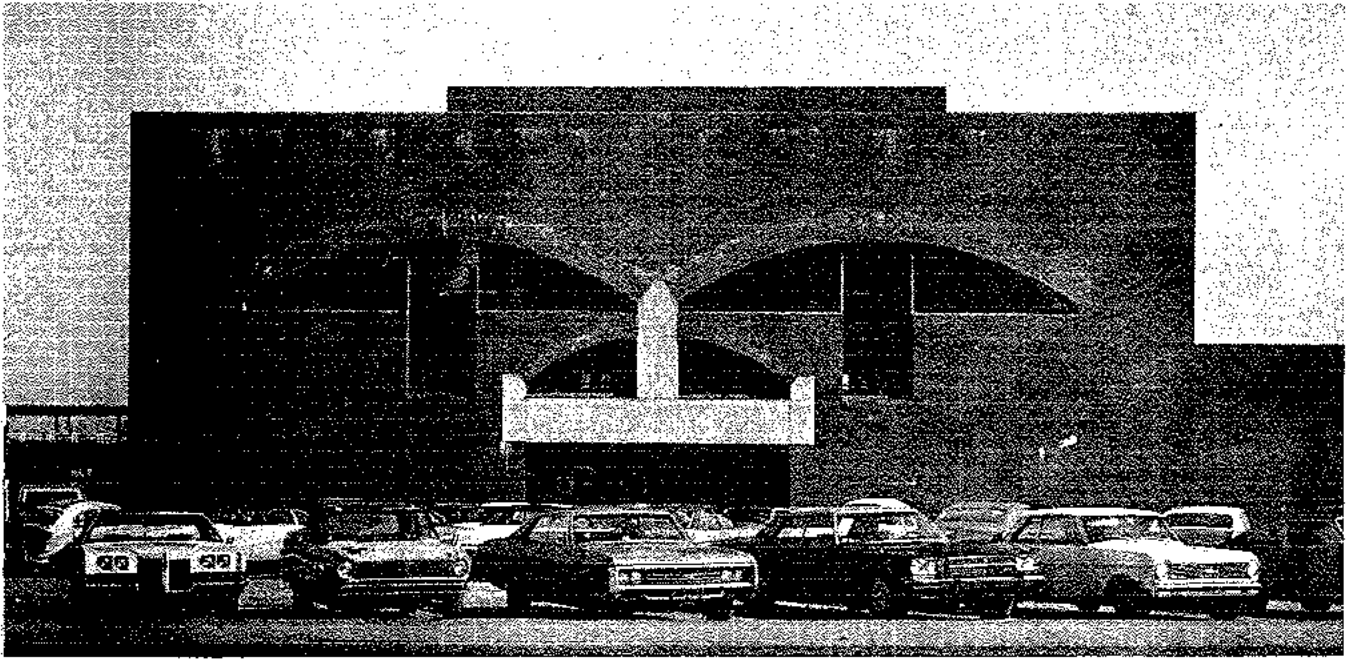




루이스·칸의 作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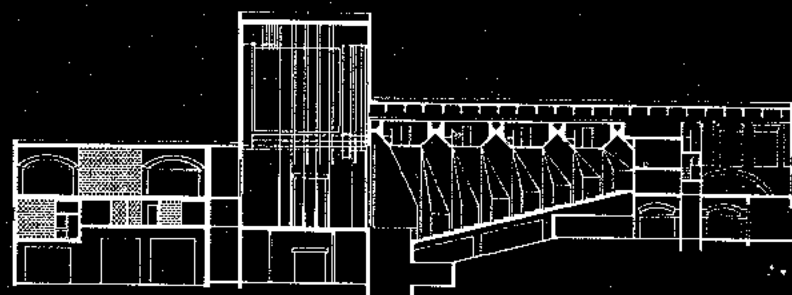
Fort wayne Indiana / 1966 / 73

The Thea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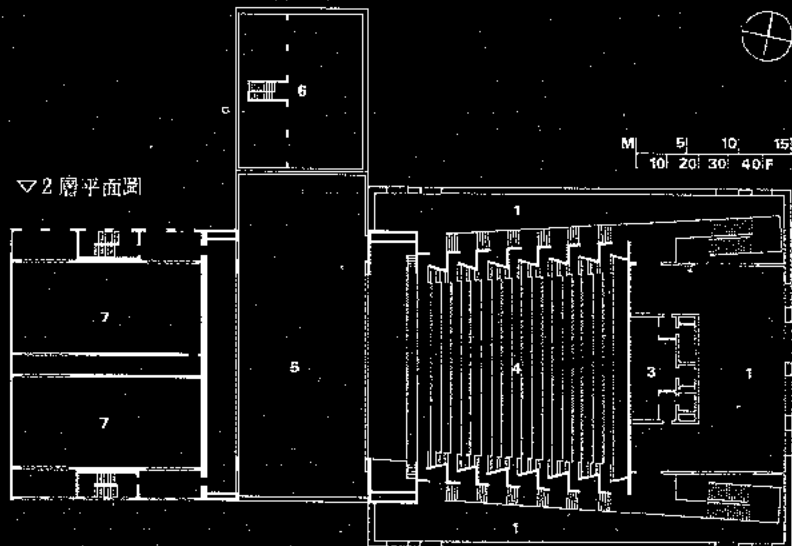


휘 - 드윈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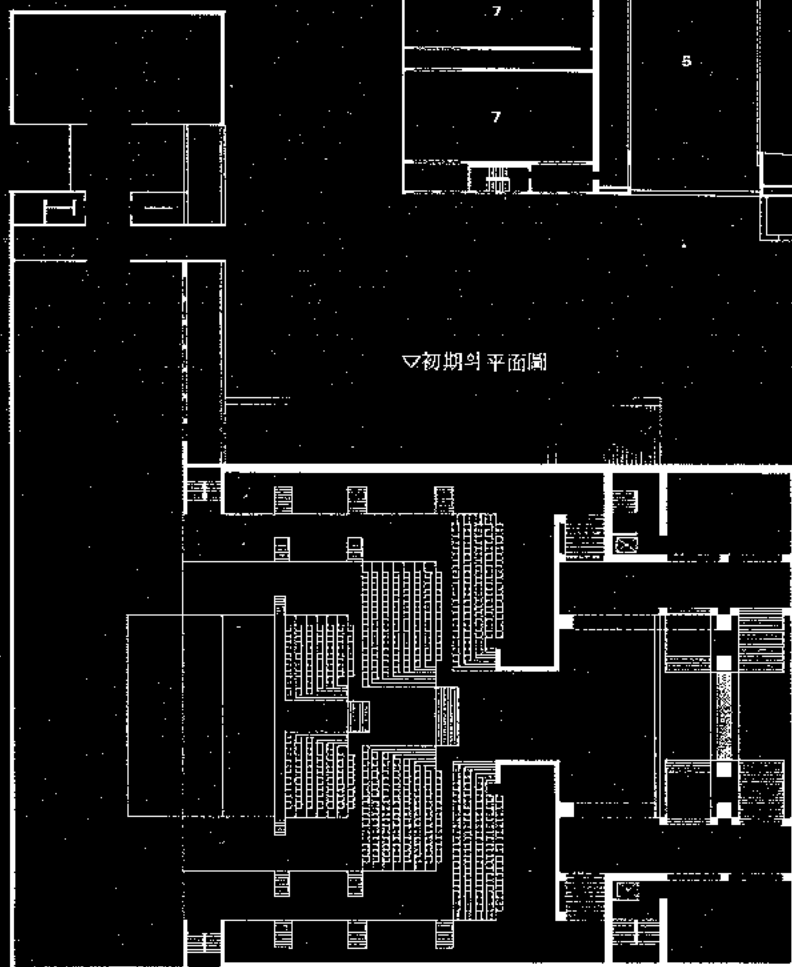
1. 락-비 上部
2. 宴会홀
3. 設備室
4. 客席
5. 舞台
6. 大道具室
7. 리허설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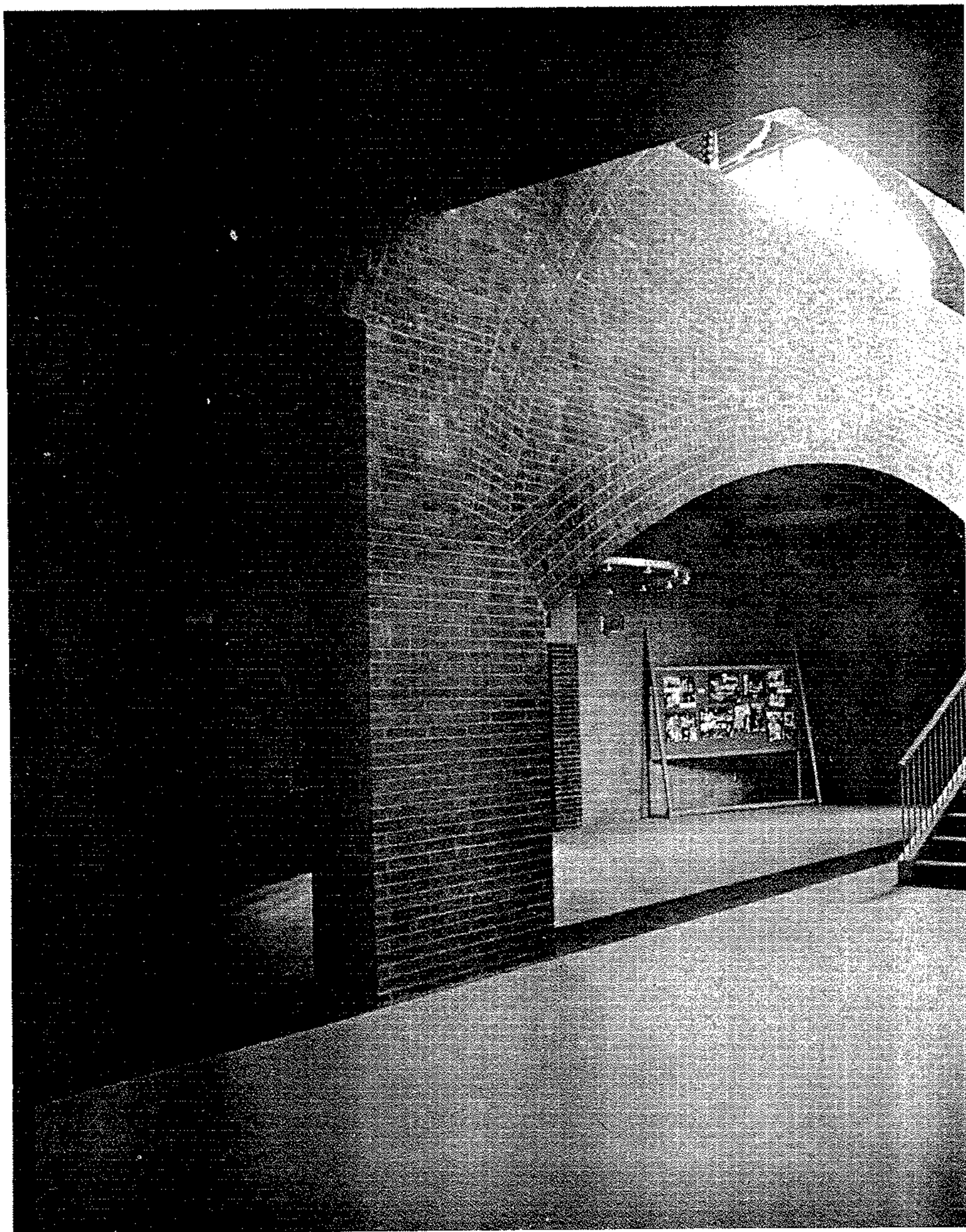
△断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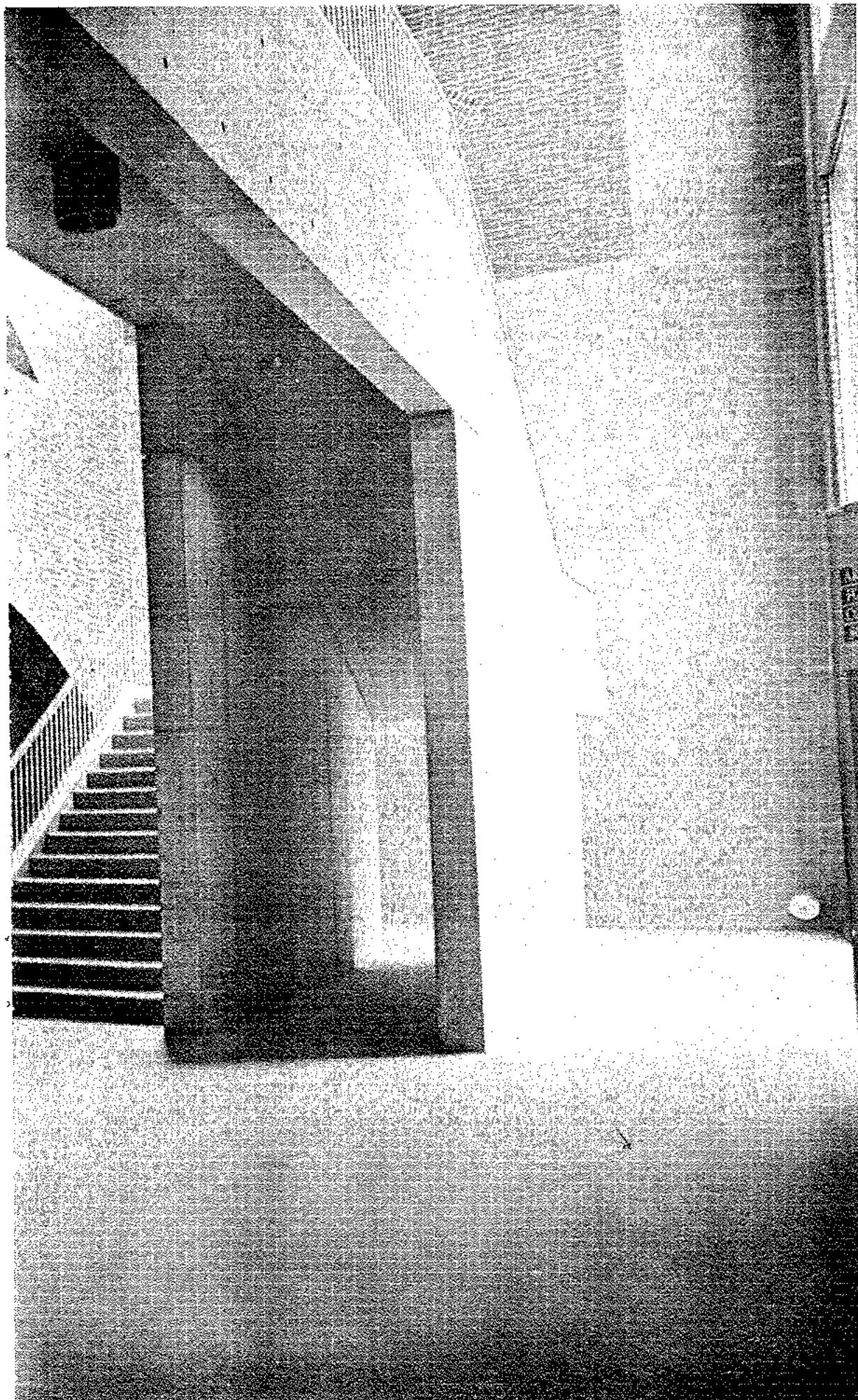


▽2 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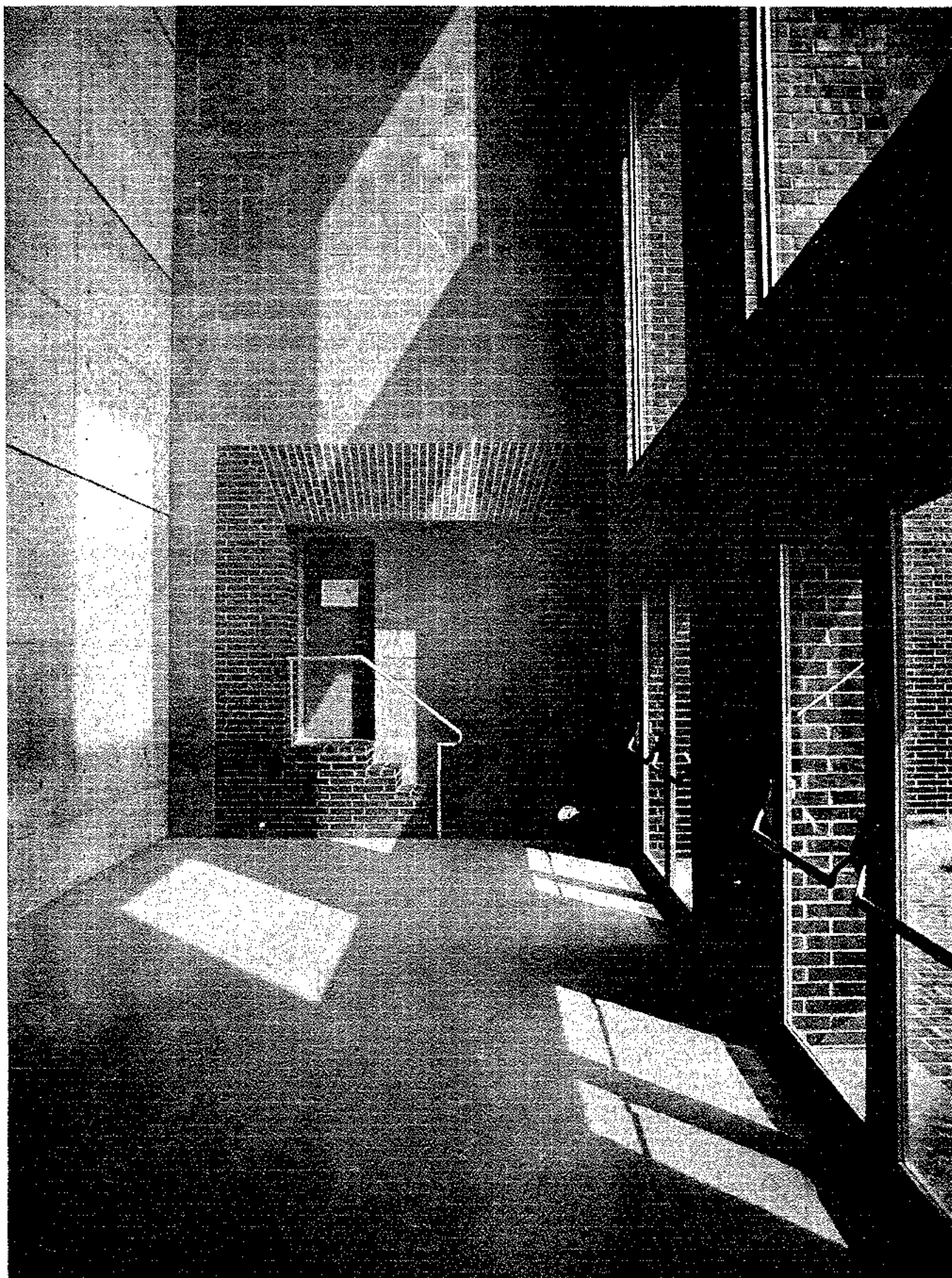
▽初期의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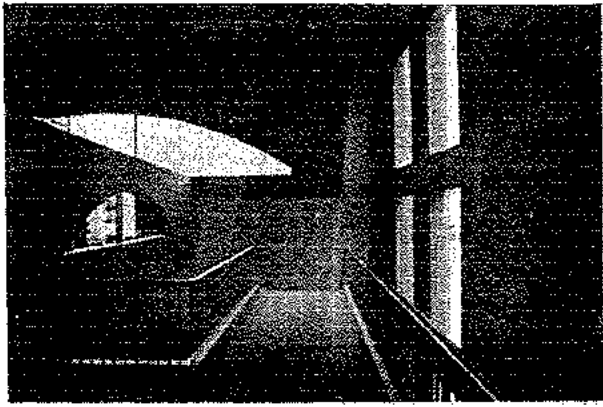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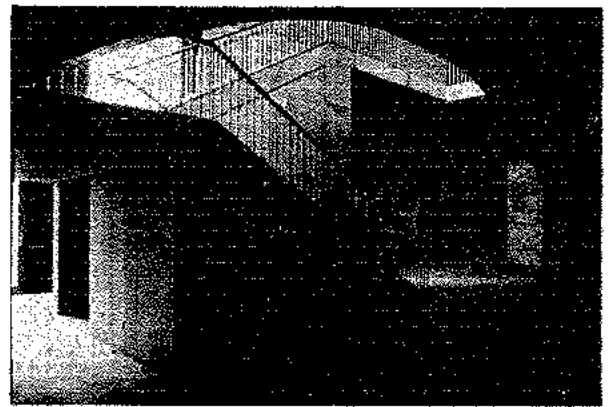
러-비의 階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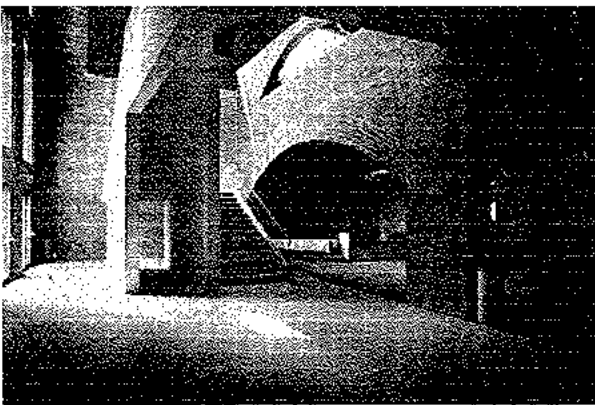
러-비외 側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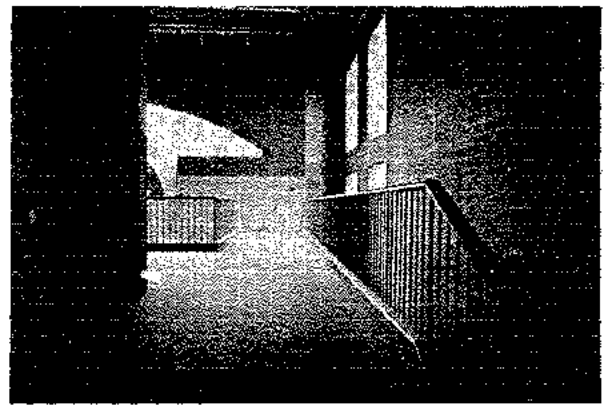
러-비 下部 및 階段



러-비 上部



러-비 下部 및 階段



러-비 階段



러-비 上部



러-비 下部 및 階段

會員動靜

서울특별시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이 광 호	광장건축연구소	종로구사간동80	72-6704	2-1475	407	76. 5. 12
김 무 웅	서울건축	성북구삼선동 5 가 298- 3	90-0551	2-1298	347	76. 7. 1
이 종 익	용일건축설계사무소	강남구학동66- 2	57-8343	1-421	59	76. 7. 6
김 진 성	강남건축사합동삼광건축	영등포구당산동 2 가 195	64-3545	2-10	11	76. 7. 16
서 현 진	도시기술개발공사	영등포구당산동 3 가 387- 3	64-3464	1-299	257	76. 7. 16
임 형 재	청암건축설계사무소	강남구천호동 410-168	55-8224	2-1632	394	76. 7.
김 현 국	신화건축연구소	남대문로 5 가12-29	23-8151	1-513	295	76. 7. 20
임 용 수	광림건설연구소	중구북창동 135- 1	22-7475	1-616	151	76. 7. 8
주 영 백	강동건축설계사무소	중구을지로 1 가 101	77-4826	1-994	413	76. 7. 12
나 영 균	동신건축나영건축합설계사무소	종로구교남동48	73-7271	2-321	84	76. 7. 13
유 병 찬	동신건축유병찬건축합설계사무소	종로구교남동48	74-1071	2-362	349	76. 7. 13
김 재 경	미로, 삼현건축연구소	중구남산동 3 가12-30	23-4041	1-4	88	76. 7. 21
정 해 웅	서진건축	관악구신림동73- 1	69-1949	2-962	313	76. 7. 24
박 운 옥	Co신원엔지니어링	중구을지로 4 가 310	29-8325	1-408	142	76. 7.

부산직할시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이 진 옥	합동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명륜동 598	52-2077	2-564	48	76. 7. 5
박 형 태	청조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명륜동 598	53-7931	2-1612	202	76. 7. 5
윤 영 명	성일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명륜동 598	53-7079	2-1494	167	76. 7. 5
지 호 경	하나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명륜동 598	52-1709	2-1579	207	76. 7. 5
조 년 순	삼진건축설계사	부산시서구괴정동 896	42-7206	2-1162	163	76. 7. 5
정 진 철	금강건축설계사	부산시서구괴정동 744-14	43-8043	1-324	17	76. 7. 8
홍 재 출	부광건축사무소	부산시동래구중동1394-92	52-3375	2-728	111	76. 7. 7
이 형 재	보광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덕래구북천동 380- 5	53-7120	2-1251	175	76. 7. 12
여 덕 연	대정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동래구북천동 380- 5	53-7120	2-1505	194	76. 7. 12
김 덕 부	종합건축기술공사 새부산건축설계사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0- 2	9-2862	2-1487	166	76. 7. 14
이 희 웅	종합건축기술공사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0- 2	9-1840	2-1094	152	76. 7. 14
김 건 랑	종합건축기술공사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0- 2	9-4411	2-1093	134	76. 7. 14
김 성 길	명현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0- 2	9-4967	2-856	123	76. 7. 14
한 기 종	북부산건축설계사	부산시동구대창동 3 가40- 3	42-4675	1-899	76	76. 7. 16
김 영 상	한창건축설계사무소 우주건축설계공단 김영상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1- 7	9-4605	2-929	146	76. 7. 19
정 용 웅	우진건축설계공단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1- 7	9-4605	2-1489	168	76. 7. 19
심 족 남	정용웅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1- 7	9-4605	2-929	146	76. 7. 19
조 재 현	우진건축설계공단	부산시부산진구패법동 821- 7	9-4605	2-835	109	76. 7. 19
표 재 찬	조재현사무소	부산시동래구북천동 374- 1	52-1809	2-1607	245	76. 7. 19
박 원 갑	유일건축설계사 산진건축설계사	부산시서구서대신동 2가 266	42-9180	2-550	118	76. 7. 9

부산직할시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김 순 종	시대건축설계사	부산시 서구서대신동 2 가 266	42-4788	2-604	52	76. 7. 9
강 석 근	국제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동광동 1 가11- 2	22-4008	1-127	11	76. 7. 12
박 성 길	성진설계사무소	부산시 동래구북천동 380- 5	52-0978	1-1125	83	76. 7. 15
이 종 현	동일설계사	부산시 동래구북천동 380- 5	52-2077	1-799	47	76. 7. 15
손 재 경	중부건축사합동동양설계사	부산시 중구남포동 1 가47	23-3007	1-793	56	76. 7. 19
황 재 호	중부건축사합동부민설계사	부산시 중구남포동 1 가47	23-3167	1-802	81	76. 7. 19
윤 근 수	중부건축사합동부국설계사	부산시 중구남포동 1 가47	22-1908	1-122	33	76. 7. 19
김 연 호	동진건축사무소	부산시 동래구북천동 374- 3	52-3375	1-1511	235	76. 7. 9
김 호 종	금성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 동래구북천동 380- 5	53-7120	2-1685	223	76. 7. 12
김 종 국	국영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 동래구북천동 380- 5	53-9038	2-1603	199	76. 7. 12

경기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장 원 선	세기건축설계사무소	인천시 남구도화동 440	8-0119	1-209	51	76. 6. 28
-------	-----------	---------------	--------	-------	----	-----------

충청북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표 재 범	표재범건축	청주시 문화동64- 4	2477	1-753	5	76. 8. 12
이 기 동	기산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2-359	9	76. 8. 12
정 순 모	정화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2-78	182	76. 8. 12
최 송 실	신광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2-77	1	76. 8. 12
이 화 로	대성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1-201	2	76. 8. 12
박 오 균	신화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1-202	1	76. 8. 12
유 영 수	신진건축	제천읍명동 166- 6	2171	2-959	183	76. 8. 12
김 현 식	통일건축	청주시 북문로 2 가 116- 150	6769	2-266	7	76. 8. 12
오 석 균	통일건축	청주시 북문로 2 가116- 150	6769	2-76	8	76. 8. 12
최 호 진	통일건축	청주시 북문로 2 가 116- 150	6769	2-1530	112	76. 8. 12

충청남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유 인 수	유인수건축설계사무소	보령군대천읍대천리 283- 1	379	2-580	위임 1	76. 7. 5
박 치 성	서산합동건축설계사무소	서산군서산읍동문리 922	2311 3115	2-290	12	76. 7. 7
김 길 수	서산합동건축설계사무소	서산군서산읍동문리 922	2311 3115	2-111	11	76. 7. 7
이 갑 준	서산합동건축설계사무소	서산군서산읍동문리 922	2311 3115	2-578	위임 1	76. 7. 7
박 태 우	박태우건축설계사무소	대천시 대흥동 487- 1	3-2721	2-81	37	76. 7. 20
이 원 우	이원우건축설계연구소	대전시 대흥동 487- 1	2-2791	2-579	11	76. 7. 20

충청남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김 영 두	김영두건축설계사무소	대전시 대흥동 487-1	2-2792	2-1372	위임 7	76. 7. 20
인 철 환	인철환건축설계사무소	대전시 대흥동 487-1	3-9027	1-257	위임 12	76. 7. 20
강 동 식	신탄건축설계사무소	대덕군유성읍장대리 11-16	4-0950	2-577	위임 4	76. 7. 21
류 조 형	한밭건축설계연구소	대덕군유성읍장대리 11-16	4-0950	2-1367	위임 1	76. 7. 21

전라남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박 득 수	미성설계사	광주시 동구금남로 5 가 133	4-2597	2-669	9	76. 6. 30
정 락 범	신흥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대외동 75	4-2597	1-172	6	76. 6. 30
신 양 우	삼양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동구금남로 5 가 133	3-7689	2-588	5	76. 7. 1
김 성 현	시대건축사무소	광주시 서구양동 441	4-2163	2-64	2	76. 7. 7
정 욱 진	삼우건축공사	광주시 서구양동 441	4-0672	1-174	2	76. 7. 7
박 정 흥	대화건축설계사무소	광주시 서구양동 441	2-1442	2-1108	18	76. 7. 7
최 영 태	우미건축사무소	광주시 서구양동 441	4-2163	2-1315	33	76. 7. 7

경상북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이 송 기	시대건축설계연구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6-2	5-4450	2-849	8	76. 7. 2
배 기 호	매우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동문동 16-2	5-4450	2-1048	9	76. 7. 2
안 상 은	동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 174-3	5-1015	2-1741	10	76. 7. 2
이 동 근	동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동구신천동 174-3	5-1015	2-1282	11	76. 7. 2
김 태 호	아성건축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 684-39	4-2916	2-139	12	76. 7. 2
임 대 규	아성건축사무소	대구시 남구남산동 684-39	4-2916	2-712	13	76. 7. 2
이 대 일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1-983	2	76. 7. 3
도 원 회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2-1101	14	76. 7. 3
임 두 현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2-480	15	76. 7. 3
김 영 수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2-1289	16	76. 7. 3
도 무 찬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2-1692	17	76. 7. 3
최 병 민	정림건축	대구시 중구동인동 2 가 12-1	4-7648	2-933	18	76. 7. 3
정 수 영	한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종로 1 가 41-38	2-0474	1-881	3	76. 7. 9
한 석 인	한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종로 1 가 41-38	2-0474	1-910	4	76. 7. 9
안 승 재	한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종로 1 가 41-38	2-0474	1-1349	5	76. 7. 9
이 덕 우	한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종로 1 가 41-38	2-0474	1-880	6	76. 7. 9
김 주 학	한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종로 1 가 41-38	2-0474	2-522	29	76. 7. 9
우 종 수	합동건축	대구시 중구교동 9-1	4-5458	2-842	20	76. 7. 9
장 호	유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교동 9-1	4-5458	2-1065	21	76. 7. 9
추 경 호	유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 중구교동 9-1	4-5458	2-1420	22	76. 7. 9

경상북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정 원 성	부림설계사무소	경북문경군문경읍점촌리 151	5-6278	1-769	60	76. 7. 2
김 경 진	경북건축	대구시서구로비산동 391	3-0445	1-151	7	76. 7. 14
최 병 윤	경북건축	대구시서구비산동 391	3-0445	2-1064	23	76. 7. 14
권 순 무	경북건축	대구시서구비산동 391	3-0445	2-1581	24	76. 7. 14
박 종 학	경북건축	대구시서구비산동 391	3-0445	2-1745	25	76. 7. 14
박 해 권	경북건축	대구시서구비산동 391	3-0445	2-493	26	76. 7. 14
조 기 보	동남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38-2	4-1666	1-146	10	76. 7. 27
김 준 필	동한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38-2	4-1666	1-756	11	76. 7. 27
유 일 우	국제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38-2	4-1666	1-1269	12	76. 7. 27
김 성 수	대광건축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38-2	4-1666	2-841	32	76. 7. 27
이 광 일	유진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38-2	4-1666	2-1073	33	76. 7. 27
임 삼 록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철성동 2가 161-16	3-0934	1-760	13	76. 7. 27
이 근 상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철성동 2가 161-16	3-0934	2-216	34	76. 7. 27
조 정 부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철성동 2가 161-16	3-0934	2-1280	35	76. 7. 27
정 영 철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철성동 2가 161-16	3-0934	2-1114	36	76. 7. 27
한 석 배	대구건축사합동북부사무소	대구시북구철성동 2가 161-16	3-0934	2-848	37	76. 7. 27
김 팔 섭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2-1417	38	76. 7. 29
임 윤 상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2-1281	39	76. 7. 29
윤 옥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1-776	14	76. 7. 29
서 종 달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2-1586	40	76. 7. 29
강 정 공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1-1518	15	76. 7. 29
홍 호 용	도시건축	대구시중구동문동 13	4-7817	2-1580	41	76. 7. 29
김 선 돌	합동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서성로 2가 39-3	3-4509	2-1478	42	76. 7. 29
안 호 일	신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영주 7리 327-58	3688	2-519	140	76. 8. 3
정 구 윤	대영건축설계사무소	영주군영주읍영주 7리 327-58	3688	2-501	136	76. 8. 3
김 상 웅	합동건축 공무소	대구시중구서성로 2가 39-3	3-4509	2-1069	43	76. 8. 6
김 남 수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동문동 10-5	3-4509	1-307	16	76. 8. 6
백 봉 상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동문동 10-5	3-4509	2-1519	44	76. 8. 6
이 상 익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동문동 10-5	3-4509	2-714	45	76. 8. 6
이 수 일	공평건축연구소	대구시중구동문동 10-5	4-8356	2-1479	46	76. 8. 6

경상남도지부 사무소이전 및 명칭변경

모 재 기	창옥건축설계사	마산시창동 120	2-8456	1-1137	40	76. 8. 5
이 덕 일	무림건축설계공무소	마산시중앙동 3가 4-6	2-0038	2-868	12	76. 8. 4
배 동 권	신성건축설계공사	중앙동 3가 4-6	2-9694	2-1503	10	76. 8. 4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吳 壽 永
名 稱 동신건축
소수영종합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중로구교남동48
電 話 73-7271
免許番号 2-442
登録番号 2-445
年 月 日 76. 8.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方 孝 屹
名 稱 신초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강남구학동87의 2
電 話 51-7892
免許番号 1-434
登録番号 1-721
年 月 日 76. 8.



本 籍 충청남도
姓 名 尹 鼎 重
名 稱 보정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서울중구수표동11-1
(자원빌딩602)
電 話 21-6340
免許番号 1-36
登録番号 1-714
年 月 日 76. 8.



本 籍 경기도
姓 名 朴 遠 泰
名 稱 동남아종합기술공사
所 在 地 서울중구다동 130
電 話 777-2610
免許番号 1-866
登録番号 1-708
年 月 日 76. 8.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朴 景 遠
名 稱 미전사박경원건축연구실
所 在 地 영등포구당산동 3 가228-23
電 話 64-3261
免許番号 1-15
登録番号 1-722
年 月 日 76. 8.



本 籍 서울특별시
姓 名 趙 殷 秀
名 稱 한림건축연구소
所 在 地 강남구신사동산79-9
電 話 57-7924
免許番号 2-1744
登録番号 2-421
年 月 日 76. 8.

釜山直轄市支部 新入會員



本 籍 부산직할시
姓 名 安 鍾 煥
名 稱 삼광건축사무소
所 在 地 부산직할시중구중앙동 1 가22
電 話 44-1768
免許番号 1-930
登録番号 1-55
年 月 日 76. 7.

慶尙北道支部 新入會



本 籍 대구시
姓 名 裴 清
名 稱 대영건축설계사무소
所 在 地 대구시서구비산동 415-5
電 話 3-1116
2-9565
免許番号 2-1283
登録番号 2-98
年 月 日 76. 5. 31.

月間協會動靜

제17회 이사회(정기)

일 시 : 1976, 8, 4 14: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출석의원 : 회 장 : 이규복

총무이사 : 박성규

이 사 : 성일영, 김전성, 김두섭, 정효환

부의안건 : ① 윤리위 결정 수락의견

② 설계 보수 경감 요청의견

③ 회원증 발급의견

④ 직원, 승급, 전보, 고용원 채용의견

⑤ 예비바 사용 승인의견

⑥ 기 타 사 항

제1회 건축연구위원회

일 시 : 1976, 8, 12(목) 15: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 석 : 성일영, 한규봉, 김지태, 오웅석, 이명환,
안인도.

토의안건 : ① 주택건축 허가제도 개선책 실시에 관한건

②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관한건.

③ 보수액의 덤핑 행위 방지에 관한건

④ 설계 지침서 발간에 관한건

⑤ 기 타 사 항

제6회 지부장 회의 및 사무국장회의

일 시 : 1976. 8. 13. 14.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의원 : 회 장 이규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김두섭, 정효환

감 사 박래운

지 부 장 이봉로(서울) 유광택(부산)

김일호(경기) 이상철(강원)

오석균(충북) 박홍우(충남)

이영수(전북) 최춘화(전남)

윤 옥(경북)

사무처장 노병진(본부)

사무국장 고진학(서울) 반덕진(부산)

박찬영(경기) 김창남(강원)

표중호(충북) 김영운(충남)

강원창(전북) 정동주(전남)

김홍업(경북) 박수원(경남)

홍진호(제주)

부의안건

① 협회 당면 문제에 관한건.

회관 건립 위원회

일 시 : 1976, 8, 13(금) 14: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 석 : 회 장 : 이규복

총무이사 : 박성규

이 사 : 김두섭, 정효환

감 사 : 박래운

이봉로(서울) 유광택(부산)

김일호(경기) 이상철(강원)

오석균(충북) 박홍우(충남)

이영수(전북) 최춘화(전남)

윤 옥(경북)

이주호, 박형삼, 안영준, 이종완

유명하, 이만재, 김춘배.

제8회 편찬위원회

일 시 : 1976, 8, 16(월) 16:00시

장 소 : 협회 회의실

출 석 : 위원장 : 김두섭

위 원 : 김안석, 신현식, 유경철, 윤도근, 이경희
이문보

부의안건 : ① 7월호 합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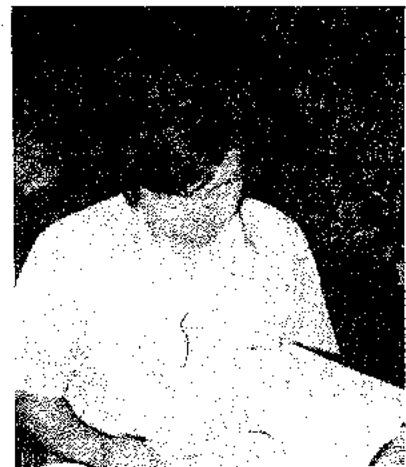
② 8월호 편집계획안 검토

③ 기 타 사 항

— 소식 —

本協會 編纂委員으로 오랜 期間 手苦하시던
弘益大學校 尹道根 教授께서 프랑스 政府
獎學金에 依한 프랑스 마르세이유 藝術建築
大學에 留學케 되어 8月末頃, 出國한다.

ECOLE D'ART ET D'ARCHITECTURE
DE MARSEILLE FRANCE



76年度上半期庶政刷新推進実績分析評価會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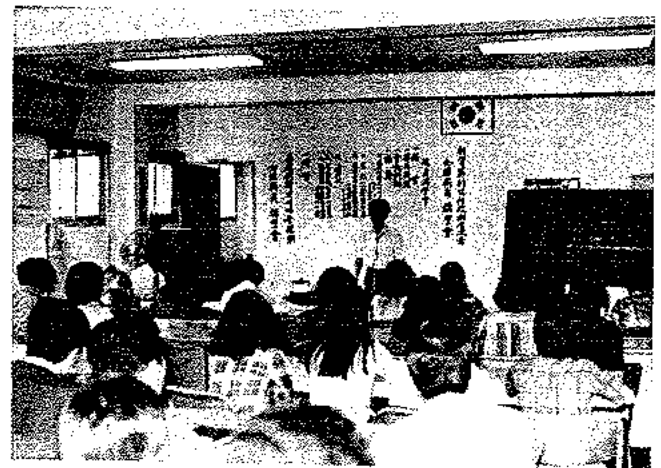
회의를 주재하는 본협 회장.



개회사를 하는 총무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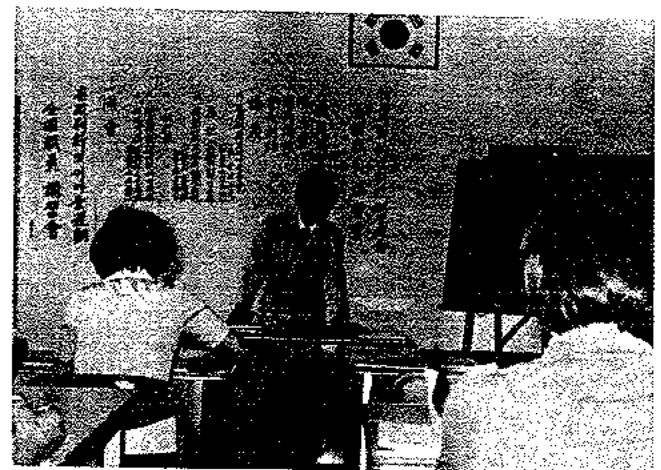
실적분석을 하는 임원 및 지부장들.



행정개선편을 강의하는 사무처장.



실적평가를 하는 임원 및 지부 사무국장들.



규정해설을 강의하는 기술부장.

■ 76年度 上半期 庶政刷新 実績分析評価會議

지난 8월 13일 본협회에서는 76년도 상반기 서정쇄신 추진 실적 분석 평가회의를 전 임원 및 각시도 지부장과 사무국장들이 연석회의를 가졌다.

■ 第1回 全国 職員 講習會

지난 7월 31일 본협회에서는 1976년도 제 1회 물자절약 및 행정제도 개선 전국 직원강습회를 열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76年度 全國綜合建設資材總覽集

發行事業計劃書

- | | |
|--------------|-----------------|
| 1. 趣旨 (目的) | 5. 業體別 掲載料 算出根拠 |
| 2. 計劃範圍 | 6. 掲載業體의 遵守事項 |
| 3. 計劃明細 | 7. 其他事項 |
| 4. 카다로그集 內容 | 8. 카다로그集 作成要領 |

1. 趣旨 (目的)

全國 優秀 建設資材 및 機器 生産業體의 製品을 建築士, 建設業體 關係官庁 및 一般에게 널리 普及함과 同時 關係品目은 展示 等を 通해 品質의 優秀性을 立証시키도록 하여 不良資材를 排擊하고 優秀 資材 使用으로 建築物의 質的向上과 建設의 發展을 期하고자 함.

2. 計劃範圍

- 가. 發行計劃은 1 年에 1 回씩 本支部가 選定하여 發行한다.
- 나. 76 年度 發行計劃은 76 年 10 月 30 日로 한다.
- 다. 選定範圍는 全國의 建築資材 및 機器 製造業體
- 라. 掲載計劃은 全國 200 餘 優秀製品業體
- 마. 各 業體別 1 面以上으로 細部資材의 特徵과 規格을 掲載함.
- 바. 本 計劃은 1 業體 1 面以上이 必要한 時는 正比例로 한다.

3. 計劃明細 (配付計劃)

가. 現加入 全國 建築士協會會員 (各 1 部)	1,800 部
나. 新入豫定 全國 建築士協會會員 (各 1 部)	300 部
다. 全國 優秀 建設業體 (各 1 部)	300 部
라. 掲載業體 (各 10 部)	3,000 部
마. 關係官庁 (各 1 部)	600 部
合 計	6,000 部

4. 카다로그集 内容

- 가. 紙類는 아트紙 150으로 均一함.
- 나. 掲載会社別 1面은 自由로 原稿作成할 수 있으며 2面부터는 設計, 指示書에 必要한 說明書가 必要함.
- 다. 冊의 種類는 "바인드"로 製作하여 新開發品等 隨時 變更事項을 交付 綴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위 掲載料 算出根拠는 本支部 事業部 幹事會議 決議事項에 依拠 實費에 準하였음.

5. 業体別 掲載料 算出根拠

- 가. 1面當 掲載料는 98,500원으로 定하고 申請磨勘日로 400面이 加減될 때는 追後 變更 掲載料를 通知함. (但, 印刷 3度基準)
- 나. 單色 1面當 掲載料는 60,000원으로 定하고 以外事項은 "가"項에 準한다.

6. 掲載業体の 遵守事項

- 가. 信託期間 (所定樣式) 1976年 8月 31日까지
- 나. 掲載料 納入額 (所定樣式)
 - ① 掲載料 納入金額 (掲載料의 100%) 期間: 掲載信託과 同時
 - ② 其他 特別한 事由의 納入金額 (掲載料의 50%)
期間: 掲載信託과 同時
 - ③ 殘額納入金額 (殘額全部) 期間: 1976年 9月 30日까지
- 다. 掲載料 納入金額은 特別한 事由가 있다고 協會가 認定한 以外는 還払하지 아니한다.

7. 其他事項

1976年度 全國建設資材 展示會에 出品한 会社를 優先順位로 掲載하며 其他問議는 本支部 事業所로 連絡바람.

8. 카다로그集 作成要領

- (A)樣式: 1面만을 必要로 할 때는 아래 縮小한 (A)樣式을 使用하게 됨. (但) 1品目 1面에 作成要함.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問議處 (72) 7685 · 7653
(73) 8059 · 6258 · 6392

(1)항 : 工程을 記載할 것.

(例) 지붕工事, 基礎工事, 內裝工事等

(2)항 : 製品名 또는 營業種目을 記載함.

(例) 스테이트, 알미늄샷시, 스틸샷시, 본타일, 후로링, 부력, 防水
等

(3)항 : 페이지란이므로 記載不要

(4)항 : 会社名, 所在地, 電話番号 等を 記載함.

(5)항 : 製品說明 (用途), 規格 및 性能, 特徵 또는 利点, 施工方法, 注意事項, 見積資料 等を 記載함.

(6)항 : 設計時 資料가 될 수 있는 正確한 치수 (吋數) 等を 記載한
圖面을 켄트지에 잉킹하여 (6)항 規格에 넣을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게 됨.

(7)항 : 製品 또는 施工過程을 納得하기 쉬운 사진을 可能하면 天然色
으로 提出하게 됨.

※ 注意事項 : (1)~(4)項의 規格이나 位置는 變動될 수 없으며 (6)項이 不必
要할 때는 (5)(6) 2 個項을 1 個項으로 使用하여도 무방하며
(7)항도 不必要할 때는 같은 要領임.
但, 245 % × 180 %의 範圍를 벗어날 수 없음.

(B)樣式 : 2 面이 必要할 때는 아래 縮小된 (B)樣式을 使用하여야 하며,
2 面以上 必要할 때에는 問議하여 주시면 됨.

(1)~(7)項까지의 作成要領 및 注意事項은 (A)樣式과 同一함.

양식범위 : 단위 % 표시 (NO SCALE)

